현대불교

행복 만들기 캠페인
부처인 당신을 공경합니다

제 750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3년 9월 23일(음력 8월 5일) 수요일(주간)

社告

영봉스님과 함께 나를 찾아가는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
行禪

세계 최고봉 16좌 가운데
10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히말라야 트레킹의 베스트 코스 P.K봉.
해발 4080m를 걸어 오르는 동안
누구나 수행자가 되고
누구나 깨침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현대불교신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네팔 카트만두 '세종 한국문화 언어교육원'과
공동 기획한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영봉스님이 안내하는 이번 트레킹은
삶에 지치고 번뇌에 휩싸인 영혼에
부처님 정각의 대도량 히말라야의 기운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동참안내

11월 6일(금)~ 20일(금) 15일 : 일 시 ●
인천공항-카트만두-지리-시발라야-반달-마일 : 코 스 ●
라 -불불레-P.K.베이스캠프-P.K.정상-준베시-
반달-시발리아-지리-카트만두-인천공항
선착순 30명(16세 이상 가능) : 인 원 ●
287만원(비자비 5만원 별도) : 참 가 비 ●
국민은행 006-01-0785-361(현대불교) : 입 금 계 좌 ●
10월 20일(화) : 접 수 마 감 ●
10월 31일(토) 오후 3시 현대불교신문사 : 사전설명회 ●
02-2004-8233, 017-236-5769 임연태 부국장 : 문 의 ●
033-647-8848 영봉스님

공동주최

현대불교신문사 ·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

영봉 스님은



1990년 부처님오신날 세계최초 성직자 신분으로 히말라야 메라픽(6750m)을 등정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이후 20여 년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고산등정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는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종한국문화언어교육원'을 설립 현지 가이드 셀파 포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대안학교는 청소년 포교 대안"

불교무설연구소 23일 '불교계 대안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포럼

불교의 고령화 문제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이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2006년 서울시내 소재 종교사학 재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교육에 관한 설문'에 따르면 중 · 고교생 중 불자는 개신교 신자의 25%에 불과했다.

충격적인 조사 결과에 교계는 파라미타 등을 통해 어린이 · 청소년 법회를 활성화했지만 현재까지 청소년 포교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 포교의 효율적인 대책으로 대안학교가 주목 받고 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커지던 199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까지 인가형 대안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위탁형 대안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대안학교가 설립됐다.

대안학교(代案學校, Altenative School)는 교육 이념 및 운영방식의 독특성을 갖고 기존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시도하는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 대안학교의 설립주체로는 원불교와 개신교계가 활발하게 참여해 왔다. 특히 개신교 주도의 대안학교는 최근 10년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불교무설연구소(소장 정호)가 최근 발간을 앞둔 <대안교육 사례연구와 학교설립 제언>에 따르면, 교육청의 정식인가를 받은 특성화학교 중 전체 학교 수의 38%(11개교)가 개신교계 재단에서 운영 중이다. 또, 위탁형대안학교의 경우에는 25%(7개교), 비인가형대안학교는 15%(11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원불교계도 국내 최초의 특성화 중학교인 송학성지중학교와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한겨레중 · 고 등 특성화학교를 중심으로 대안학교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특성화학교의 경우 개신교(11개교) · 원불교(8개교) · 가톨릭(1개교)이 모두 참여하고 있지만 4대 종교 중 불교계는 운영하는 곳이 없다. 위탁형 대안학교도 나란타(서울 자양동 소재) · 아란야(서울 삼전동 소재) 학교만이,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71개교 중 실상사 작은학교만이 불교계의 유일한 대안학교이다.

이와 관련, 불교무설연구소(소장 정호)는 9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계 대안교육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1회 대중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의정부 광동고교 이학송 교장의 기조발제를 비롯해 불교계 대안학교인 나란타학교 장영심 관장과 도시형대안학교 새빛학교장 김태주 교사 등의 사례발표가 예정됐다.

발표 후에는 발표자들과 서울 개운사 주지 범해 스님, 고명석 조계종 포교원 선임연구원 등이 난상토론을 펼친다.

이학송 교장은 "인생의 질풍노도기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대안학교를 통해 불교계가 포용할 수 있다"며 "침체된 청소년 포교가 획기적 전기를 맞기 위해서는 108배, 참선 등 불교적 문화콘텐츠를 대안교육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 스님은 "이번 행사는 불교무설연구소에서 불교계 대안교육 현황을 조사한 뒤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획됐다"며 "불교의 인적 · 물적 ·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한 대안학교가 잇달아 생겨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02)723-7727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승가대신문 창간 20돌 1989년 창간돼 젊은 학인스님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승가대신문(편집장 도정)이 창간 20주년을 맞았다. 승가대신문은 9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중앙승가대 개교 30주년 및 승가대신문 20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불교 출가와 재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사진은 세미나가 열리는 가운데 승가대신문 20년 동안의 주요 기사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물을 학인 스님들이 둘러보고 있는 모습.

박재완 기자

조계종·산림청 사찰림 보호 협력

산림청, '사찰산림임야 경계도' 등 전달

사찰림을 보호하고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조계종과 산림청의 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9월 2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게 전국 교구본사 소유산림 경계와 숲 모습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한 '사찰산림임야 경계도'와 '임상도'를 전달했다.

이번 경계 · 임상도는 2008년 12월 11일 조계종과 산림청이 체결한 '사찰산림의 보호 및 공익적 가치증진' MOU 체결에 따른 첫 결과물이다. 산림청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종단 산림 현황 파악을 마치고, 2010년부터 조계종과 함께 △숲 가꾸기 △화재예방 △수목사업 △포행로 정비 등 사찰산림에 대한 종합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은 "사찰산림 종합관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청불회 12대 회장에 박재완 수석

"부처님 가피 온누리에 퍼지도록 할 터"

청와대 불자 모임인 '청와대 불자연합회(이하 청불회)' 제12대 회장에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사진)이 선출됐다. 청불회는 9월 17일 회원총회에서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을 추대 형식으로 선출하고 이 · 취임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유서 깊은 청불회 회장직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청불회를 활성화해 부처님의 가피가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박재완 수석은 1955년 경남 마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미국 하버드대에서 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공직생활을 거친 뒤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대표 비서실장 , 대통령직인수위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 팀장 ,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이상언 기자

금주의 Hot



천운 스님 14선지식



도경 스님 08불자들



김규원 23강의실

법구경

쓸모없는 천 마디 말보다
영혼에 기쁨 주는 한 마디 말이
보다 낫다.

현대불교@장터
HyunbulShop.com
문의전화 02)2004-8215~6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02)3672-7181~5
불교서적총판
운 주 사

〈PR〉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패
용도:상량식,봉사 복장의식, 영가천도
문의 02)722-1850

문젠 명상 센터
선 / 명상 / 요가
임산부 요가
02-956-2460

열대과일 두리안 전문
청다원
보이茶, 각종 茶器
생활 도자기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한가위 선물 세트 할인판매!

곱단이의 모든제품에는
석유화학 첨가물을 사용하지않습니다.
SLS, SLES, ALS, ALES (석유화학 첨가물)등의
일반적인 계면활성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정제 주원료 100%
야자유와 콜라겐 펩타이드&아미노산을
사용합니다.

아름다운 인연 곱단이



심청골 무각사 주지스님이 제안하는 '아름다운 인연'
- 인간과 자연을 생각하며 보급합니다. -
순수 자연주의를 표방한 자연친화적인 바디케어 제품
"아름다운 인연 곱단이"



사랑하는 이에게
건강을 선물하세요!
예쁜 복주머니 팩에 포장해 드립니다.

총 판 대 리 점 모집중

http://www.gobdanee.com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제품 설명과 구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곱 단 이 를 검색하세요
주문 : 무료전화 080-363-8985
판매원 : 아름다운인연-곱단이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309)
제조원 : (주)펩티모

아름다운 인연-곱단이는 친환경을 추구합니다.

죽비와 목탁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표류하는 東大 불교학술원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6월 로버트 버스웰 교수(美 UCLA)의 초대 불교학술원장 임명과 함께 출범한 지 100일 여가 됐지만 아직 이렇다 할 활동도,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불교학술원은 동국대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전자불전문화재콘텐츠연구소, 동국역경원, 종책연구소(설립예정)를 하나로 통합한 교책 연구기관이다. 前 이사장 영배 스님의 원력으로 설립됐다는 불교학술원은 스님이 이사장직을 내놓기 직전 설립돼 당시부터 설립취지에 맞는 소임을 다 할 수 있을지 세간의 의구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국내의 기라성 같은 불교학자들을 제치고 푸른 눈의 불교학자가 초대 불교학술원장에 임명됐다는 소식에는 다수의 학자들이 국내에서 불교학을 연구하는데 대한 자괴감마저 느꼈다는 후문이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불교학술원은 출범 100여 일을 맞은 지금도 공간부족, 인력충원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간편제 어느 것 조차 갖추질 못했다. 교내 4대 연구기관의 상급 관리 감독기구지만 원장부원장만 임명된 채 방치되다 시피하다 최근에야 교직원 1인이 학술원 행정직으로 발령이 났다. 그나마 1인의 직원마저 역경원 담당이던 것을 책상은 역경원에 그대로 둔 채 전산 상 불교학술원으로 소속만 바꿔 놨다. 각 단과대마다 실장과장급 행정직원 등을 3~5인씩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불교학술원의 공간문제는 더 심각하다. 불교문화연구원 3층에 원장실만 있을 뿐이다. 때문에 교내 어디에도 불교학술원 현판조차 내걸리지 않은 까닭에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는 "유령기관이 아니냐"는 우스개도 심심찮게 들린다.

학교 측은 불교문화연구원이 위치한 계산관을 리모델링하면서 확보되는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로버트 버스웰 교수는 불교학술원장직을 수락하면서 동국대와 외국 대학을 연결하는 역할이 자신의 가장 큰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 말을 두고 지금까지도 불교학술원의 설립 취지와 위상에 맞는 원장의 역할인지는 설왕설래가 많다.

하지만 버스웰 교수가 제 몫을 다하고 안하고는 동국대가 불교학술원에 쏟는 관심과 지원에 비례해, 조계종립대로서의 건학이념을 구현하겠다는 오영교 총장의 의지에 달린 것만은 자명하다.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도덕성·소통능력이 우선

김응철 교수 '총무원장 자질·종책…' 연구 발표

탁월한 도덕성과 청렴성, 60이상의 세납 등을 갖춘 리더십으로 종단 화합을 이끌며, 대사회적 소통능력과 시대변화를 읽는 능력으로 한국불교를 이끌 조계종 총무원장.

사부대중이 바라는 제33대 총무원장의 자질은 대내적으로 도덕성, 대외적으로 소통능력으로 드러났다. 또 차기 총무원장의 과제로는 포교활성화와 승가권위 확립 등 교단 청정과 대사회적 역량 강화를 꼽았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오, 이하 대중결사)는 9월 14일 대전 장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제2회 워크숍을 열고,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의 자질 · 종책 · 선거제도에 관한 연구보고'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4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총무원장의 주요자질(10점 만점)에는 △도덕성과 청렴성(9.796점) △종단 내외 존경(9.379) △계파를 초월한 공정성(9.301점) 등이 꼽혔다.

총무원장에게 요구되는 능력으로는 △대사회적인 소통능력(9.554점)과 시대변화를 읽는 능력(9.548점)이 우선시됐다. 종무행정 능력(8.313점), 정치적 능력(7.167점)과는 대비되는 부분이다.

총무원장 기준 중 '세납'은 60~65세(42%)가 가장 선호됐다. 60세 이상을 답한 응답자는 반수 이상에 달했다. 승랍은 35~40년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꼽혀 현행 30년 이상 기준에서 5~10년 정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또 현행 총무원법에 총무원장 안거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50%이상이 15안거 이상의 안거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0안거 이상의 자격을 요구한 응답자도 28.9%에 달했다.



대중결사워크숍에서 참가 스님들이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의 분석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총무원장의 자질과 능력 외에 차기 총무원장이 풀어야 할 종단 과제로는 △포교활성화 대책(9.296점), △승가의 대사회적 도덕적 권위 확립(9.241점)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64%가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평가는 10% 정도에 불과했으며 '매우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23.2%에 달했다. 특히 출가자의 경우 현 선거제도에 대해 부정적 94.9%(매우 부정적 81%)인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선거제도 문제점으로는 △계파 갈등(31.9%) △지나친 세속화(21.2%)가 나타났다. 시급한 개선점으로는 문중이해 중시풍토와 금품수수, 정치적 거래, 친소관계 중시 등이 지적됐다.

이러한 부정적 선거풍토 극복을 위해서는 선거공영제 도입 등 개선책과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총무원장 선출의 방법을 묻는 문항에서는 직선제(56.9%)와 추대제(26%)가 선호됐으며 현 체제인 간선제는 11.2%에 불과했다.

김응철 교수는 "종단 개혁 이후 선거를 통해 계파가 나타나고 다시 종권다툼이 심화되는 등 악영향이 나타났다. 선거비용 증가 등을 고려, 개선과 개편에의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둔 사부대중의 의사들을 디딤돌로 새로운 종책 수립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진오(구미 대둔사 주지), 만초(울산 해남사 주지), 금강(해남 미황사 주지) 등 20여 스님들이 참석했으며, 도법 스님의 '대중결사에 바란다'와 안직수 한국불교기자협회장의 '기자가 바라본 종단 과제' 등이 발표됐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10월 22일 확정

중앙선관위 결정… 후보자 심사는 등록 6일 이내

10월 22일로 예정된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심경, 이하 중앙선관위)는 9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209차 회의를 열고, 10월 22일 오후 1~4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불교문화공연장에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10월 12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5시까지로, 후보자 자격심사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6일 내 이뤄진다.

각 교구별 선거인단 선출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로, 선관위는 선거인단 선출 시 부정을 막기 위해 중앙선권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각 교구본사의 중앙선관위 공식 선거공고 준수를 요청키로 했다. 또 선거인단 선출기간 외 선거인단을 선출할 경우 무효처리 방침도 결의했다.

선거공고와 더불어 중앙선관위는 19일 담화문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승가 전통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종단과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02)2011-1868

노덕현 기자

"청정선거로 한국불교 미래 열자"

조계종 4대 종책모임 성명서 발표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무량회 · 무차회 · 보림회 · 화엄회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청정, 공명선거 진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4대 종책모임은 9월 17일 총무원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깨끗한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청정선거 성명발표에는 무차회(성관, 원담, 무자, 의연, 대오, 정범, 현조)와 보림회(종호, 승언, 종성), 화엄회(혜오, 덕문, 성효, 선광) 등 종회의원 14명이 참석했다. 무량회 측은 시간 전달의 착오로 오후 오찬모임에 참석했다.

4대 종책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40여일을 앞둔 제33대 총무원장 선거는 94년 종단개혁 이후 정상적 일정을 통해 진행되는 첫 선거"라며 "하지만 최근 괴문서 배포와 같은 선거혼탁행위에 종단 백년대계를 기약할 수 없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4대 종책모임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인신비방 · 흑색선전 등 해종행위 척결 △종단선거문화 혁신 △종도 의견 수렴 종책 반영 등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10월 중순 후보자 초청 간담회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 법주사서 개최 결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성타, 불국사 주지)는 9월 10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차 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10월 16~18일 경 보은 법주사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당초 본사주지협은 각 원장 유력 후보군을 순차적으로 초청하려 했으나 조계종 호법부의 사전선거운동 지적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마의사를 밝힌 전 포교원장 도영 스님이 참석했으나, 인사만 하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이날 '교구본사주지의 중앙종회의원 겸직 허용' 관련 입법청원을 논의하고 조선왕실 의궤 반환 촉구 결의문 채택과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증축 추진을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계사, 신흥사, 동화사, 고운사, 송광사, 해인사, 대흥사, 봉선사 8개 본사를 제외한 16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모두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자승 스님 괴문서 지적 "위법성 없어"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 선거 유력후보인 자승 스님의 승적 변동 내용을 담아 전국 2000여 사찰에 배포된 '괴문서'에 대한 공식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총무원 기획실장 장적 스님과 호법부장 정만 스님은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괴문서'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총 16장 분량의 괴문서에는 중앙종무기관과 교구본사에서만 조회 가능한 '승적 기록이 포함돼 논란이인 바 있다. 이날 정만 스님은 '괴문서'가 지적한 자승 스님의 승적 정정에 대해 "행정 · 법률적 위법성을 발견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1972년 사미계 수지'에서 1990년 '1969년 사미계 수지'로 기입해 1994년 조계종 호계원(당시 호계원장 고산)으로부터 문서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징계 후 승적이 변경되지 않아 자승 스님이 총무부장이던 2006년에 '1972년 사미계 수지'로 수정됐다.

정만 스님은 "승적변경신청서를 접수, 총무원장 스님의 결재를 받아 처리했고, '승적업무처리령' 공포가 2월 14일인 반면, 승적정정 신청이 2월 7일, 최종정정이 2월 22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괴문서 유포와 관련, "종로서에서 2268번 발송 건수와 CCTV 조사 결과 남 1명, 여 2명으로 용의자가 좁혀진 상태"라며 "조회한 종무원은 6명이지만 교구본사와 종무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 만큼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奉 大韓佛教法華禪宗 創宗宣布 祝

歸依三寶하옵고
21世紀의 다가오는 未來에 대한 世界的인 큰 變化와 새 時代를 맞이하여
修行 精進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모여 圓覺 常鮮 禪師를
宗正으로 모시고 2009年 9月 25日 大韓佛教法華禪宗을
創宗함을 宣布합니다.본 宗團을 創宗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創宗法會를 奉行하고자 하오니 隨喜 同參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본산: 法安寺 (서울특별시 강북구 우이동)
교육원: 九龍寺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수련원: 白華庵 (전남 여수시 여천군 삼산면)
기도원1: 충북 단양군 단양읍 가산리
기도원2: 전남 장흥군 용산면 풍길리

1.日時: 2009年 9月 25日(金) 午前 11時
2.場所: 三角山 法安寺(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68-1)
3.連絡處: 02-992-8288

宗 正 : 圓覺 常鮮
總務院長 : 義田 一通

宗正 法語
一心不生 萬法無咎

創宗趣旨文

本 宗은 釋迦牟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最上乘의 眞理를 奉體하며
元曉聖師를 宗祖로 모시고 元曉聖師의 和諍思想과 智儼和尙에게서 法을 이은
義湘祖師의 華嚴思想에 立脚하여 和合을 修行의 根本으로 합니다.

宗名은 元曉聖師께서 創宗하신 法性宗과 義湘祖師께서 創宗하신 華嚴宗의
法統과 思想을 잇고 達磨祖師부터 六祖 慧能大師까지의 禪法을
이어 받는다는 뜻에서 大韓佛教法華禪宗이라고 稱하였습니다.

宗旨는 三界의 一切 衆生이 나와 남을 위하여 最上乘의
眞理를 닦아 本性을 回復하고 自性을 밝혀서 生死의 大海를 건너
참다운 涅槃寂靜의 境地에 이르러 華嚴의 世界를 莊嚴하며
圓覺의 消息을 隨緣放光하고 逍遙 自在하여 一切 衆生이
다 함께 離苦得樂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儒佛仙 三敎를 會通하고 地球上의 모든 思想과
人種, 宗敎의 大和合을 이루어 參 眞理를 함께 나누고 다가오는
宇宙時代에 온 宇宙와 地球의 모든 生命體에게 밝은 빛이되어
無明을 밝히도록 大願을 세워 創宗의 趣旨를 밝히고자 합니다.

이러한 趣旨에 뜻을 함께 하는 이들이 모여 三界의 一切 衆生이
成佛의 證果를 이루는 날까지 修行 精進과 祈禱에 邁進하며 因緣있는
모든 善男子 善女人들에게 聖人의 가르침인 參 眞理를 널리 弘布할 것을 선포합니다.

宗正 : 圓覺 常鮮 禪師 務總務院長 : 義田 一通 教育院長 : 一定 太昊 祈禱院長 : 大圓 白陽 四部大衆 一同

※ 宗正 아래 엷은 연꽃그림 삭제됐나 필름 출력시 확인해 주세요. – 편집부~ 지우지 마세요!!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대다수 고장?

국회 문관위 안형환 의원 시스템불량 등 문제점 지적

국보 ·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설치된 도난 감시시설 다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문화재 도난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 박물관 등 문화재 위탁보관기관 가운데 필요시설 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 절반에 가깝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도 잇따라 발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한나라당 서울 금천)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 134건 중 41%인 55건 문화재의 감시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9월 14일 밝혔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이 안 의원에 제출한 '2008 첨단도난감시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스템 작동불량 · 보완이 필요한 곳은 태안사대바라(보물 제956호), 도림사괘불탱(보물 제1341호) 등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비로사석조아미타불좌상(보물 제996호), 불영사영산회상도(보물 제1272호) 등 12건 문화재는 카메라 고장이, 수덕사목조삼세불좌상일괄(보물제1381호) 등 4건 문화재는 전원공급장치(UPS)불량이 지적됐다. 백담사목조아미타불좌상부복장유물(보물제1128호)는 녹화는 되나 화질이 불량했다.

특히 국보 제45호 부석사소조여래좌상은 카메라 24대 중 5대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환 의원은 "문화재에 설치된 첨단 도난감시시설의 관리 소홀로 문화재 보호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감시시설 첨단화와 감시인력 확충 등으로 우리 문화재가 더 이상 훼손 · 도난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15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건무)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08 위탁문화재 정기점검 결과보고'를 분석한 결과, 동국대박물관 등 61곳의 문화재 위탁기관 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곳은 54%인 33곳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보관 중인 문화재는 8만 4885점이다. 안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금속류 등 취약재질 유물의 보존처리가 필요한 15개 기관(부경대, 서울대, 공주대 등)과 유물보존환경 확보를 위해 항온 · 항습기 등이 필요한 11개 기관(강릉대, 경상대, 한양대 등)이다.

또 위탁품 수장공간이 부족한 곳은 8개 기관(경주대, 신라대 등), 보안시설이 미비한 7개 기관(창원대, 한림대 등)이며 충남대, 한림대 등에서는 위탁받은 문화재의 소재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안형환 의원은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위탁기관이 많아 소중한 문화재가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선정시 시설완비 유무를 확인함은 물론 사후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문화재 도난 감시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보수 · 보완하고 관리 ·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황우석 선처를"

조계사, 탄원서 전달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 스님과 신도들은 9월 14일 황우석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선처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2만 명의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다. 신도들은 이날 탄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국익과 중생의 생명을 위한 자비의 기술인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가 정부로부터 다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0월 19일이다. **이상언 기자**

베트남언어교육원

한국어 영어 등 교육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산하 사단법인 종교평화국제사업단(IPCR, 이사장 최근덕)이 주관한 베트남 언어교육원이 8월 26일 개원식을 시작으로 베트남 한인 2~3세 및 현지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컴퓨터 등 교육에 나섰다.

8월 26일 열린 개원식에는 최근덕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이사장을 비롯해 불교대표 환성 스님, 대한성공회 김근상 주교(서울교구장), 주 베트남 한국경영인협회(코참) 장충식 부회장, 언어교육원 사무엘 센터장 등 각 종단 대표 16명이 참석했다(사진).

베트남 교육원은 베트남 여성과 베트남전 참전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한인 2~3세(라이따이한)를 위한 학교로 베트남 호찌민에 세워졌다. 현재 라이따이한과 베트남 현지인을 포함에 총 3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다. **박선주 기자**

'하나됨' 원네스 토론회 열린다

10월 30일~11월 1일 LG트윈타워서 컨퍼런스

"균형과 질서가 없는 갈등상태로 가득 찬 삶에서 '하나됨(oneness)'의 상태로 돌아오면 사랑과 행복, 부와 건강이 자신 안으로 흘러들어온다."


인도 원네스유니버시티의 최고 지도자인 아난다기리지.

불과 10년만에 종교와 수행법을 초월, 115개 국 1억5000만 여명의 삶에 변화를 주었다는 원네스(oneness)현상. '하나됨'을 뜻하는 '원네스'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전체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며, 균형과 질서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원네스현상에 대한 대규모 강연 및 토론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는 인도 원네스유니버시티의 최고 지도자인 아난다기리지(Anandagiriji)는 10월 30일~11월 1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동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하나됨으로 사는 삶'을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아난다기리지는 참가자들이 삶에 대한 법칙으로 터득함으로써 부모와 배우자, 자식, 동료간의 관계회복과 치유를 가능케 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함은 물론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과 '하나됨' 이루기로 나아가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줄 계획이다.

원네스 유니버시티 한국지부(www.onenesskorea.com) 자야(Jaya) 지부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직업적 성공과 관계의 치유, 재정적 풍요로움, 육체적 건강 등을 포함한 외적 성취이든 내면의 평온과 깨어남이든 개인의 의식상태를 상승시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삶을 조종할 수 있도록 가장 진보적인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070) 8244-8020 **김성우 기자**

지구촌공생회, 국내 스터디투어

2003년 설립이후 캄보디아, 라오스, 몽골 등 해외 7개국에 식수 교육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가 10월 10~11일 국내 스터디투어를 떠난다.

이번 스터디투어는 지난해 실시했던 경주 역사문화탐방과 농암고택방문에 이어 세 번째로 목적지는 문경을 택했다.

'문경으로 가는 길'의 프로그램은 김룡사 템플스테이, 대승사 참배와 불교문화 및 한지공예 체험, 백석농원에서 사과따기, 석탄박물관 관람 등 다양하게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은 내 것만 고집하는 사고를 버리고 개방적인 사고를 가져 자비를 실천하는 삶이 으뜸임을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참가비는 회원 8만원, 비회원 9만원. (02)455-9596 **박선주 기자**

생명나눔으로 함께하는 세상

제2회 생명나눔과 함께 하는 희망걷기

1. 일시: 9월 26일(토) 오후 1~5시
2. 장소: 월드컵공원 (평화의공원 내 별자리광장)
3. 코스: 월드컵공원 난지순환길(6㎞)
4. 참가대상: 환우와 가족,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단 기업봉사단 등 누구나
* 참가비는 없으며 선착순 10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예정
5. 접수기간: 9월 21일까지
6. 신청문의 및 접수: (사)생명나눔실천본부 02-734-8050/ www.lisa.or.kr

주최: (사)생명나눔실천본부, 현대불교 등 8개 불교언론사
후원: 행정안전부, BS HLA Lab, 녹십자 의료재단, (주)은은, 서울메트로 안국역
모금계좌: 농협 053-01-271485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신계사 남북합동법회 어려울 듯

민추본, "조불련 회신 부정적" 밝혀

임진강 수난사고 발생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조계종 민족공통체추진본부(본부장 명진, 이하 민추본)가 추진중인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및 남북합동법회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추본이 최근 발표한 2009년 하반기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민추본은 신계사 낙성2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재개될 금강산 관광의 무사안녕과 겨레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기원하기위해 10월 12~13일 금강산 신계사 성지순례 및 남북합동법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직된 남북관계 등의 문제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추본 박재산 기획홍보계장은 "조선불교도연맹(본부장 심상진, 이하 조불련)에 남북합동법회 등 관련 공문을 보냈었다. 9월 11일 조불련에서 온 회신은 '남조선이 방북에 대해 부정적이라 이번 법회는 실현되기 여러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며 "현재 통일부는 방북의 문을 좁혀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안만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계장은 "통일부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는 시점까지 보류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는 "그 사안은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어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정부에서는 남북관계 전체를 보고 같이 가자는 입장"이라며 "통일부는 추후 협의과정에서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추본은 △10월 초 통일정책포럼 '역사적,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금강산에 관한 토론회' △제2회 민추본 평화통일사진전(10월 7~9일 '나무' 갤러리) △11월 '불교통일교육매뉴얼 제작 및 보급사업' △민추본 창립 10주년(2010년)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박선주 기자**

나눔의집 김화선 할머니 기금 쾌척

지구촌공생회에 "'생명의 우물'에 써달라"

"저는 이제 남은 여생을 나눔의집에서 편안하게 마칠 수 있지만 저 보다 못한 자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습니다."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는 김화선 할머니(왼쪽).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원장 원행)에서 기거하는 김화선(84) 할머니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 70만원을 캄보디아 '생명의 우물 사업'에 써달라면서 9월 17일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송월주)에 쾌척했다.

김화선 할머니는 1926년 평양에서 태어나 16세에 싱가포르에 위안부로 끌려가 갖은 고초를 겪고 해방 후에도 서울, 부산, 인천을 돌아다니며 고생을 했다. 이후 김 할머니는 대전에서 남의 논밭 일을 하면서도 돈이 없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대학생 23명에게 남모르게 등록금을 대서 졸업 시켰다.

김 할머님은 "캄보디아에 다녀온 분들로부터 그곳 얘기를 듣고 기부할 마음을 냈다. 그런데 너무 작은 돈을 내 부끄러울 뿐"이라며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주변의 없이 사는 사람들도 도와가면서 살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박선주 기자**

봉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佛紀 2553年 全宗徒 法階考試 행

귀의 삼보하옵고 본 종은 석가모니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비구, 비구니계율을 수지하며,
화합의 승단을 목표로 전종도 법계고시를 봉행한바, 원만히 회향하였음을 제방에 사룁니다

◆총무원장 : 화 엄
◆고시위원장 : 원 각 ◆고시위원 : 법 해, 용 운, 덕 봉

법계 품수자

경담, 경운, 고봉, 광은, 도광, 도정, 도안, 만성, 명희, 법경, 법승, 보월, 용주, 삼주, 상원, 석성, 수영, 승법, 지언, 지연, 지성, 해동, 현암, 혜일, 혜성, 혜수, 경담, 도원, 도허, 동청, 무착, 법광, 법상, 법연, 보해, 보현, 여산, 연화, 자운, 정률, 정일, 재성, 지명, 지운, 지현, 진송, 현담, 해월, 해월, 혜신, 혜원, 대월, 도우, 무상, 보은, 선광, 영산, 일명, 자명, 진율, 혜성, 도천, 무각, 보원, 보적, 성각, 일현, 정관, 지월, 홍련, 해정, 혜명

법계고시 입제일 : 불기 2553(2009)년 9월 10일
법계고시 회향일 : 불기 2553(2009)년 9월 11일
법계고시 장 소 : 인천 호 불 사

(재)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 총무원 : 서울 강북구 인수동 440-27 엄지빌딩 4층 / 전화 02)998-8161, 2 전송 02)998-8384 / www.ilbung.org

한가위, 사찰서 희망보시 받으세요

합동차례부터 음악회 · 사과따기 · 선무드라 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어느 덧 추석이 다가와 달이 차오르고 있다. 풍성한 추석에 대한 설렘도 잠시. 빠른 경기회복에도 여전히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고 올해 추석 연휴는 유난히 짧기만 하다. 어디 가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고 교통 대란에 심신이 지칠 것 같아 망설여지기만 한다면 올해는 가까운 사찰에서 보름달을 바라보며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을 보내보자.

추석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는 합동차례 지내기, 추석 달맞이 음악회, 사과 따기 체험, 선무드라 체험, 달빛 참선 체험 등 풍성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서민을 위한 희망보시에 나섰다.


서울 열린선원에서 일반 재가자들이 합동 차례를 지내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영월 법흥사(주지 도완, 033-375-9173)는 수확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특별한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10월 2~4일 '꿈을 이루려는 사람들의 추석맞이 템플스테이'에서는 법흥사 일대 사과 밭 사과를 직접 수확하고, 합동 차례로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나눈다. 또 스님과 함께하는 차담, 법흥계곡에서 달맞이 걷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단, 사과 따기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일인당 2.5kg이다.

예산 수덕사(주지 응산, 041-337-0173)는 숲속에서 참선을 하며 나와 이웃을 돌아보는 '달 · 숲 · 길 그리고 선(禪)' 추석맞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10월 2~4일 진행되는 템플스테이에는 사찰의 일상생활과 함께 추석합동차례, 달빛 참선, 예산 일대 불교문화유적지 순례, 가야산 숲길 탐방, 달맞이 음악회, 가야산 약초 시식과 예방의학 체험, 온천욕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수덕사를 포함한 인근 내포 지역의 대표적인 불교문화재인 서산마애삼존불, 보원사 터, 원효대사 득도굴 등을 탐방해 자녀들의 불교역사공부에도 그만이다.

천년의 미소를 간직한 마애불과 12처 석굴 사원으로 유명한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 054-744-1689)에서는 10월 1~4일 특별한 체험이 기다린다. '움직이는 선의 향기,달빛 명상과 선무드라 수련'에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달빛과 함께 숨 쉬는 선무도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솔잎 따기, 송편 빚기, 승마 체험, 활쏘기(국궁) 체험, 기림사와 동해안의 문무왕 수중릉 등 성지 순례도 진행한다.

충남 계룡시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진, 042-841-6084)는 10월 2~4일 추석 참선정신수련회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서울 조계사**(주지 세민)는 10월 3일 오전 7 · 9시 오후 1시 대웅전에서 합동차례를 진행하며 경기 용주사 등 전국 사찰에서 조상을 추모하고 천도하는 합동차례법회가 봉행될 예정이다.

한편, 추석 차례문화를 제대로 알리는 법회가 마련됐다. **서울 열린선원**(선원장 법현, 02-381-7970)은 9월 23일 오후 3시 선원 내 큰 법당에서 '추석명절 차례 시연법회'를 연다. 법현 스님은 "명절 차례(茶禮)에 술을 쓰는 풍토는 잘못됐다"며 "'차례'라는 이름에 맞게 차를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10주년 포교사단, 종단 대들보되자"

서울 · 경지포교사단 장흥서 단합대회… 6대 회장 선거 10월 23일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버림을 받아도 포교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뛰어간다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년간 불철주야 포교에 매진해온 서울 · 경기 지역 포교사단(단장 강홍원)은 9월 13일 경기도 장흥 일대에서 단합대회를 갖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서울 · 경기 지역 포교사단이 9월 13일 열린 단합대회 겸 체육대회에서 2인1각 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단합대회 현장에는 150여 포교사들을 반기는 사물놀이패의 경쾌한 리허설 공연이 한창이었다. 단합대회는 입재식, 2인 1각 달리기, 피구, 줄다리기, 노래자랑 등 잠재된 끼를 쾌청한 가을 하늘아래에서 여과 없이 선보였다.

강홍원 단장은 입재식에서 "10주년을 맞이하는 포교사단은 앞으로 봉사활동의 차원을 넘어 포교사단의 정체성 확립, 포교사의 역할 재고를 통한 불법외호를 펼쳐야 할 것"이라며 "포교사는 종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둥, 대들보, 서까래가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점심 공양과 함께 진행된 노래자랑에서 재능을 선보인 포교사단들의 열기는 체육대회로 이어졌다. 징소리와 함께 사물놀이패의 공연은 체육대회의 열기를 북돋았다.

'하나, 둘, 하나, 둘' 입 맞춰 걷기 시작한 2인 1각 달리기는 단합으로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었다. 규칙으로 설왕설래하며 웃음으로 끝이 난 피구,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열심히 힘을 모았던 줄다리기 등을 통해 포교사단은 서로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았다.

5대 단장 임기를 2개월 여 남기고 있는 강홍원 단장은 단합대회를 마치고 포교사단장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강 단장은 "포교사단은 일반불자와 스님들의 가교역할자로 상황과 공간에 따라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재가지도자다. 하지만 종단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져 활동해온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체성이 없다"며 "어린이 · 청소년, 군포교의 범위와 규모 확장에 이어 불교적 종교관 확립을 통한 꾸준한 신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홍원 단장은 포교사단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일반포교사단으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6대 회장을 보좌보필하겠다"며 "포교사단은 도제양성, 장학사업 등을 통한 인재양성, 사회복지, 승가에 대한 비방과 불교 외호 등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대 입후보자 등록은 9월 20일 ~ 10월 5일 포교사단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에서 받고, 선거는 10월 23일 포교사단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상언 기자

"성차별 불식 위한 정책 개혁해야"

나무여성인권상담소, 22일 토론회

여성불자들이 불교계의 성차별적 상황에 대한 공동 인식과 성인지적 종책 제안에 나섰다.

나무여성인권상담소(소장 김영란)은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은영)과 함께 9월 22일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문수실에서 '불교계 성인지적 종책제안을 위한 열린 토론회'를 실시한다.

이날 토론회는 유정길 법사(정토회)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양해경 상임대표(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운월 스님(전국비구니회 교무부장), 이인자 이사(불교여성개발원), 이진화 부위원장(경불련 상임운영위원회), 조성택 교수(고려대)가 토론을 벌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종법상에서의 성차별적 규정과 종단 운영에서의 성차별, 출가자와 재가자간의 종속적 관행들, 성차별적 불경 해석 등 여성에 대한 권위주의와 차별 정당화 등에 대해 토론한다.

나무여성인권사무소 관계자는 "불교계는 평등과 인권을 지향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에 비하면 성차별을 불식시키고자 하는 제도와 정책은 극히 보수적"이라며 "불교계 내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앞서가는 문제인식과 실제적 개혁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차별은 곧 폭력"이라며 "불교계는 불교 안의 모순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성을 구비해 생명평화적인 종단 공동체 발전에 앞장서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언 기자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창립 선포

불교여성개발원서… 10월 10일 캠페인

승만보살 100인 여성불자들이 다문화가정 봉사에 앞장선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은영)은 9월 18일 오전 10시 조계사 교육관 2층에서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 창립총회를 봉행하고 창립을 선포했다. 이날 창립 총회에는 조계종 포교국장 부명 스님, 불교여성개발원 이인자 고문 등 30여 명의 봉사자가 참석했다.

이날 창립식에서 선출된 박명자 단장은 "이주민들을 직접 만나 봉사를 해보니 여성불자들이 해야할 일,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았다"며 "불교계의 다문화가정 봉사분야는 늦은감이 있지만 민족과 국적을 초월해 하심의 자세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다문화가정이나 사찰, 복지관 등에서 한국어 교사, 다문화가정 코디네이터, 한국어 요리, 아이돌보미, 일상생활 정보지원 서비스 등의 봉사활동을 펼친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지난해부터 다문화가정지원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실시해 98명의 봉사자를 배출했다.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은 현재 다문화가정을 비롯해 사찰, 센터, 복지관 등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원하는 여성불자는 누구나 회원으로 활동 가능하다.

한편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은 10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다문화 사회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한다. (02)722-2101

이상언 기자

CARA 발대식

전국 선발 20명 구성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문화재환수위원회(회장 백창기)는 9월12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에서 문화재환수위원회 청년연대(단장 이재권, Culture Assets Rdemption Agency, 이하 CARA) 발대식을 봉행했다.

이날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은 강연을 통해 "문화재 환수운동은 잠재된 사대의식을 깨고 민족의 얼과 양심을 되찾는 구체적인 행위"라고 말했다.

전국 13개 대학에서 선발된 20명의 학생들은 UCC제작을 통한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민적 열의를 고취시키고, 그리스, 이집트, 멕시코, 중국 등 서구 열강에 문화재가 약탈된 국가와 의 연대에 앞장선다.

CARA는 문화재 환수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10월 일본 방문을 할 예정이다.

이상언 기자

신행게시판

●목요 위빠사나 특별법회=상좌불교한국명상원은 12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목요 위빠사나 특별법회를 연다. <위빠사나 수행자의 근기를 돕는 아홉 요인>을 교재로 황영채 법사(한국명상원 지도자)가 지도한다. 수행은 위빠사나 법문과 경행, 좌선, 면담 순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20만원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02)512-5255

●참선 특별교육=서울 공생선원은 매주 화, 수, 목요일 참선 특별 교육을 진행한다. 화요일 참선반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돈오입도요문론>, 수요일 참선 입문반은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일상속에서의 수행 선문촬요>를 교재로 무각 스님이 지도한다.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유식 30송>으로 12월까지 혜거 스님이 수업을 진행한다. (02)900-2448

●추석연휴 집중수행=보리수선원은 10월 1~4일 추석연휴 집중수행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0월 19~24일에는 위빠사나 기본수행을, 10월 2~10일 집중수행도 진행된다. (02)517-2841

●삼천배 용맹정진=분당 하얀마음선원은 9월 26일 오후 9시부터 27일 오전 7시까지 3000배 용맹정진을 실시한다. 오후 7시에는 초보수행자를 위한 절교육이 진행된다. 수련비는 3만원. (02)456-0035

"미래불교의 등불을 밝혔습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재단법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 경시대회
시상식

9월12일 오전 11시.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평택, 남양주 등 전국 8개 지역 80여 고사장에서 2천여명의 청소년들이 불교교리 경시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 진지함을 잊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날 미래불교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미래불교의 희망의 등불이 밝아진 날입니다. 경시대회에 보내주신 성원, 열정, 관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경시대회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_ 불기2553(2009)년 9월 26일(토) 오후 2시
• 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



• 주최 : 은정불교문화진흥원 • 주관 :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동국대학교, 불교신문사, 은정불교문화진흥원 • 문의 : 02-723-6165

buddhanews.com

강원불교 '새 활력 넣기' 다짐

원주사암련·제4교구신도회 새 회장 취임

도심포교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때, 강원 영서지역 사암연합회장과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가 새로운 체제를 갖춰 지역 불교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8월 21일 원주지역 사암연합회장 적천 스님이 새로이 취임한데 이어, 9월 12일에는 오상추 원주 국형사 신도회장이 조계종 제4교구 신임신도회장으로 취임했다.

오상추 신임신도회장은 12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 조계종 제4교구 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불교신도단체의 조직화에 힘써 이를 바탕으로 불교 사회복지 활동, 문화예술의 창달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에 앞서 8월 21일 제1군사령부 법당 법웅사에서 열린 원주불교사암연합회 제14대 회장 취임식에는 치악산 구룡사 주지 적천 스님이 원주지역 사암연합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취임사에서 "'화합불교, 참여불교, 생활불교'를 최우선으로 도심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장사상륙작전 용사 위령재 봉행

영덕불교사암련, 학도 호국영령 천도 나서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사상륙작전의 전몰 용사 합동위령재가 봉행됐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회장 법성)는 9월 14일 영덕 남정면 장사해수욕장 인근 장사 전몰장병 위령탑에서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학도 호국영령들의 천도를 위한 전몰장병 위령재를 열었다.

행사에는 영덕불교사암연합회 대중들과 김병목 영덕군수, 강석호 국회의원, 파파하 주한 태국대사관 국방무관, 대한민국육탄용사 호국선양회 허평환 총재 등이 참석했다.

최근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령재가 봉행된 전몰장병위령탑이 1991년 서경보 스님과 스님의 제자 석일산 스님이 뜻을 함께 하는 대중들과 함께 2000여 만원의 기금을 마련해 건립했다는 사실을 밝혔냈다.

영덕불교사암연합회는 올해부터 전몰장병 위령재를 봉행하기로 했다. 또, 영덕군은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사해수욕장 일대를 장사상륙작전 승전기념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장사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속이기 위한 양동작전으로 군번도 없던 772명의 무명용사가 참전해 산화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원주에 판화 특성화학교 생긴다

원주 고판화박물관과 황둔초교 상호협력 협정

학생 특성화교육을 위해 지역박물관과 지역학교가 손을 잡았다.

원주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9월 9일 황둔초교(교장 김래옥)와 판화 특성화학교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협정 조인식을 개최했다.

판화특성화 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원사업인 학교연계 박물관교육 프로그램으로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고판화박물관이 선정됐다.

이번 상호협력협정 체결로 국내 유일의 판화박물관인 고판화박물관은 황둔초교에 특화된 박물관 교육을 제공하게 됐다.

한선학 관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금년에만 전통판화교실을 여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 황둔초교를 거치는 모든 학생들이 팔만대장경으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우리나라 전통판화를 익혀서 인쇄술에 대한 긍지와 생활속에서 예술을 실천할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부인사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국중세사학회 · 대구 부인사 학술발표회서 주장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앞두고 봉안처였던 대구 부인사에 대한 조사 · 복원과 함께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중세사학회(회장 박종기)와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는 9월 11일 부인사 삼광루에서 '고려시대 초조대장경과 부인사'를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 사업의 일환으로 9월 11일 대구 부인사에서 열린 학술발표회 모습.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조성 1000년을 기념하는 학술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행사에는 최정환 · 남권희 · 한기문 경북대 교수, 최연주 동의대 교수, 윤용혁 공주대 교수, 최태선 중앙승가대 교수가 발표했다.

행사에서 최정환 · 최태선 교수 등은 "초조대장경이 조성된 부인사 일대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경판고지로 추정되는 지역을 재발굴해 경판각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발표자들은 "대구지역 불교계에서도 행정당국이 초조대장경의 수집과 복원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벤트성으로 1000년 맞이 사업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부인사와 초조대장경의 가치를 높이는 일은 관련 문화재를 찾는데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남권희 교수는 "초조대장경은 국가의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개성 흥왕사에서 대구 부인사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연주 교수는 "부인사에서 고려대장경을 조성한 것은 고려가 불교문명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자들은 "부인사가 한국불교역사를 계승하는 중심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역을 사적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초코파이 스님'의 군포교 원력

고봉 스님, 선농일치 당조고추 재배 수익금 군포교 지원

남다른 열정으로 군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70대 노스님이 있어 눈길을 끈다.

'초코파이 스님'으로 불리는 군위 정토원 고봉 스님(사진)이 군장병들과 만난 지는 10년이 넘었다.

스님은 2001년 2군사령부 호국무열사 법당을 시작으로, 2002년 제201특공대 호국무학사 법당을 매주 토요일 찾아 법문을 하고 장병들을 위해 초코파이 빵 김밥 국수 과일 등을 지원해 왔다.



고봉 스님이 '초코파이 스님'이라 불린 것은 이때부터.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열정은 그치지 않았다. 2003년부터는 제50사단 훈련병들과 장병들을 위해 매주 100여 박스의 초코파이와 컵라면 떡 국수 등을 지원했다. 고봉 스님의 봉사활동에 따르는 장병들도 많아졌고, 스님은 현재 제50사단 불교위원으로서 매년 제50사단 예하부대 등에서 종교안보 강연도 하고 있다.

고봉 스님의 군포교에 대한 원력은 2001년 설악산 봉정암에 기도를 갔다가 시작됐다. 그곳에서 우연히 군법사를 만난 스님은 군포교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소상히 알게 됐다고 한다.

스님은 군장병들이 막연히 믿어왔던 불교를 체계화시켜 부처님의 정법을 바로 아는 가르침을 하고 있다. 제대 후에도 올바른 신행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초코파이 고봉 스님만의 포교 비법이다.

스님의 또 다른 장기(?)는 당조고추 재배다. 고령의 스님은 심신의 고단함도 잊은채 고추 농사를 짓고 있다. 당뇨 등에 좋다는 당조고추를 직접 재배하는 스님은 수확한 고추를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판매도 해 판매이익금을 군포교에 사용해 왔다.

당초고추 뿐만이 아니다. 고봉 스님은 1만 여 평의 논밭에 고사리 도라지 고구마 사과 배추 벼농사를 짓고 있다.

주위에서는 스님에게 '선농일치를 실천하며 사는 스님'이라는 칭송이 자자하다.

고봉 스님은 "자연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며 "10월부터 수확할 배추 고구마 사과 등을 많은 불자님과 장병들에게 보급할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렌다"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30일간 산사서 수행자 되니…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23일 입학식

불교계에 새로운 출가문화를 정착시켜나가고 있는 단기출가행자 입학식이 9월 23일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에서 열린다.

단기출가행자는 종래의 사찰수련회와 달리 삭발염의하고(남성은 의무, 여성은 희망자에 한함)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 과정인 행자 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5년 여 동안 21기생까지 배출했고, 이번이 제22기 입학생이 된다.

8월 남자 50명, 여자 40명의 제22기 1차합격자를 발표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는 이번 입학식 당일 면접을 통해 합격한 단기출가 행자들에 한해 10월 22일까지 30일간 수행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한편, 월정사 단기출가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은 단순한 체험이 아닌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생활과 동일하다. 그만큼 정신적 · 육체적 어려움이 따르므로 입학 서류심사에서 40세 이상은 정원의 약 30% 이내만 선발하고 있다.

또, 단기출가 졸업 후 정식 출가희망자를 우선 선발하며, 수행 후 본인이 원할 경우 정식 출가행자로서 등록할 수도 있다. 또 졸업생들 중 요청이 있을 시 입학 정원의 5%내에서 재출가를 받는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오백나한 백일기도 입재해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개금불사도 회향


9월 13일 청도 운문사에서 봉행된 500나한 100일기도 입재식.

청도 운문사(주지 진성)는 9월 13일 '국가안녕과 국민건강을 위한 500나한 100일기도 입재식'과 대웅보전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했다.

행사에는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해 백일기도 입재와 대웅보전에 모신 연등불 · 석가모니불 · 미륵불과 4대보살인 관세음 · 문수 · 보현 · 대세지보살의 개금불사 회향을 했다.

원묘 스님은 "중국의 500나한 신앙에는 한국분도 한분 있다"면서 "우리도 열심히 수행정진을 잘하면 500나한에 들 수도, 부처가 될 수도 있다. 오늘의 이런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전생에 같은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 인연"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원묘 스님은 오랜 유학 끝에 귀국해 현재 운문사 강사로 있으며 학인들의 영어 교육을 맡고 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월정사불교대 연합체육대회 개최

월정사불교대학(학장 정념 · 월정사 주지)은 9월 13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종합운동장에서 제5회 제4교구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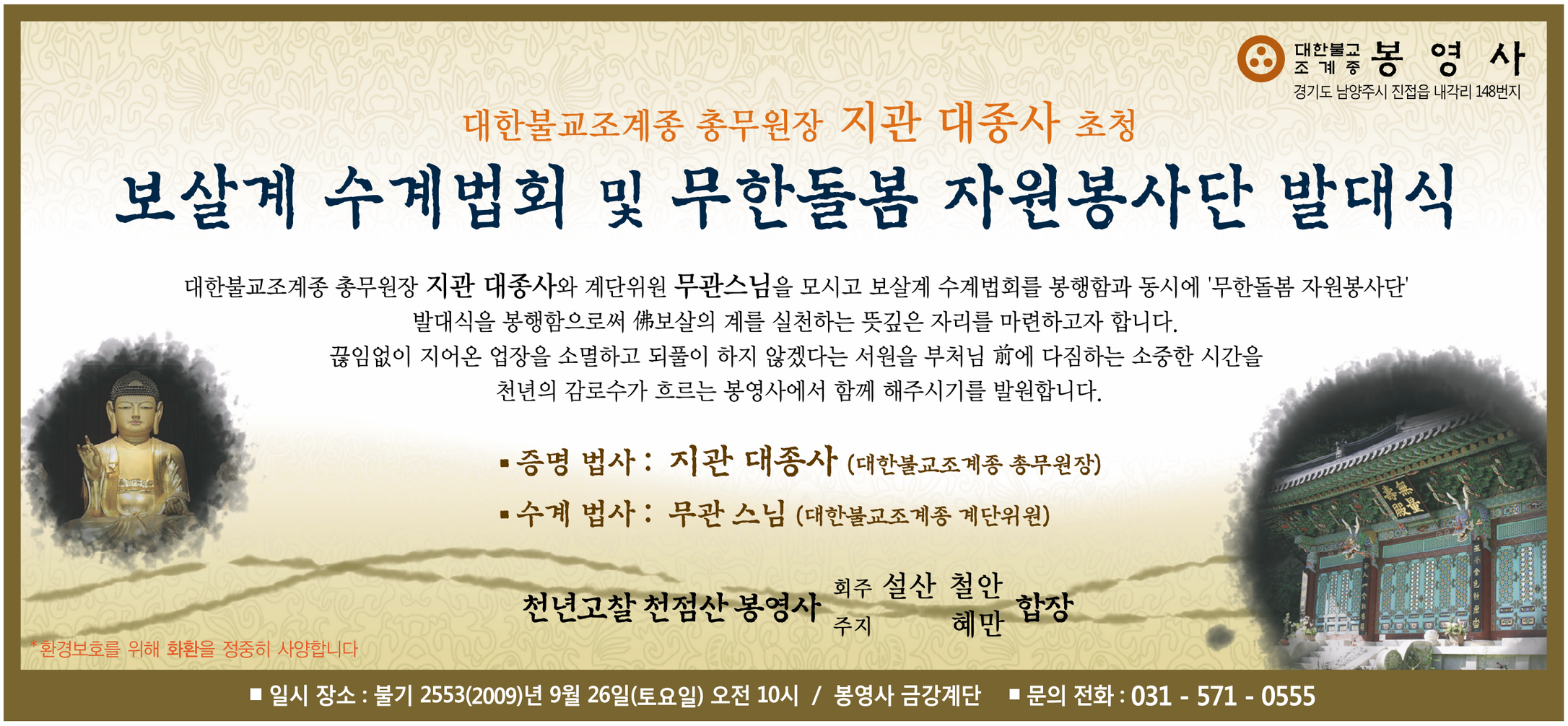
월정사불교대학을 비롯해 원주 · 강릉 · 동해불교대학이 참여한 행사에는 예년과 달리 500여 불자들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정념 스님은 "익히고 수행하는 불교, 봉사하고 실천하는 불교로의 발전은 불교의 미래를 밝게 한다"며 "이번 연합체육대회를 통해 불교대학간 상호 친목을 돈독히 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체육대회에는 동해불교대학이 우승, 원주불교대학이 준우승을 했다.

한편, 내년 제4교구 불교대학 연합체육대회 개최지로는 동해불교대학으로 결정됐다.

이극래 강원지사장



이웃 종교 RELIGION

"김추기경, 이웃종교 동반자로"

서강대 신학대학원, '아시아 교회의 리더십' 국제학술심포지엄

2월 선종한 故 김수환 추기경을 조명하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서강대 신학대학원(원장 김용해 신부)은 9월 17~18일 '아시아 교회의 리더십-故 김수환 추기경을 추모하며'를 주제로 서강대에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선종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참 인간의 길을 보여준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비전을 정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10명의 국내외 학자들이 5개의 세션으로 나눠 발표, 논평, 전체토론을 진행했다.

심포지엄 참여 학자들은 △김수환 추기경의 삶과 비전(강우일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장) △교회와 시민사회 관계에서의 김수환 추기경(김우선 교수, 서강대


故 김수환 추기경.

학교) △개신교 신학자가 본 김수환 추기경의 에큐메니칼 신학(이정배 교수, 감리교신학대학교) 등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이정배 교수는 "조국애를 영적으로 승화시켜 민족의 사제로서 살았던 그에게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김 추기경은 교회가 목적 자체 일 수 없고 가시적 교회의 불완전함을 인정해 숨기지도 않는 용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 추기경은 이웃 종교에 대해 강제하는 가톨릭교회 수장이 아니었다. 그들을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항시 동반자라 생각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교회지도자로서 김수환 추기경은 아시아주교회의연합(FABC)을 창설해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가톨릭교회 내부에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교회 밖을 향해서도 '사랑과 정의'로 모범을 보였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나은 기자

"3·1운동 종교 연합해 앞장서 가능"

한국종교연합, '종교와 평화' 주제 제5차 2009 평화포럼 열어

한국종교연합(상임대표 박남수)이 문화관광부의 후원 아래 '종교와 평화'를 주제로 진행하는 제5차 '2009 평화포럼'을 9월 21일 경기 화성 제암리에서 진행했다.

이번 평화포럼은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사회 통합 · 평화 세계 구축을 위한 현 단계의 과제와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평화포럼'은 주요 7대 종단이 번갈아 가며 포럼을 준비하는 행사다. 5번째 포럼은 천도교에서 준비한 것으로 동학민족통일회 임형진 사무총장이 '종교간 갈등 해소와 천도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임 사무총장은 "동학을 계승한 천도교는 교주 의암 손병희의 주도 하에 교단의 모든 인력과 자금, 조직을 3 · 1운동에 쏟아 부었다. 운동의 대중화, 일원화(대동단결) 그리고 비폭력이라는 3대 원칙을 정한 천도교는 이에 가담할 세력을 규합하니 기독교와 불교계가 호응했다"며 "3 · 1운동의 비폭력 무저항의 운동은 종교간의 연합을 이룬 성직자들이 앞장을 선 운동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 종교의 대 사회적 역할이 상실 돼 가는 때 특히 대표적인 민족종교 천도교가 전개해온 종교간 갈등극복과 화해의 사례는 매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스스로의 독단적인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역사적 3 · 1운동에 모든 종단과 사회단체를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던 천도교의 정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평화포럼은 '세계평화의 날' 행사와 함께 진행됐다. 세계평화의 날은 1981년 유엔 총회에서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유엔 총회가 지정한 9월 셋째 주 화요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제정했다. 2001년에는 9월 21일을 세계평화의 날로 확정해 '전 세계의 전쟁과 폭력이 중단되는 날'로 기념함과 동시에 평화와 관련된 교육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종교연합은 1919년 3 · 1운동 학살사건의 현장인 제암 · 고주리에서 포럼을 진행했으며, 잔혹한 역사의 실상을 확인하고 원혼을 달래기 위한 평화의 기도회를 가졌다. (02)2264-8260 이나은 기자

가슴 따스한 추석 사찰 · 복지관서

한가위 큰잔치 · 추석선물 · 후원물품 전달 계획 '풍성'

한가위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새로운 한해를 시작하는 설보다 한가위가 주목받는 것은 추수 · 수확 등으로 1년 중 가장 풍성한 때이기 때문이다.

불교계 복지기관 및 사찰이 추석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02-742-9500)은 9월 28일 한가위 세시풍속행사 '솜씨! 맵시! 한자리에!'를 진행한다. 복지관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복이 잘 어울리는 어르신' 선발대회 △한가위 퀴즈대회 '울려라 황금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기정 홍보담당자는 "행사참여 어르신들에게 송편도 나눠드리고 어르신들이 주도적으로 문화와 프로그램을 즐겨 명절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길 바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능인, 031-919-8677)은 9월 29일 복지관 내 대강당에서 국내 혼성 아카펠라 그룹 '메이트리'의 공연을 가질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사회복지협의회 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에서는 '메이트리'가 클래식, 팝, 가요 등 폭넓은 레퍼토리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며 관객이 직접 참여해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도 갖는다.

기관명	일시	행사	전화번호
서울 능인종합사회복지관	9월 30일	송편빚기대회, 관내 유아센터 아동공연관람, 식사 대접	(02)571-2988
서울 본동종합사회복지관	9월 28~30일	28일: 복지관 방문 어르신에게 식사대접 및 물품 전달 29, 30일: 저소득층 청소년 가정에 선물전달	(02)817-8052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9월 30일	지역 내 수급 대상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저소득 가정 대상으로 후원물품, 송편 전달	(051)264-9033
경북 금오종합사회복지관	9월 25일	지역 내 기업과 연계해 어르신과 박물관 관람, 한지공예진행, 송편과 생필품 등 전달	(054)458-0230
대전 서구노인복지관	9월 28~29일	28일: 자원봉사자들과 송편빚기 29일: 재가어르신 가정에 방문해 특식, 송편, 생필품 전달	(042)488-6297
광주 우산종합사회복지관	9월 24~30일	독거노인, 저소득층 지역주민에 송편, 전기담요, 쌀 전달	(062)266-3853
경북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9월 28~30일	재가장애인 120세대에 생필품, 쌀, 선물세트 방문 전달	(054)633-6415
경기 매화종합사회복지관	9월 26일~10월 1일	기업과 연계해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 후원물품 직접 전달	(031)393-3677
과천종합사회복지관	9월 29~30일	재가대상자 중심으로 후원물품 및 자비의 떡 나누기 행사	(02)507-6319

광명시 금강정사(주지 원명, 02-898-8200)는 9월 23일 광명시내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 수급자 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계곤란 저소득층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300여 가구에 개별방문해 라면, 속옷, 생필품 등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계종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지관)은 자비나눔운동의 일환으로 9월 25일 '추석맞이 아름다운동행 쌀과 연탄 나누기'를 진행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이웃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이 되도록 쌀 20kg 700포, 연탄 3만6000장을 지원하며 지역 사찰(서울 조계사, 오산 대각사, 대전 고선사, 대구 동화사, 양산 통도사, 광주 원각사 등)과 협조해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02-466-6242)은 9월 29일~10월 1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재가대상자 가정 1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무의탁 어르신 한가위맞이 행복나눔'을 실시, 직접 명절선물을 가정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복지관은 9월 30일 지역주민들과 의류바자회를 복지관 앞마당에서 열고 대강당에서는 어르신 노래자랑인 '실버가요제'를 갖는다.

부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사장 혜총)은 9월 30일 지역 내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가정 등 총 400세대에 쌀과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한가위 어울림 한마당 프로그램을 진행해 풍물패,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공연과 볼거리를 마련한다.

강원도 명륜종합사회복지관(관장 현각, 033-761-8131)은 9월 29일 복지관 내에서 체험위주의 행사를 진행한다. 재가어르신, 장애인, 새터민 및 다문화가정들과 함께 모여 송편 빚기, 떡메치기, 공예체험, 전통놀이 등 추석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나은 기자

구립서대문노인요양센터 수탁

수효사 효림원, 의료재활과 영양서비스 중점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원장 무구)이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를 수탁운영하게 돼 서대문구지역 노인복지사업이 새 전기를 맞았다.

효림원은 2007년 12월 서대문요양센터의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돼 8월 7일 준공식을 마치고 24일부터 입소신청을 받고 있다.

서대문구 홍은1동에 위치한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원장 김승억)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연면적 2096.43㎡규모의 의료복지시설 20실 78병상을 갖췄다. 센터는 장기요양 등급 1~2등급자인 어르신 78명을 모시며 병설시설인 데이케어센터에서는 21명의 어르신을 돌보게 된다. 또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가족지원 △건강관리 △문화지원 △취미 · 여가 △의료재활 · 영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의료재활과 영양서비스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센터는 미술치료로 효과가 좋은 만다라 그리기, 덩더쿵 체조, 원예치료 등의 취미 · 여가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수효사 효림원이 수탁운영 중인 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김승억 원장은 "서대문에 10여개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있지만 이번에 수탁받은 요양센터가 불교계에서는 처음"이라며 "어르신들을 가족같이 편안하게 모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02)392-3080 이나은 기자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남양주 봉영사, 26일 발족

남양주 봉영사(주지 혜만)는 9월 26일 오전 10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증명법사로, 조계종 계단위원 무관 스님을 수계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봉영사는 보살계 수계와 동시에 '무한돌봄 자원봉사단' 발대식을 함께 열 계획이다. '무한돌봄 자원봉사단'은 불교계와 경기도가 함께 진행하는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지역 150여 사찰을 대표해 교구본사 용주사와 봉선사는 7월 6일 업무협약식을 맺은 바 있다. (031)571-0555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大韓佛敎 傳統曹溪宗)
사암 및 종도모집

종단 창종 7주년 기념으로 **사찰과 종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종단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교리를 봉체하며상구보리 하화중생하여 대승보살도를 구현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하고 삼보를 호지. 신라 도의국사로부터 연원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태고보우 국사 제종 포괄에의한 불법 중흥의 원융 종풍을 종통을 삼아 그 법맥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불교 전통조계종**입니다. **현재 239개 사찰** 등록과 **280명 종도**들이 가입된 종단이며 최근 종단 내 훼종행위를 한 품행이 단정치 못한 승려 45명(간부포함)을 금년 9월 14일자로 종헌종법에 의거하여 일괄 재적을 호계원 및 사정원에서 공고 하였기에 이제 참신하고 수행을 바탕으로 포교활동 하시는 주지스님및 법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각 사찰의 사유재산을 인정 총무원에서 불 간여함.**

◆입종(등록)비 : 없음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주지임명장. 승려증. 법사증.
◆입 종 자 격 : 승려, 법사, 포교사,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제한을 두지않으며 입종절차도 간단하게 준비되어 호법부에서 관리 합니다.
◆입 종 서 류 : 입종신청서 1부. 주민등록증복사1매. 증명사진 2매.
◆문 의 처 : 호법부 010-6236-5557. 053) 325-5288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호계원 053)325-0400 /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사정원 053)325-4848

· 총 무 원 : 대구시 북구 읍내동1122 대승사
· 법계고시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부야2리 삼화사
· 원 로 원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대원사
· 승 정 원 :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학명리 운암사
· 중앙종회 : 경남 진주시 정촌면 화개리 미송사
· 사 정 원 : 경북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무량사
· 호 계 원 :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 부도사
· 중앙선원 : 경남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시조암
· 연 수 원 : 전북 익산시 황등면 죽촌리 장수사
· 포 교 원 :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법륜사
· 교 육 원 : 경북 건천읍 송선1리 복두암
· 문 화 원 : 전남 순천시 장천동 화응사
· 경기교구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법륜사
· 대전교구 : 대전시 서구 정림동 정림사
· 강원교구 : 원주시 무막읍 취병리 도선사
· 충북교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정음사원
· 전북교구 : 전북 정읍시 산외면 종산리 법화정사
· 울산교구 : 울산시 남구 신정 2동 관음사
· 경북교구 : 경북 영천시 청동면 죽정리 금륜사
· 경남교구 : 마산시 내서읍 신감리 불광사
· 부산교구 : 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이루사
· 교 육 부 : 대구시 동구 금강동 원불원
· 재 무 부 :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수진정사
· 비구니부 :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백련암
· 호 법 부 : 대구시 동구 신기동 자은사

‘조선을 죽이다’ 혜문 스님, 발간



문화재 제자리 찾기 혜문 스님(사진)이 자신의 해외반출 문화재 찾기 과정을 중간 회향하는 저서 <조선을 죽이다>(동국대출판부刊)를 펴냈다.

스님은 2006년 일본 도쿄대가 소장중인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47권의 국내반환을 성사시켰고, 현재는 남북불교계가 공동으로 일본 황궁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의궤> 72종을 비롯해 다수의 해외반출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활동 중이다.

<조선을 죽이다>에서 스님은 명성왕후 모살과 관련한 직접적 자료인 ‘민후조락사건(閔后殂落事件)’과 ‘에이조 문서’의 전문을 수록했다.

‘민후조락사건’은 당시 명성왕후 살해에 직접 가담했던 한성신보사 편집장 고바야카와 히데오가 쓴 수기로, 일본에서는 명성왕후 모살 사건의 배경과 현장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회고록으로 평가받는다.

‘에이조 문서’는 일본에서 ‘조선왕비 능욕설’을 불러일으켰으나, 그동안 국내 학자들은 원문조차 입수하기 어려웠던 자료다.

‘에이조 문서’는 1895년 을미사변 당시 조선정부 고문관이었던 이시즈카 에이조가 을미사변 다음날인 10월 9일 외교라인을 통해 본국에 보고한 최초의 공식문서다.

1964년 일본 역사학자 야마베 켄다로가 <코리아평론> 10월호에 발표한 논문 ‘민비사건에 대해’에서 처음 소개됐다.

혜문 스님은 “지금까지 ‘낭인배들에 의해 명성왕후가 시해됐다’는 통념은 ‘일본의 계획에 의해 일본인이 명성왕후를 살해했다’로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02)2260-3482

조동섭 기자

‘십현담요해’ 언해본 발견

국내 유일본 추정… 해인사 백련암 서고서 나와

성철 스님이 주석하던 해인사 백련암 서고에서 국내 유일본으로 추정되는 <십현담요해(十玄談要解)> 언해본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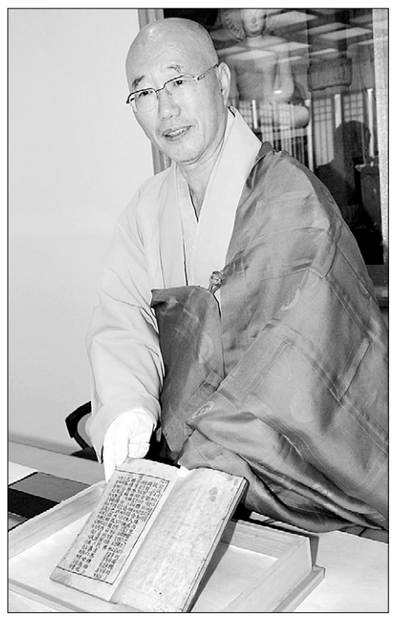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백련암 장경각 서고를 정리하던 중 <십현담요해> 언해본(24.9cm×15cm, 44페이지, 10행 21자 형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십현담요해> 언해본은 16세기 전반에 드물게 언해된 선종 서적으로, 현재까지 문화재 서지 목록 등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휘귀본 내지 유일본으로 추정된다.

<십현담>은 당나라 동안상찰(?~961) 선사가 저술한 10가지 게송이다. 선시의 일종으로 정위에 안주하는 것을 부정하고 생활 속의 실천을 강조하는 선학으로 심인(心印)·조의(祖意)·현기(玄機) 등 10편으로 구성됐다. 불교사상적으로는 선을 비롯해 법화·화엄사상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는 법안종의 청량문익(885~958) 선사가 주석을 달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매월당 김시습(1435~1493)이 성종 6년(1475)에 주를 붙여 <십현담요해>를 지었다. 이번에 발견된 언해본은 김시습이 <십현담요해>를 저술한 지73년이 지나 한글로 옮긴 것으로 명종 2년(1548) 강화도 정수사에서 판각됐다.

원택 스님은 “성철 스님 열반 후 스님이 소장한 5000여 권의 장서를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됐다”며 “성철 스님이 작성한 도서목록에는 여러 권을 함께 <십현담>이라 적혀 있을 뿐 언해·요해라는 표현이 없어 그동안 발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백련암 감원 원택 스님이 <십현담요해> 언해본을 들어보이며 설명하고 있다.

서병패 문화재청 서지 전문위원은 “백련암에서 발견된 <십현담요해> 언해본은 희귀본에 속한다”며 “16세기 중엽 한글에서 사용된 반치음ㅿ과 꼭지ㅇ이 쓰이고 있어 국어사연구와 서지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유학자로 알려진 매월당 김시습에 대한 재평가도 가능하게 됐다.

원택 스님은 “이번 <십현담요해> 언해본 발견으로 김시습이 선서에 주석을 달았던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김시습의 불교관 등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0월 8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릴 성철 스님 열반 제16주기 추모학술회의에서 <십현담요해> 언해본과 관련한 연구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의천의 균여 화엄사상 비판은 잘못”

한국사상사학회에서 고려대 이병욱 교수 주장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의 균여(923~973)의 화엄사상에 대한 비판은 잘못됐다.”

고려대 이병욱 외래교수는 9월 12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열린 한국사상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 ‘의천의 균여화엄사상 비판의 정당성 검토’를 통해 이같이 주장해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천의 균여 비판은 다수의 학자들이 그 배경에 대해 연구를 거듭하며 고려불교의 대사건으로 불린다.

서울대 최병헌 교수는 “의천이 균여 등을 비판한 이유는 균여의 사상에는 관문(觀門, 관법)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고, 목포대 최연식 교수는 “균여의 사상에 관법이 없지는 않았으나 의천이 그것을 관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일본학자 사토 아츠시는 의천이 균여를 비판한 이유로 균여와 의천의 교학 차이와 의천이 균여의 저술에서 출처가 불분명함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병욱 외래교수는 “의천은 균여를 관법을 닦지 않았음을 근거로 비판했으나, 균여는 관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균여는 저술인 <화엄경삼보장원통기>에서 부정관(不淨觀) 등을 거론하는 등 다양한 수행법을 설명하며 지(선정)와 관(지혜)을 강조했다.

이 외래교수는 “균여는 선정(지)만을 닦고 지혜(관)를 닦지 않으면 완고한 어리석음에 떨어질 것이며, 지혜(관)만을 닦고 선정(지)을 닦지 않는다면 미친 지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병욱 외래교수는 “의천이 균여가 관법을 닦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균여는 관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며 “의천이 균여를 비판한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수월관음도 현존 최고 괘불화”

한국미술사연구소, 12일 제1회 괘불화 학술대회 개최

사찰에서 야외 행사 때 괘불화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회화작품이다. 규모 뿐 아니라 구도와 형태, 색채감이 보여주는 높은 완성도는 예술적·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증명하고 있다.

괘불화의 시원은 고려 초기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다수의 괘불화가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만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연구가 뒷따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최초로 괘불화를 주제로 학술 행사가 열려 눈길을 끈다.







일본 쿠슈 경신사에 보관된 수월관음도(위)와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아래 왼쪽), 윤은희 연구원.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동국대 명예교수)는 9월 12일 국립고궁박물관 소강당에서 ‘괘불화의 성격과 의의’를 주제로 제1회 괘불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문명대 소장의 기조발제 ‘한국 괘불화의 기원문제와 경신사장 김우문필 수월관음도’를 비롯해 윤은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 김창균 동국대 교수, 김정희 원광대 교수 등이 발표했다.

#괘불화의 시원은 고려시대

문명대 소장은 “괘불화는 고려시대부터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괘불화는 일본 큐슈 경신사에 보관 중인 고려 수월관음도”라 주장했다.

문 소장은 <삼국유사> 원종흥법편에 “법당(法幢)을 세우고 범경(梵鏡)을 매달았다(堅法幢 縣梵鏡)”는 기록을 설명하여, “‘법당’은 괘불화의 전신인 불화적 요소를 갖춘 깃발”이라고 강조했다.

문명대 소장은 “고려시대에는 불교재의식이나 법회가 빈번하게 행해졌다”며 “봉은사 연등회, 신효사 우란재 등 정기적으로 열렸던 재의식에 불화를 걸어 놓았을 것”이라 추정했다.

이어 문 소장은 “임란·호란을 겪으며 비명횡사한 고혼들을 현장에서 위무하기 위한 재의식에 괘불화가 본격적으로 성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신사에 보관된 수월관음도는 419.5×254.2cm 크기로 비단채색됐다.

#법화·화엄 사상 괘불로 표현

윤은희 한국미술사연구소 연구원은 주제발표 ‘의식집을 중심으로 본 괘불화의 조성 사상’에서 “괘불 조성에는 <법화경> 사상이 중심됐고, 영산회상괘불이 가장 유행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연구원은 “<법화경>의 선적 요소가 강조되며 염화수지형 괘불 도상이 조성되고, 화엄사상의 영향을 받아 삼신불 괘불화가 조성됐다”고 설명했다.

17세기 사원들이 중정(中庭) 중심의 가람구조를 형성하며 창건·재건되면서 시작된 통불교시대에는 삼신불과 삼세불이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5불로 표현되거나, 법신불 좌우에 삼세불의 좌우불로 배치되는 형식 등 괘불의 도상은 다양하게 발전했다.

윤은희 연구원은 “괘불에서 보이는 법화와 화엄사상의 통합은 조선불교미술의 중요한 특징”이라 말했다.

#다불에서 삼세불로 정착

유마리 국립고궁박물관 학예연구관은 주제발표 ‘다불 괘불화’를 통해 조선후기 유행했던 다불(多佛) 괘불화에 대해 조명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조선 후기 괘불화는 유독 삼신삼세불의 변형이 많았고, 거대한 화폭에 다불이 그려진 괘불화가 대두됐다”고 말했다.

삼신삼세불 괘불화는 오불회(칠장사오불회괘불화 1628년 조성, 부석사오불회괘불화 1745년 조성), 사불회(부석사 영산삼신삼세괘불화 1684년 조성), 삼불회(칠장사영산삼신삼세괘불화 1710년 조성) 등으로 구분된다.

유마리 학예연구관은 “1628년 조성된 경기도 칠장사오불회괘불화로부터 미륵보살이 출현하기 시작해 1673년 조성된 장곡사미륵불괘불화 등에서는 미륵불이 본존불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며 “려말선초 이래 유행한 삼세불인 석가불·미륵불·아미타불, 석가불·미륵불·다보불, 또는 수기삼존불(석가불·미륵보살·제화갈라보살 등) 미륵불·보살이 포함된 삼세불과 조선조 후기 성행한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의 삼세불, 삼신불이 17세기 괘불화에 모두 등장해 다불 괘불화가 조성됐다”고 추정했다.

유 학예연구관은 “이후 삼세불이 석가불·약사불·아미타불로 정착되면서 다불괘불화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제7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시상 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하에 불교의 현대적 재조명과 지구촌 발전을 위한 불교라는 취지를 살리는 뜻으로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7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시상 부문 – 대 상 : · 승가 부문 1인, 상패 / 상금 1,000만원. · 재가 부문 1인, 상패 / 상금 1,000만원
· 단체 부문 1곳, 상패 / 상금 1,000만원.
– 불교미디어콘텐츠상 : 1인 혹은 1단체, 상패 / 상금 500만원 ~ 1,000만원.
– 특별상 : 분야 구분 없이 약간 명(곳), 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 500만원.

◆수상자 선정

① 대상 승가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부문 / 단체부문 및 특별상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불교미디어콘텐츠상은 젊은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기 위한 취지로 불교 진흥을 소재로 한 미디어콘텐츠(비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실험영화, 오디오 등과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제작물)의 제작 결과물을 심사, 시상합니다.
단, 2009년도 순수 본인 창작물이어야 하고, 외부 지원 등에 의하여 제작된 콘텐츠는 불가합니다. 응모자는 방송물 및 영화, 인터넷 신문,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전시회, 기타 문화콘텐츠 제작 또는 참여 경험을 증명 시 심사에 참고합니다.

◆수상 후보 추천 접수

– 대상 (승가 / 재가 / 단체) 부문
①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5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③ 70 ~ 80년대 이후 (약 한세대 이전) 작고한 분이라도 한국불교 현대화에 공헌했던 분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④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취지와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불교미디어콘텐츠상 부문
① 대원상 불교미디어콘텐츠상 부문 후보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작 결과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양식은 본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원상 대상 (승가 / 재가 / 단체) 부문 후보 추천서 – 대원상 불교미디어콘텐츠상 부문 후보 신청서.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 수 기 간 : 2009년 9월 21일(월) ~ 11월 11일(수).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우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③ 접 수 방 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마감일 당일자 소인 유효).
※ 2010년 제8회 대원상 시상부터는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시상 내용 등을 전면 개편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민병천

제39차 운문승가대학 동문회

황금빛으로 물든 은행나무가 여러 선후배 스님들을 초대합니다.
동문스님들을 모시고 운문 도량에서 아래와 같이 동문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정진 중 바쁘시더라도 운문사 모든 선후배 스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불기 2553(2009)년 10월 8일 오후 3시 (음력 8월 20일)
• 장 소 : 운문사 삼장원
• 안 건 : 一. 모교 발전에 대한 건
一. 동문회 임원선출에 대한 건
• 전화번호 : 054)372-8800 (운문사 종무소)
054)383-5250, 017-508-7561 (동문회장)

운문승가대학 총동문회장 명심 합장

일주문



인천 수미정사 보살계수계

장수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9월 13일 인천 수미정사(회주 종연)가 개최한 보살계 수계법회에서 법문했다.



법장 스님 4주기 추모다례

예산 수덕사 주지 옹산 스님은 9월 26일 수덕사에서 전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4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한다.



제1회 청소년UCC 공모전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10월 5일까지 전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봉은사 1318 청소년UCC 공모전을 연다. (02)3218-4826



인도성지순례 사진전

대구 보성선원 주지 한북 스님은 10월 10~17일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앞에서 인도성지순례 사진전을 연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환경아카데미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가섭 스님은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탑골사랑 봉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환경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청매의례문화연구원 개원

청매의례문화연구원장 미등 스님(조계종 기획국장)은 9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 사무실에서 개원식(겸 현판식)을 봉행한다. (02)712-0077



축산업협회 임원연수 강연

천안 만일사 주지 마가 스님은 9월 15일 전남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열린 전국축산업협회 임원연수에서 '붓다의 상생원리'를 주제로 강연했다.



사회복지사의 날 울산시장상 수상

울산광역시립노인요양원장 오심 스님은 9월 11일 열린 '제1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서 울산시장상을 수상했다.



불교여성개발원 웰다잉법회

불교여성개발원 이은영 원장은 9월 2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웰다잉 운동본부와 함께 '월호 스님 초청 웰다잉법회'를 개최한다.(02)722-2101



LMB싱어즈 창립 10주년 기념음악회

불교계 성악중창단 LMB싱어즈 황영선 단장은 9월 30일 오후 7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주년 기념음악회를 개최한다. (02)882-1727

"법인설립·지속사업 개발 최선"

선방에서 포교현장 나온 불레협 새회장 도경 스님

"어린이·청소년 포교는 투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산중 초야에 묻혀있던 선객이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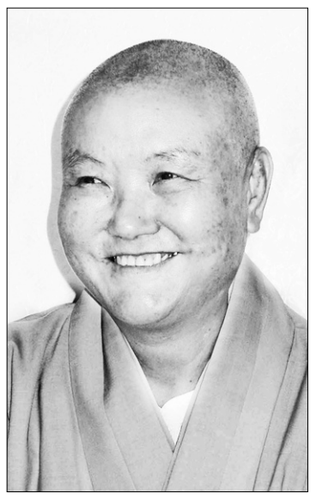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이하 불레협) 회장에 도경 스님(예천 원명사 주지·사진)이 9월 5일 임시총회를 통해 선출됐다.

불레협 12대 회장으로 선출된 도경 스님은 임기 3년 내에 불레협을 명실상부한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로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도경 스님은 9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불레협이라는 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지는 오래되지 않았다"며 "불레협이 레크리에이션를 통한 법회의 활성화와 레크리에이션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는 교계유일의 단체라는 것을 알고 출가 승려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소감을 말했다.

비구니로는 처음 회장에 선출된 스님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시절 부회장과 재무부장을 역임했던 노하우를 살려 재정확보에 전력을 다할 생각이다. 또한 사단법인화를 통한 불레협 활동으로 1회성 봉사활동의 한계를 뛰어넘어 지속적인 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스님은 불레협 재정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지금까지 이처럼 여법하게 단체를 이끌어 온 것을 보고 놀



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창립한 지 24년이 됐지만 불레협을 모르고 있는 스님과 재가자가 많으며 불레협의 활동은 여전히 봉사단체의 수준"이라며 "수익사업 등을 통해 보다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발전단체가 될 수 있도록 사단법인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경 스님은 전국적인 조직 확대 개편을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스님은 "불레협이 현재 중앙사무국과 5개 지부가 있으나 지부는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며 "각 도별로 부회장을 선출하고 지부장을 겸하도록 해 조직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도경 스님은 종단의 어린이·청소년 포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는 생각이다.

이에 대해 불교레크리에이션 김석두 사무총장은 "최근 조계종 포교원에서는 동련, 불레협, 좋은벗풍경소리 등을 어린이·청소년 포교기구로 통합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종단활동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각 단체의 특성화가 더욱 필요한 시점인 만큼 사단법인화의 토대 마련에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경 스님은 "아이가 혼자 크는 것이 아니 듯 불교계 각 단체와 종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포교를 위한 투자를 당부했다. 도경 스님은 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 말사 김룡사에서 묘전 스님을 은사로 전계대화상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봉녕사 강원, 해인사 국일암, 범어사 대성암 등 제방 선원에서 안거 수행을 했다. 봉녕사 승가대학,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중국 남경에서 중의학원을 졸업했다. 현재 스님은 조계종 직할 원명사 주지, 정토사 관자재회 감사를 역임하고 있다.

한편, 이·취임법회는 9월 27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 공연장에서 봉행된다.

이상언 기자

총무원장 장학금 수여식 봉행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1억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은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2009년 불교인재양성을 위한 총무원장 장학금 수여식'을 봉행했다. 장학금 수여식에는 동국대 불자학생 23명이 참석해 장학증서 등을 전달받았다.



9월 15일 지관 스님이 동국대생에게 선물로 준비한 금강저를 설명하는 모습.

지관 스님은 인사말에서 "젊은 사람들이 편하고 하기 좋은 것만 쫓아서는 안된다"며 "가정·사회·국가를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공부)을 많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무원장 장학금은 2004년부터 인재불사의 일환으로 매년 1억 원의 장학금을 출자해 동국대 학생에게 전달돼 왔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대구시 신도회장 이·취임식

15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분전서 봉행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이·취임식이 9월 15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혜총 스님, 중앙신도회장 김의정 회장, 대구광역시 김범일 시장, 경상북도 김관용 도지사, 구미시 남유진 시장 등이 참석했다.



9월 15일 팔공산 동화사에서 봉행된 조계종 대구시 신도회장 이·취임식에서 류병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임 류병선 대구시신도회 제9대 회장 겸 조계종 제9교구 신도회 제5대 회장은 취임사에서 "신도회장이라는 기쁨보다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수행하고 삼보를 외호하는 단체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아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위상 강화·포교 역점두고 진행"

8일 생활불교조계종 하반기 임원회의 진행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총무원장 도선)은 9월 8일 총본산 영양군 관법사에서 종정 스님을 비롯한 종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임원회의를 진행했다.



종단화합을 당부하는 도선 스님과 종단 임원진.

이날 회의에서는 10월 경 종도교육 및 전국주지회의를 열기로 확정하고, 개별사찰로 진행했던 '자비의쌀 나눔운동'을 내년 종단사업으로 통합해 실천하기로 했다. 또 새로 임명된 기획원장 일두 스님 외 임원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가 이어졌다. 총무원장 도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외적인 종단위상 강화와 중생포교를 위한 실천운동 전개를 종단운영 역점사항으로 진행하겠다. 종단 임원진은 화합을 통해 종단 사업에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054)682-5808

불교방송 이사회 개최

신임사장 선출 결의

불교방송(이사장 영담)은 9월 8일 서울 마포가든 호텔에서 제69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에서 후보자를 복수 추천 받아 신임사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이어 이사회는 민병천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이 건강을 이유로 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김규칠 대한불교진흥원 상임이사를 새 이사로, 중앙승가대 총장 태원 스님과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엄상호 前 건영 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했다.

조동섭 기자

경북대 로스쿨불자회 창립법회

대구동화사서 강민수 회장 및 30여명 뜻모아 창립

경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불자회가 9월 11일 대구 동화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9월 1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경북대로스쿨불자회 창립법회 모습.

경북대 로스쿨불자회는 강민수 회장과 이달휴 지도교수, 동화사 포교국장 심담 스님과 대학원생 30여 명이 뜻을 모아 창립됐다.

강민수 회장은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템플스테이, 초청강연, 봉사활동 등을 펼치고 전국단위의 로스쿨 불자회 조직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신화같은 기적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는 대체의학의 선구자 三奉(삼봉) 스님은 어떤 분인가?

7대 전수 한의이신 조부님 강요에 못이겨 13세부터 6경신 정신수련에 입신해서 79세가 되신 지금까지도 육경신 정신수련을 하시면서 인간은 출생하면서 가는 날은 이미 정해졌다 하지만 사는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가는 길은 없을까 하는 일념으로 수련중에 깨우침이 있어 이 세상에 내어 놓은 것이 천의선도입니다.

천의란 불로장생하는 하늘의 의술이며 선도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신선의 반열에 오르는 길입니다. 천의선도를 전수받고 열심히 수련하다 보면 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합장하고 있던 두 손이 밑에서는 벌어지고 위에서는 잡아 당기는 느낌이 드는 신비 속에 접어들면 몇 시간을 수련해도 한 순간 같으면서 콧물이 주루루 흘러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나면 삼매경에 들게 되는데 콧물이 아니라 몰핀보다 강한 호르몬이 분비된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면 삼매경에 든지 40分 내지 1시간이 경과하면 목에 침이 가득 차는데 6-7회 삼키고 나면 희열속에 접어들어 1시간 정도 지나면 간뇌에서 다이놀핀이 분비되는데 천상 영계에선 이것이 생명의 감로수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침은 엔돌핀이라 합니다. 엔돌핀은 몰핀의 2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고 다이놀핀은 엔돌핀의 700배 진통 치유능력이 있다는데 다이놀핀이 분비되면 모든 암세포도 일순간에 소멸되고 망가진 세포가 재생된다는게 영계의 메시지인데 현대의학계에서 포기한 시한부 암환자들에게 천의선도를 전수하고 수련시키다보니 100여명이 넘게 정상으로 회복되어 10년이 지났는데도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평생두통, 위하수,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천의선도를 전수시키고 통증부위에 생명의 에너지를 1주일에 한번 씩 몇 차례 주입시켜 주었더니 정상으로 회복된 분이 2000여명이 넘는데도 재발된 분이 한분도 없는 것이 30년 체험형상입니다. 부산 한의사 협회 회장님으로부터 고발을 당해 가면서도 천의선도를 오늘까지 전수시키고 있는 것은 20대 중반 아가씨가 나면서부터 뇌성마비로 수족이 뒤틀린 장애인이 신체비관을 하고 있기에 위로삼아 천의선도를 전수시켰더니 1년 반이 되면서 오른손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2년이 지나면서 왼손과 오른발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신화 같은 기적이 (천의) 하늘의 의술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대체의학을 사장 시킬 수가 없어 내 나이가 79세 인데, 나의 의식이 생생할 때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어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이란 책자를 발간해서 천하제일의 명의를 양성해서 부처님 뜻으로 큰 봉사하며 살고자 이글을 광고합니다.

독자여러분 1박2일간에 맥박, 경락도 모르는 분이 천하제일의 명의가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절대로 믿으시고 체험해 보십시오. 이것이 천의선도의 염력전수(도력전수)입니다.

몸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몸을 편히 해주고, 마음이 아파 몸부림치는 분 마음을 편히 해주며 큰 봉사하며 살자고 스님, 처사님, 보살님, 종교지도자님, 한의사님, 양의학 박사님도 초대합니다.

■ **전 수 장 소**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 **전수참가금** : 일금 100만원 (특전 – 천하제일의 대체의학 50만, 천문을 열어라 2만원, 매선림 20만원 증정)
■ **전 수 과 정**
· 1차 : 천문을 열어드림 / · 2차 : 천의선도 수련법 시행
· 3차 : 치료법 실습강의 / · 4차 : 환신 받고 / · 5차 : 선단제조법 강의
· 6차 : 사면권부여식 (빙의된 신을 천상으로 보낼수 있는 능력 부여식)
· 7차 : 치료법 2차 실습 마치고 종강
■ **전 수 일 시**
· 2009년 9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 – 9월 24일 12시 종강
·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8일 12시 종강
· 2009년 10월 14일 수요일 오후 2시 – 10월 15일 12시 종강
■ **저 서**
· 1971년 팔괘비전 열역신서 / 1990년 사상의학 8상체질분류법
· 1994년 천명전수 천의선도 / 2000년 천문을 열어라
· 2006년 천의선도는 대체의학 천하제일의 민중의술

삼봉(김영생) 합장 전화 010-4933-4528
은행계좌번호 : 하나은행 382-810082-33207 김영생
(입금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

"내년에는 더 공부해서 더 잘볼 거예요"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9월 12일 전국 8개 도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왼쪽부터 자승 스님, 상인 스님, 보선 스님, 혜자 스님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신종인플루엔자 전염에 대비해 각 고사장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발열체크, 손 소독을 실시했다.

단순 교리 암기 아닌 신행이해 시키는 문제 출제

전국 8개 도시서 2677명 교리경시대회 응시

가을비가 개어 유난히 맑은 교정. 가을볕이 따스한 9월의 주말, 여유로워야 할 대학캠퍼스에 서성이는 스님, 어머니, 선생님들로 분주하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정오가 되자 어린 학생들이 한꺼번에 우루루 쏟아져 나온다.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으며 뛰어 나오는 학생들의 얼굴마다 환한 연꽃이 가득하다.

"스님~ 사찰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새벽에 하는 게 뭐에요?"

"법사님, 조금만 공부 더 할 걸 그랬어요."

"석가모니의 '석가'를 '돌집'이라고 썼어요."

초등학생인 듯한 앳된 어린이들이 스님에게 조르륵 달려와 이것저것 궁금해 죽겠다는 듯 묻는다. 스님은 대답을 하기에 앞서 "잘 봤니? 수고했다"고 격려를 하며 학생들을 품안에 담았다.

전국에서 2677명의 어린이 · 청소년 불자가 접수해 뜨거운 반응을 보인 제1회 전국 청소년 불교교리경시대회가 9월 12일 전국 8개 도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이 주최하고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동국대 등이 공동 주관한 첫 불교교리경시대회에는 접수한 어린이 중 71%(1913명)가 참가해 높은 응시율을 자랑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과 자승 스님, 불교신문사장 혜자 스님을 비롯해 출제위원장인 화엄학림 학장 법인 스님, 동국대 박경준 교수 등은 서울 고사장인 동국대를 찾아 고사장을 일일이 돌아보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시험에 앞서 경시대회 운영위원회는 신종인플루엔자 전염에 대비해 고사장마다 보건교사를 배치해 입실하는 모든 학생, 감독관 등에 대해 발열체크, 손 소독을 실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학생들은 처음 치러지는 교리경시대회의 문제유형이나 난이도를 가늠하기 힘든 만큼 만반의 준비를 다한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쓰고 시험 직전까지 주 교재인 <청소년 불교입문>(조계종 출판사), 부처님의 생애, 한국불교 역사에서 유식학에 관련된 내용까지 빼곡히 적힌 요약집과 예상문제 등을 보며 차분히 시험준비를 하는 모습은 사뭇 진지했다.

출제위원장인 동국대 박경준 교수는 시험 종료와 동시에 기자브리핑을 갖고 "공양게, 절, 예불문 등 단순 암기를 벗어나 불교신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유도할 수 있는 문제를 주 교재인 <청소년 불교입문>에서 출제했다"며 "객관식, 주관식 모두 불교적 세계관과 인생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교수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단어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며 "중 · 고등학생의 경우 문제 난이도의 차별화가 어려웠으며 40% 가량 중복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60분 동안 객관식 40문제, 주관식 10문제를 풀고 나온 학생들의 반응은 가지가지 색이었다. 초등학생의 경우는 출제위원들의 걱정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시험의 반은 찍고 나왔다"는 반응과 함께 "풀만했다" "쉬운 문제도 있었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한편 중 · 고등학생의 경우는 기본 교재를 충분히 본 학생에게는 비교적 쉬워 "시험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크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진솔(동대부속여자중1)양은 "재미 있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유심히 보고 절에 다닐 때도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다"고 말했다.

지난 여름방학 개학 열흘 전부터 매일 학교 법당에서 함께 공부했던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은 "10분만에 다 풀고 50분 동안 검토했다"며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몸은 불편하지만 깊은 불심으로 스스로 교리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었다.

청룡사에서 온 홍정기(창신초5)군은 휠체어에 불편한 몸을 의지해 어머니와 함께 왔다. 홍군은 지난 한 달 동안 어머니와 함께 매일 1~2시간 공부를 했다. 홍정기군은 "공부한 곳에서 많이 나오지 않아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었다. 어제는 공부를 '좀 더 할 걸' 하고 후회도 했다"고 말했다.

홍정기군의 어머니는 "불교신자로서 어릴 때 기본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적을 떠나 참가에 의의를 가지고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화계사에서 참석한 홍현승(자운고2)군은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해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한 별도의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렀다. 신문에 게재된 교리경시대회 광고를 보고 스스로 참가의사를 밝혔다는 홍군은 시험을 마치고 밝은 표정을 지으며 "공부는 많이 했는데 3개 정도는 답을 하지 못했지만 시험을 치러 기쁘다"고 소감했다.

청룡유치원 출신의 어린이들을 단체 참가시킨 정명 스님(서울 청룡사 부설 청룡유치원 원장)은 "교리경시대회의 취지와 동기가 좋지만 좀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상장과 상품을 늘려야할 것"이라며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연구나 불교용어정리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도과정에서 절감했다"고 말했다.

동국대사범대학 부속여자중학교 권진영 법사는 "첫 시험인 만큼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각 사찰 어린이 · 청소년 법회 및 학생회의 정례화, 신행활동의 자발적 참여, 자긍심 고취 등에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고무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경시대회의 열기는 대단했다. 고사장이 없는 제주와 속초, 해남 등에서도 시험을 치르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와 시험을 보는 기특한 학생들도 많았다.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이 순간을 기다렸던 포교 현장의 법사님들은 벅차오르는 뜨거운 눈물을 쏟기도 했다. 교리책을 펴면 법당을 떠나던 아이들이 스스로 교리책을 들고 찾아왔고 어린이 · 청소년포교가 미래를 위한 불확실한 투자가 아닌 가장 가치있는 투자임을 확인하기도 했다. 시험을 치르고 나온 학생들은 이구동성으로 "내년에는 더 공부해서 더 잘 보고 싶어요"라고 합창한다. 이 아이들이 이끌어갈 불교의 미래와 이 아이들의 미래는 날마다 '맑음'이다.

글=이상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한라에서 백두까지 대순례기도

4일 금강사서 경남불교평화연대 창립



경남불교평화연대는 9월 4일 금강사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부산, 경남지역 스님들이 불교로 평화통일을 이끌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경남불교평화연대(대표 자흥, 이하 연대)는 9월 4일 오후 2시 창원 금강사에서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창립대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고문 및 자문위원의 축사, 대표 자흥 스님의 기념사 등의 순으로 여법하게 진행됐다. 대표 자흥 스님은 기념사에서 "피폐해진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상생의 길로 인도할 유일한 방법은 부처님의 가르침뿐"이라며 "분단된 남과 북의 마음을 여는 방법은 정치가 아닌 불법포교를 통한 불심에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으로는 △한라산 백록담에서 백두산 천지연까지 평화통일 대순례를 추진하고 △불교대학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강좌를 개설해 통일을 준비하며 △사회적 약자에 보살행을 실천하는 복지사업 등을 실천하게 된다.

연대는 자흥 스님(금강사 주지)을 대표로 도성 스님(前 해인사 주지),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진관 스님(종단협의회 불교인권위원장), 선진규 김해 정토원장,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 등이 고문을 맡았다. (055) 253-0108 박지원 기자

사명 대사 호국광장 조성 기공식

열반 400주년되는 2010년 완공 계획



9월 18일 사명 대사 호국광장 조성 기공식에 참여한 내외빈들이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는 9월 18일 부산 어린이대공원 내 사명대사광장에서 '사명대사 호국광장 조성 기공식'을 갖고, 본격 시공에 착수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여 스님 이하 연합회장단,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제종모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부산시교육감(부산시불교연합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됐다.

제1부 지신밟기는 삼광사(주지 화산) 풍물패의 풍물한마당과 부산영산재보존회의 영산재 등이 펼쳐졌다. 이어 2부 기공식는 삼귀의례 및 반야심경 봉독, 사명대사 행장소개 및 동상건립 경과보고, 사명대사 호국광장 조성사업 설명, 내빈 축사, 정여 스님의 법어, 기공버튼 누르기 및 첫 삽 뜨기 등이 이어졌다.

사명대사 호국광장 조성은 부산불교연합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예산 13억원 규모로 사명대사 열반 400주년이 되는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된다. 박지원 기자

"관세음보살 100만 희망 노래"

삼광사,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원만 회향


부산 삼광사 신도들의 관음정진 기도 모습.

2011년까지 전국의 천태종 사찰에서 릴레이로 봉행하는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의 첫 번째 사찰인 부산 삼광사가 9월 8일 100일기도를 원만 회향했다.

삼광사(주지 화산)는 9월 8일 지관전에서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2011년 상월원각 대조사 탄신 100주년을 맞아 봉행중인 백일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1500여 명의 불자들이 뜨거운 신심과 원력을 보태며 하루 1만 관음정진으로 쉼 없이 기도했다.

염불선을 중시하는 천태종의 소의경전 <법화경>에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보살피는 신통력이 뛰어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천태종 중창조인 상월원각 대조사 역시 "일심이 상청정하면 처처가 연화계"라고 설한 바 있다.

삼광사를 찾은 불자들은 이런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며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작은 미동도 없이 관음정진기도에 집중했다. 새벽예불을 마친 후에야 새벽녘 어스름을 가르며 산문을 나서는 1500여 불자들의 행렬은 매일 장관을 이뤘다. 이들을 위해 인근 지하철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의 첫차 시간이 1시간 정도 앞당겨지기도 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에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들의 가슴에는 엄청난 내공이 쌓였다"며 "그 힘이 이 세상에 고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진해 주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기도에 동참한 대부분은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자녀들의 아침을 정성껏 보살폈고, 일부는 법당 한 편에서 새우잠을 자고 일터나 학교로 바로 향하기도 했다. 기도의 원력이 나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생활의 활력소로 변했음을 깨어있는 모든 순간 깨달았다.

주지 화산 스님은 "회향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뜻하는 말"이라며 "지난 100일간 백만독기도를 이뤄낸 원력으로 앞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번 '일심청정 관음정진 백만독 백일기도는' 삼광사에 이어 9월 3일 서울 관문사, 12월 6일 인천 황룡사 등 전국 10여개 천태종 사찰에서 릴레이로 이어져 100주년이 되는 2011년까지 계속된다. 박지원 기자

인도 문화사절단

18일 초청대공연

한국과 인도 수교 36주년을 맞아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는 9월 18일 부산 롯데호텔 3층 아트홀에서 '인도공화국 문화사절단 초청대공연'을 개최했다.

행사는 1 · 2부로 나뉘어 제1부에서는 내 · 외빈 소개 및 인사에는 공병수 부산불교신도회장, 허남식 부산시장,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제2부 본 공연에는 먼저 우리나라의 한소리 가야금단과 풍류전통예술원이 가야금 연주 및 모듬북, 사물놀이 공연등을 펼쳤다. 박지원 기자

범국가규모 법회 되살아나

31일 제2회 백고좌대법회 벡스코서 봉행

750년 만에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했던 백고좌대법회가 오는 10월 31일 부산 벡스코에서 재현돼 눈길을 끈다.

부산 성재문화원은 10월 31일 오후 1시부터 부산 벡스코 1층 전시장에서 '제2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한다.

백고좌대법회는 신라 진평왕 때 개설된 이래 고려 때 원나라의 외침으로 불교의 맥이 끊어지기 전까지 임금이 시주하고 주관하던 범국가 규모의 성대한 법회였다.

이때 100위의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을 모신 가운데 100명의 법사를 청해 강경하며, 사자좌 앞에는 100개의 등불, 향, 꽃 등으로 삼보에 공양했다고 해 '백고좌대법회'라 부른다.

이번 법회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성재문화원 이강원 원장은 "철저한 고증을 통한 연구와 준비, 그리고 스님들께 무려 7만여 통의 편지를 보내며 성심성의껏 준비해왔다"고 회고했다.

이강원 원장은 "지난 12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지만, 두 번째 법회를 한달 여 앞둔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며 "이번 법회를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고 정례화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역동적인 행사로 계승, 발전시켜 우리나라 대표 불교행사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051)863-4441 박지원 기자

불국토를 찾아서

행복한 부산 문화지킴이 영광문화예술원

찬란한 민족문화 '영광'으로 산다

'부산'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를까? '프로야구와 부산갈매기'와 '자갈치시장의 활어회에 소주 한잔' '일출과 광안대교 드라이브'를 떠올린다면, 최근 3년 사이 부산에 와본 적이 없거나 문화와 예술분야에 문외한일 확률 99%다.


영광문화예술원이 개최한 문화행사에 참석한 대중들이 진지하게 강연을 듣고 있다.

부산은 지금, '영화 해운대와 국제영화제' '벡스코와 전시, 컨벤션, 박람회' '부산영상제작소' 등과 함께 문화예술의 거점도시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성장의 원동력은 특정 단체나 기업, 정부의 정책이 아닌 부산 시민의 문화, 예술에 대한 저변이 확대되고, 스스로 문화시민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지속적인 관심에서 비롯됐다.

1968년부터 40여년 넘게 부산 시민의 지식과 문화적 소양의 충전소가 되어온 영광도서(대표이사 김윤환, 부산불교실업인회장)의 부설기관인 영광문화예술원(원장 이경순)은 문화적 소통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며 문화, 예술을 향한 갈증을 해소하는 징검다리가 되고 있다.

"영광문화예술원이 생기기 이전부터 영광도서 내에 공간을 마련해서 크고 작은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회, 차문화, 사진 예술, 전시 갤러리 등 행사가 있어왔어요. 여기에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원이 생겼어요. 더 즐겁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2003년 7월 창립한 이후 '영광사진아카데미' 초, 중, 고급 교육강좌,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사진 무료 교육 강좌', '이상일(영광문화예술원 디렉터) 예술철학강좌', '명사 초청특강' 등 당시 생소했던 사진과 디지털카메라에 관한 전문교육과정을 단계별로 꾸준히 개설했다. 그리고 '졸업생 사진전시회'를 비롯한 '책과 그림, 영상으로 만나는 평양', '한불수교 120주년 기념 초대전', '한국현대사진가 10인전', '신인 사진작가 지원전', '대구 비엔날레' 등 다채로운 기획사진전과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한 전시, 유명사진가 초청 강연 및 토론회를 잇달라 개최했다.

"처음 문화원을 열었을 때부터 함께하던 회원들은 이제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윤이나 이목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 그저 편안한 공간과 양질의 강좌를 열어줘 '신나게 즐기는 마당'을 열어주고 싶었어요. 요즘 들어 인터넷서점 등의 출혈경쟁에 서점도 어렵지만, 영광도서라면 앞선 문화를 이끌고 지켜낼 문화공간을 마련해야한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숱한 위기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극복해낼 수 있었던 방편은 부산시민의 문화지킴이란 사명감과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051) 816-9500 박지원 기자

화제의 불화

수월관음도

불자가문의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든 수월관음도는?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워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린다.

규격 : 가로 67Cm×세로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의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기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
문의 (02)741-4488 (사찰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용호신불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호신불을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찰스님 30%할인)

"세계유일한 불교성지 만들고 싶어"

남미륵사, 김교각 지장보살 이만삼천불 점안식 · 만불전 낙성 대법회 봉행



9월 15일 남미륵사에서 봉행된 김교각 지장보살 이만삼천불 점안식(오른쪽)과 본 행사전 테이프 커팅 모습.

전남 강진에 중국 구화산에서 지장보살의 후불로 추앙받는 김교각 스님을 봉안한 만불전이 낙성됐다.

세계불교미륵대종 총본산인 남미륵사(주지 법흥)는 9월 15일 김교각 지장보살 2만3000불 점안식과 만불전 낙성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지산 스님(대한불교종정협의회 이사장), 혜철 스님(대한불교종정협의회 회장), 법정 스님(강진군불교사암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 유선호 국회의원, 황주홍 강진군수 등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점안식, 만불전 낙성식에 이어 진행된 법요식에서 지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신라왕자로 태어나 중국 구화산에서 불법을 펴신 후 지장보살의 후신으로 추앙받는 김교각 지장보살을 2만3000불이나 모신 것은 현대불교에 커다란 이정표를 세운 것"이라며 "오늘 이 법회를 계기로 낙후된 남녘 하늘 아래 불교바람을 일으켜 불국토 건설에 모든 불자들이 앞장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법흥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불교성지를 조성하여 후대에 길이 남길 불교유적을 만들고 싶다"며 "지금의 불사는 사부대중을 위한 것이니, 많은 불제자들이 주인이 되어 기도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낙성식을 봉행한 남미륵사는 2006년 동양 최대의 황동아미타좌불을 봉안한 것을 비롯해, 33층 석탑과 관음전, 오백나한, 9층 석탑 등이 봉안돼 있다.

한화갑 前 민주당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불교는 어려운 시기마다 항상 정신적 구심체가 되어 국난을 극복하는 데 원동력이 돼 왔다"면서, "2000만 불심이 하나로 뭉쳐 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고 국민화합을 기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미륵사지 리모델링

2010년 1월까지 공사

익산미륵사지석탑(국보 제11호) 인근의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전면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간다. 전북도(도지사 김완주)는 9월 16일 "9억6000만원을 투입해 10월 5일부터 2010년 1월까지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을 리모델링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모델링이 끝나면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에는 올해 초 출토된 사리장엄구를 비롯해 미륵사가 창건된 백제부터 폐사된 조선 중기까지의 유물과 자료 600여 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미륵사 모형과 기록으로 보는 미륵사 창건과 변천사를 비롯해 백제시대 미륵사 건축문화 등 5개로 구분된 전시실에는 영어와 일어 등 4개 국어로 영상물 등이 소개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신 전시기법을 도입해 국립박물관 수준의 전시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전통불교영산회 회장 혜령 스님

"영산재 의식은 그 자체가 수행"

영산재는 석가모니불이 영취산에서 법을 설하는 모습을 재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법회이다. 영산재는 오늘날 불교전통의 꽃으로 불리며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은 화엄사를 중심으로 고려 진감 국사로부터 이어진 전통의 맥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호남지역에서 영산재 의식을 광주전남 불교계에 보급시키고 있는 중요한 단체가 있다. 바로 전통불교영산회이다.



전통불교영산회 회장 혜령 스님(사진)은 광주 율곡사에 주석하며 스승인 일응 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까지 이어져 온 영산작법을 많은 후학들에게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혜령 스님이 처음 영산작법을 배우게 된 계기는 영산재의 아름다움에 반해서였다.

"처음 들었던 어산스님(영산작법을 하는 스님)들의 목소리는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황홀해 어떤 음악이나 악기와도 비교될 수 없었어요."

영산재가 좋아 배우기 시작한 혜령 스님이지만 배우는 과정이 그리 녹녹하지 만은 않았다.

"처음 일응 스님에게 배울 때 너무 힘들었어요. 배우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태징을 잘못 치기라도 하면 49재가 치뤄지는 동안에도 바로 당신이 징을 가져갈 만큼 엄격했습니다."

영산재 의식은 법악기(法樂器)인 태징, 요령, 호적과 작법무(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독특한 불교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은 현대무용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불교예술의 꽃이다.

전통불교영산회는 1993년 창립해 2006년에 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10여 년 전부터 계속된 5 · 18광주민중항쟁 희생자 위령제와 故 노무현 前 대통령 49재, 여수엑스포 성공기원 법회, 영광 불교최초도래지 수륙대재 등 최근에 진행된 많은 행사에서 혜령 스님을 비롯한 회원스님들은 일반인들에게 영산재를 알려왔다.

전통불교영산회는 영산재를 사랑하는 42인의 호남지역 스님으로 구성됐다. 월인 스님(광주 법륜사), 호산 스님(곡성 무각사), 월호 스님(장흥 장안사), 법정 스님(광주 삼광사), 경보 스님(부산 경보사) 등 잘 알려진 어산스님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매년 2회씩 실시되는 신입회원과 정회원 교육에는 30여 명 이상의 회원스님들로 성황을 이룬다. 9월 20일부터 율곡사에서 진행되는 제11기 신입회원교육에도 많은 스님들이 참석의 뜻을 전한 상태다.

"영산재 의식은 그 자체가 수행입니다. 어느 때는 의식을 하면서 너무 큰 환희심에 소리에 도취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스님들이 불교문화의 꽃인 영산작법을 배웠으면 합니다."

혜령 스님은 영산작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겠다는 원력을 갖고 '영산작법 전승관' 범음대학 설립을 구체적으로 계획 중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선운산 · 미황사등 명승 6곳 지정

문화재청 "대표 관광자원으로 활용" 계획


해남 달마산 미황사 전경.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9월 17일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무주구천동 일사대 일원' '무주구천동 파회 · 수심대 일원' '담양 식영정 일원' '담양 명옥헌 원림'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 등 6개소를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명승으로 지정한 곳은 2008년도에 조사 완료한 광주, 전라남 · 북도 지역에서 지정가치가 큰 6개소이다.

명승 제54호로 지정된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은 선운산 일대 경관의 백미로 꼽힌다. 화산작용으로 형성된 암석들이 거대한 수직암벽을 이뤄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이 일대에 불교와 관련된 문화재(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나한전, 마애불)와 천연기념물 등이 분포하고 있어 인문 및 자연 유산적 가치가 크다. 선운산(禪雲山)은 도솔산(兜率山)이라고도 했는데 선운이란 구름 속에서 참선한다는 뜻이고, 도솔이란 미륵불이 있는 도솔천궁의 뜻으로 모두 불도(佛道)를 닦는 산이라는 뜻이 있다.

명승 제59호로 지정된 '해남 달마산 미황사 일원'은 도솔봉~달마산 능선에서 내려다보이는 남해의 섬과 미황사, 달마산일대의 수려한 경관과 함께 산 능선부에 풍화에 강한 규암층이 길게 노출되면서 발달한 흰색의 수직 암봉들이 병풍같이 늘어서 있는 뛰어난 경승지이다.

달마산은 삼황(三黃)이라고 하는데 불상과 바위, 석양빛이 조화를 이룬 것을 뜻한다. 바위병풍을 뒤로 두르고 서해를 내려다보는 자리에 있는 미황사는 신라 경덕왕 8년(749) 창건 이후 각종 역사 문화적 유적을 가지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에 명승 지정한 '고창 선운산 도솔계곡 일원' 등 6개소를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보존 ·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봉사활동은 살아가는 에너지"

지구촌공생회 12일, 희강원서 봉사


9월 12일 희강원을 찾은 공생봉사단원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지부장 원광) 공생봉사단은 9월 12일 금산사 복지원이 운영하는 전주시 용복동 소재 노인요양원 희강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18명의 공생단이 참여한 이날 봉사활동은 2층 건물 2개동과 부속건물 1개동의 휴게실, 숙소, 화장실, 세면장, 식당등 시설을 대청소하고 텃밭과 시설 주변 잡풀을 제거했다.

가족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한 박운성(40 · 전북경찰청) 거사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하니 즐거움이 두 배고, 아이들 정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봉사활동은 도움을 주고 받는 것 이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로서도 가치가 있어 가족과 계속 함께 할 것이다"고 말했다.

지구촌공생회 전북지부 공생봉사단은 경로식당 봉사활동과 더불어 매달 2회씩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교계 복지시설이나 사암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강원은 금산사 복지원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으로서 2003년 시설정원 36명 규모로 개원해 저비용으로 어르신들의 요양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카다로그가 필요한 사찰은 연락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덤핑으로 판매하는 타사 제품과 종이 질(두께), 스프링 제본 등 견고함을 비교하여 주세요!

역시 이름값하는 경인년 감로불교카렌다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 폐사에서는 불기 2554년 카렌다를 '365일 벽에 걸린 달력은 말없는 포교사' 라는 사명감으로
다양한 소재와 고품격 이미지로 정성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카렌다를 제작하였습니다.
항상 부처님과 사부대중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며, 전국에 계신 고승대덕 큰스님들의 많으신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앞으로도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에게 더없는 법보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산사에 피는 야생화 -大, 小 (3단 카렌다)

아름다운 기도-大, 小

깨달음의 길을 간 큰스님-大, 小

이루어주소서-大, 小

보현행자의 서원-大, 小


禪의 미소-大, 小

동자승의 세계-大, 小

산사의 향기-大, 小

달라이라마의 행복이야기-大, 小

법음이 있는 산사-大, 小

수행의 길-大, 小

연꽃의 향연-大, 小

아름다운 절 -大, 小

피안으로 가는 길-大, 小

탑이 있는 풍경-大, 小

적멸보궁과 기도처-大, 小

관음의 미소-大, 小

산사에 피는 들꽃-大, 小

선승의 노래-大, 小

깨달음의 미소-大, 小

세계불교 성지순례 -大, 小

염화미소-大, 小

하얀꿈 - 小

규격 특대호-국전 (91.9×61.5cm) | 한지-국 3절 (30.5×63cm) | 大-국 6절 (30×31cm) | 小-4×6 12절 (25.5×26.5cm) | 탁상용 (21.5×15cm) | 미니 차량용 (8.8×9.5cm) | 메모 수첩용 (9.5×13.5cm)

감로기획 서울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조계사 옆) TEL. (02)723-4306 FAX. (02)738-8682 www.gamro.net

전국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할 뿐’ ‘오직 모를 뿐’ 오직 그렇게…

무상사 일요 참선법회

“Put your hands on your belly… and just look inside and have your self-questions(두 손을 배위에 얹고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며 ‘참 나’에게 질문해보세요).”

故 숭산 스님(前 화계사 조실, 1927~2004)의 제자 중 몇 안 되는 흑인제자인 관행 스님이 입승으로 충청남도 계룡시 무상사 선원동에서 참선을 지도 한다. 새로 참선을 배우고자 하는 불자들에게 어떻게 마음가짐과 자세를 갖춰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해준다.

국제선원 무상사(주지 대진)는 매주 일요일 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외국인 스님들이 주관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관음선원 창시자인 숭산 스님은 “선은 ‘모르는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절을 하거나 염불을 할 때, 또는 앉아서 명상을 할 때, 항상 이 ‘모르는 마음’을 유지해야한다고 했다.

이곳 무상사 선방에 ‘모르는 마음’을 갖기 위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이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 미국, 라오스, 인도네시아 등에서 온 15명의 수행자들은 각자 준비한 법복을 차려입고 조용히 좌복을 깔아놓은 뒤 참선에 든다.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것을 보니 마치 ‘참선 올림픽’을 하는 것 같다.

나도 한 보살 옆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조용히 좌선에 들려는 순간 아차 싶었다.

‘아! 사진을 먼저 찍고 앉을 걸…. 지금이라도 찍을까? 수행하는 걸 방해하면 싫어할텐데….’

취재차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라 현장감을 살리는 사진들이 꼭 필요하다. 좌복에 앉자마자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이따 쉬는 시간에 참여자들에게 요청한 뒤 설정사진을 찍을까? 아니면 지금 찍을까? 지금은 시작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아직 참선에 집중이 안 될거야. 아니면 나중에 참선에 몰입한 모습을 찍을까?…’ 등. 선방에 더 빨리 도착해 수행자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내 자신만 질책한다.

참선 수행자들이 모두 한국인이었다면 양해를 구하는 표시를 한 뒤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과 함께 하니 부담이 됐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할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박힌 서양인이 한국불교를 배우러 왔는데, 괜히 나 때문에 안 좋은 기억만 갖고 가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찍자!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번쩍 일어나 수행자들의 참선모습을 사진에 담았다.

숨소리, 발자국소리도 내지 않으려고 나름(?) 조심스럽게 사진을 찍은 뒤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숨을 참고 자세를 구부리고 사진을 찍어서인지 숨을 헐떡였다. 이 소리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 조심히 숨 고르기만 하다 첫 번째 참선 시간이 끝났다. 5분 포행을 한 뒤 또 다시 참선에 들었다.

이렇게 참선 30분, 포행 5분을 2회씩 한 뒤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과 관행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무상사 조실 대봉 스님(좌)과 관행 스님(우)이 일요 참선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다.

> “선 수행 할 땐 마음 속 어떠한 생각에도 ‘착’을 두지 말고 그대로 맡겨 흘러가게 놔둬라”

#오직 할 뿐(Only just do it)

관행 스님은 참선 수행에 대해 설명을 한 뒤 ‘오직 할 뿐’을 강조하며 일화를 들려줬다.

미국의 선 센터에서 수행을 하던 관행 스님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는 바람에 수행은 제쳐두고 수도관부터 고쳐야 될 상황에 처했다. 다음날 많은 사람들이 숭산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오기에 스님은 밤새 수도관에 물이 새는 것을 막는 데에만 집중했다. 평소라면 “내가 왜 이 걸 해야하나. 수행 해야 하는데…”하며 망상이 밀려왔을 테지만 오직 수도관을 고치는 데에만 ‘집중’을 하니 짜증과 분노가 생기기는커녕 즐겁게 수도관을 고쳤다고 한다.



대전대학교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틱 · 알렉스 · 케빈(왼쪽부터).

“여러분이 상점에서 물건을 산 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뒤에 줄을 선 사람이 새치기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화가 나죠?”

관행 스님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직 할 뿐’만을 강조했다. “내가 이 상점에서 온 목적은 오직 물건만을 살 뿐이에요. 그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타인이 새치기 하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죠.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무상사는 매주 일요일 故숭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받은 외국인 스님들이 주관하는 참선법회를 연다.

#안과 밖이 뭐죠? (What's inside, what's outside?)

관행 스님의 법문이 끝난 뒤 대봉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질의응답시간으로 구성된 시간이었다. 그날의 화두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던져준 셈이 됐다.

미국에서 온 윌리엄(37 · 영어교사)이 “일요일마다 참선을 하는데 오늘 참선을 하던 중에 누군가가 사진을 찍어서 내면으로의 집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고 물었다. 순간 미안하면서 창피한 기분이 들었다.

대봉 스님은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질문자에게 다시 질문을 했다. “What's inside, what's outside?, What's the boundary? (안과 밖이 뭐죠? 우리가 부르는 그 안과 밖의 경계는 무엇이죠?)” 순간 대중들의 표정은 황당해 하는 듯 했다.

스님은 “분별하는 마음은 오로지 인간에게만 있다. 지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만 한다.

태양은 아무 불평 없이 우리에게 빛을 주고, 물 또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만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만 분별하는 마음, 주와 객으로 나누는 마음을 갖고 내 기준에서 생각하고 ‘상(相)’을 세우기에 분노와 화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님은 “선 수행을 할 때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생각에도 착(着)을 두지 말고 그대로 맡겨 흘러가게 놔두라”며 “‘나는 행복하고 싶어, 나는 안정을 찾고 싶어’ 이러한 생각도 모두 집착이니 오로지 지금 하는 것에 집중해서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의 마음으로 임하라(Just do it)’”고 강조했다.

#한국에 온 수행자들

아시아에 많은 불교 국가들이 있지만, 왜 이들이 하필이면 대한민국에 와서 참선수행을 하게 됐는지 그 인연이 궁금하고 신기했다.

대봉 스님의 법문 시간에 질문을 했던 윌리엄은 미국 펜실바니아에서 온 영어교사로 한국에 온지 6년째다.

그는 “10년 전에 괌에서 우연히 한국 불교를 접하게 됐고, 한국에 일을 하러 오게 되면서 한국 스님에게 무상사를 소개받고 일요참선에 참석하게 됐다”며 “참선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안정되고 기분이 좋아져 시간이 날 때마다 올 생각이다. 오늘 당신이 사진을 찍은 것은 나에게 경계가 와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참선 중간에 쉬는 시간, 법문이 끝나고 나서도 함께 붙어 다니는 세 청년이 눈에 띄었다. 알렉스(22 · 말레이시아), 틱(23 · 라오스), 케빈(21 · 인도네시아)은 대전대학교에서 교육하는 ASEAN(동남아시아 국가연합)국제교류프로그램의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온 청년들이다.

알렉스는 독실한 불자집안에서 태어나 한국에 와서도 절, 참선 수행 정진을 계속 한다고 한다. 그는 “무상사가 대전에서 버스타고 1시간 거리에 있지만 매주 일요참선에 참석한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줘 오늘 케빈을 데리고 왔다”고 설명했다. 케빈은 이슬람교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온 학생이지만 집안이 불교라 평소 참선을 해왔다고 한다.

6개월 전 라오스에서 스님으로 지내다가 한국에 IT관련 전공을 공부하기 위해 온 틱은 “라오스에서도 항상 수행을 해왔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 매우 좋다. 10월 2~4일 무상사에서 하는 추석 참선 정진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린 나이에 타지에서 공부하느라 힘이 들 텐데 매주 사찰을 찾아 수행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참선수행을 하는 것이라 솔직히 ‘내가 얻는 것이 뭐가 있을까’하는 생각뿐이었지만 법문을 듣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다. 참선 전 나는 좌복 위에 앉아 전전긍긍하며 사진촬영고민을 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행동이 법문의 주제가 됐고 참석한 대중들에게 좋은 교훈(?)이 됐다.

어차피 일이 원만하게 잘 해결될 것을 나는 속으로 애태우며 망상을 피운 것이다. 스님의 법문대로 ‘오직 모를 뿐, 오직 할 뿐’의 마음으로 그냥 사진을 찍고 그냥 참선을 했더라면 가슴 졸이는 일 없이 수월하게 했을 텐데 말이다. 이것도 다 지나간 일이다. 현재에 집중해 나는 오직 기사만 써야할 뿐.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업장소멸 법륜대 복장 행사 개최!”

지금 법당 탁자위에 한분 한분 명단이 적힌 경책이 쌓여가는 이유가 있다. 부처님이 새겨져 황금빛으로 빛나는 초소형 경책을 법륜대에 복장하기 위해서다. 집안을 위한 금강경과 건강발원으로 약사경, 수험생을 위한 반야심경에 이름을 붙여 복장하는 독특함이 있다고 한다.

한분 한분 제각기 다른 소원을 가지고 돌릴때마다 공덕을 쌓느라 법당에 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쪽 법륜대의 1080분 명단이 돌아감은 물론 이름 수대로 경책을 할 수 있어 이 시대 포교와 사찰경제 지킴이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 **법륜대 예약 대축제** (전시장에 직접 방문하시는 분에게 드리는 혜택)

1. 순금 개금비만 도착 시 지불하시고(봉안시) 나머지는 연중 4회 (정월, 봉축, 백중, 동지)로 나누어 지불하는 혜택을 드립니다.
2. 한분 한분 명단 및 주소를 적을 수 있는 카드형 권선문을 드립니다.
3.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춤식 소법륜형, 보급형, 특대복장봉안작품이 있습니다.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에게 특별한 선물과 경책 견본을 드립니다.

한분 한분 수작업으로 법당 탁자 크기에 맞추어 직접 봉안하여 드립니다.

불사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중생의 업장 소멸법륜대를 가장 평안하게 봉안 할 수 있는 절묘한 기회입니다.
양쪽 법륜대 1080분의 명단과 복장 불사로(일억원) 사찰경제 기반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문의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생산지 :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4

병 없는 세상도 마음이 만든다

[원문]
제성자풍수불호(諸聖慈風誰不好)
명왕원해최무궁(冥王願海最無窮)
오통신속우난측(五通迅速尤難測)
명찰인간순식중(明察人間瞬息中)
–서울 정릉 봉국사 명부전

[번역]
모든 성인의 자비로움 누군들 좋아하지 않을까
명왕의 서원 바다같이 무궁하고
오통 신속함 헤아리기 더욱 어려우나
인간 세상 밝게 살피심은 순식간이네

[선해(禪解)]
요즘, 세상의 가장 큰 이슈는 신종인플루엔자와 자살자 급증이다. 7백여 전 인간에게 가장 무서웠던 것은 유럽의 수십만 명을 죽음으로 내 몰았던 흑사병(黑死病)이었다. 1347년 상선 함대 하나가 시칠리아의 메시나 항에 당도했다. 이 배의 선원들은 이상한 전염병에 걸려 있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사망하였다. 이것이 유럽에 흑사병이 전파된 첫 계기였다.

이후 인간의 의학은 날로 발전하여 그 어떤 무서운 전염병도 모두 낫게 만들었다. 하지만 20세기의 천형(天刑)이라 불리는 에이즈는 인간의 힘으로써는 고칠 수 없는 병이 되어 버렸으며 요즘에는 감기의 변형인 신종인플루엔자가 나타나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바이러스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의하면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감염된 환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고 한다. 전 세계적으로 환자수가 28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3,300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그 환자수가 6,000명을 육박하고 있고, 6명이 현재 사망했다고 한다. 인간의 의학 앞에서 절대 무기력했던 바이러스들이 새로운 무기를 장착하고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 해서는 안 될 하나의 사실이 있다. 이 사회는 더불어 세상을 살아간다. 때문에 항상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경우에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화장지를 버린 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요즘 절에서는 매주 법회를 많이 한다. 또한 산사 음악회나 템플스테이를 많이 한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나 몸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남을 위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 또한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자비(慈悲)정신이 더욱 요구된다. 남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만이 공덕(功德)이 아니라, 남을 위한 마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바로 공덕이라는 말이다.

두 번째로 안타까운 것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젊은이들의 자살률이다.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가 세계에서 첫 번째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연이어 일어나는 자살사건은 마치 한국사회가 '자살 바이러스'에 감염된 듯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키며 사회적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사회에서는 하루 36명이 자살했다고 했다. 이는 지난 10년 사이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이다. 자살의 원인은 대개 개인적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가히 충격적이다. 과연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는 대책을 내 놓아야 한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입시위주의 교육, 농어촌 등한시, 개발에만 의존한 정책들이 이러한 젊은이들을 삶의 밭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야기 시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말하자면 개발과 정책이 선진국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삶의 질이 선진국인 나라가 되기 위해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옥 없어지기 전 성불 안하겠다는 지장보살 원력
계율 지키며 사는 것이 청정불국토 만드는 지름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자살도 하나의 죄업(罪業)이며 살생(殺生)이며 가족에게 큰 죄를 범하는 일임을 명심해야한다. 생명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는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자살은 반불교적 행위다.

오늘의 주련은 산승(山僧)이 머물고 있는 봉국사이다. 그동안 먼 곳의 사찰들에 대한 소개를 했다.

봉국사(奉國寺)는 나라를 다스리는 절이란 뜻으로 성보문화재가 11점이나 있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의 말사이다. 1395년(조선태조4) 무학대사 자초(自超)가 세운 사찰로 창건 당시에는 약사불을 모시고 약사사(藥師寺)라 불렀다.1468년(세조 14)에 중건하고 1669년(현종10) 태조의 두 번째 비 신덕 왕후(神德王后)의 능인 정릉을 단장하면서 이 절을 원찰로 삼았다.

이 때 정자각(丁字閣)과 안향청(安香廳), 전례청(典禮廳)등을 지었다. 1882년(고종19) 임오군란 때 불에 탔으나 이듬해 청계(淸溪)와 덕운(德雲)이 중창하였고 1931년 칠성각, 1938년 염불당을 세웠으며 1977년에는 일주문 옆에 2층 누각을 짓고 아래층을 천왕문, 위층을 일음루(一音樓)라고해 종루를 삼았다. 1994년 안심당을 짓고 현재에 이른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망월보전, 염불당 용왕각, 명부전, 산성각, 독성각과 요사채 등이 있다.

봉국사의 명부전은 앞면 3칸, 옆면 2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1989년에 운담(雲潭), 영암(永庵), 취봉(翠峰) 스님이 중건하면서 시왕탱을 함께 봉안하였다. 안에는 지장삼존과 시왕, 각 2위씩의 판관 · 녹사 · 시자, 그리고 2위의 인왕상을 모시고 있으며 1885년에 금곡(金谷) 스님이 그리신 지장탱이 봉안되어 있다.

명부전(冥府殿) 편액 글씨는 드물게 붉은 색 바탕에 세로로 썼다. 단정한 팽서체로 주련과 마찬가지로 근대에 쓴 것이다. 주련은 전부 네 점이 걸려 있는데, <석문의범(釋門儀範)>에 있는 '중단청(中壇請)'의 가영(歌詠)을 쓴 것인데 이 책은 안진호(安震湖) 스님이 1931년에 편찬하신 것으로 현행 한국불교의 의식(儀式)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비불교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비가 요망되고 있다고 한다.

'**제성자풍수불호 명왕원해최무궁**: 모든 성인의 자비로움 누군들 좋아하지 않을까 명왕의 서원 바다같이 무궁하네.'

우리는 석가모니 · 공자 · 예수 · 소크라테스를 사대 성인(聖人)으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부처님은 그 어떤 성인보다도 넓고 깊은 바다와 같이 무궁한 서원을 지니고 있다는 경구(警句)이다. 말하자면 그 서원은 모두 중생들이 병을 앓지 않고 천만 복되게 살도록 인도해 주고자 함이다.

'**오통신속우난측 명찰인간순식중**: 오통의 신속함 헤아리기 더욱 어려우나 인간 세상 밝게 살피심은 순식간이네.'

오통이란 오계(五戒)를 어기는 다섯 가지 악행(惡行)인 살생(殺生), 투도(偸盜), 사음(邪淫), 망어(妄語), 음주(飮酒) 즉 이 오악(五惡)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서 받는 고통을 말하는데 이것을 인간의 마음으로서는 헤아리기가 힘들지만 부처님이 인간 세상을 밝게 살피는 일은 찰나에 있다는 말씀이다.

결국 부처님이 세운 서원은 중생들이 오악을 통해 지은 죄를 씻고 복되게 살게 해달라는 데에 있다. 이것이 바로 '지옥미제(地獄未除) 서불성(誓不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옥이 다 없어지기 이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말씀이다. 고통 속에 파묻혀 있는 중생을 모두 구제하여 영원의 안락을 얻도록 해준 다음 더 이상 구제할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없을 때 자기가 성불하겠다는 지극한 서원이 바로 부처님인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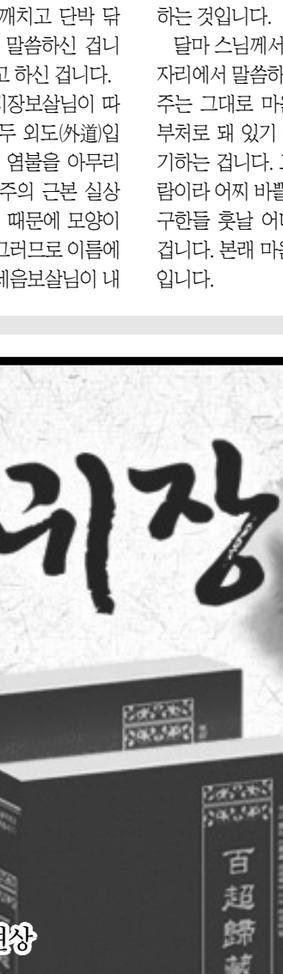
'습' 다하면 저절로 밝아진다

[원문]
一切衆生但見本性 餘習頓滅 神識不昧 須是直下便會. 只在如今 欲眞會道 莫執一切法 息業養神 餘習亦盡 自然明白 不假用功. 外道不會佛意 用功最多 違背聖意. 終日驅驅念佛轉經 昏於神性 不免輪廻. 佛是閑人 何用驅驅 廣求名利 後時何用.

"일체중생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한꺼번에 없어지고 의식이 맑아지리라. 참으로 도를 알고자 하면 한 가지 법에 집착하지 말고 업을 쉬어 정신을 길러야 하느니라. 나머지 습(習)이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헛되이 공부할 필요가 없느니라. 외도(外道)는 부처님의 뜻을 모르므로 노력은 많이 하지만 거룩한 뜻에 위배되므로 종일토록 열심히 염불하고 경을 읽어도 정신이 혼미하여 윤회를 면하지 못하느니라.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바쁠 필요가 있겠으며,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쓰겠느냐.

[해설]
'일체중생이 본성을 보기만 하면 나머지 습기가 한꺼번에 없어지고 의식이 맑아지리라.'

달마 스님은 본성을 한번 보기만 해도 업이 맑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집착을 하면 안된다고 말합니다. 선이다, 염불이다, 꼭 한 가지에만 국집해 고집하면 법에 집착하는 것이 됩니니다. 모양이 없는 마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고, 물질이 아니므로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정진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수행이 최고다, 무슨 경이 최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면 집착이니까, 도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오직 하나의 마음을 써야 되며 하나라는 생각도 끊어져야 됩니다.


일본 백은(白隱) 선사 작 '달마도' (영청문고 소장)

'나머지 습(習)이 다하면 자연히 밝아져서 헛되이 공부할 필요가 없느니라.'

습기가 녹아져 없어지면, 일상삼매(一相三昧)에 마음이 있으니 닦는다는 생각도 끊어졌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스님께서 돈오돈수(頓悟頓修: 단박 깨치고 단박 닦음)를 주장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깨달으면 닦을 것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마음 밖에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찾는 것은 모두 외도(外道)입니다. 이런 마음으로는 경을 읽고 염불을 아무리 해도 이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實相) 자리는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없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름에 끄달려 가고 형상을 생각해서 '관세음보살님이 내 앞에 나타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런 수행을 외도의 행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이런 수행을 한들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閑人)이라 어찌 바쁠 필요가 있겠으며,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쓰겠느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중생과 제자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시는 등 매우 바쁘게 사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했을 때, 이 분은 화신(化身)부처님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방편으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물질의 세계는 시간적으로 보았을 때 항상 그대로인 것이 없기 때문에 당신 육신을 보고 부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이 있다는 말은 업(業)이 남아있다는 얘깁니다. 육신은 생사(生死)를 따르기 때문에 진짜 부처가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본래 마음 자리에서는 불생불멸(不生不滅: 태어남도 죽음도 없음)인 것입니다. 다만 육신으로 출현했던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러나 진짜 석가모니 부처님, 본래 법신(法身)인 마음자리에서는 조금도 바쁘지 않다는 얘깁니다.

<금강경>에 보면 "일체 중생은 이미 제도(濟度)가 다 끝났다", "제도할 중생이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부분들은 마음자리에서 보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질은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느낄 뿐입니다.

<금강경>에서 제자 수보리에게 부처님께서 "만약에 네가 32상 80종호를 보고 부처를 볼 수 있겠느냐?"하고 물었는데, 수보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32상 80종호를 통해서는 부처를 볼 수 없습니다"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32상 80종호라는 것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부처가 아닙니다. 진짜 부처는 '본래 마음'을 부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처 역시 본래 마음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보면 우주는 그대로 마음으로 되어 있고 우주가 그대로 부처로 돼 있기 때문에 제도할 대상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라 어찌 바쁠 필요가 있겠으며, 명예와 이익을 구한들 훗날 어디에 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본래 마음자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이 넓은 우주에서 숨 쉬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상구보리 하화중생 실천 '고아들의 대부'로 불려
한영 · 지암 · 서옹 스님 은혜 평생 잊어본 적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여열반을 아난존자가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자, 땅이 크게 진동하더니 천둥이 울렸다. 사라쌍수에 때 아닌 꽃이 만개하고, 하늘의 만다라화가 여래를 공양하기 위해 허공에서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만월의 달빛이 환히 내리비치는 한밤중에 만다라화가 춤추듯 허공에서 하늘거리며 내려온 그 날의 정경을 광주 향림사의 와불(臥佛)은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천의에 내려앉은 꽃잎들, 반개하신 눈 아래 적정(寂靜)의 안온한 미소를 띤 열반상 앞에 서니 부처님께서 이천오백 년 전에 열반하신 것이 아니라 방금 전에 열반에 드신 것처럼 아련한 그리움과 슬픔이 밀려왔다.

천운 스님께서는 작년에 부처님의 열반상을 모시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스님의 원력대로 불사는 원만히 진행돼왔고 올 유월에 와불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고 염불하니 건강이 허락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수행정진하고 있으니 이 또한 기쁜 일이라면서 환하게 웃었다.

스님이 열넷 살 때, 속가 아버지는 학명 스님을 받들어 수행했는데, 그때부터 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금강경>을 열심히 독송했다. 그런 인연으로 <금강경> 독송을 평생의 수행으로 삼게 됐으며, 20세 전에 <금강경>을 다 암송할 수 있었다. <금강경>과의 특별한 인연은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을 만나면서 더 두텁게 이뤄졌다.

"<금강경>은 대승시교이기에 참으로 중요하며,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수승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존자에게 '<금강경>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하면 성불한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금강경>은 공(空)의 원리와 실천을 가르치고 있는 경이지요. 그리고 번뇌를 떨쳐버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가를 설하고 있는 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사인 지암 스님은 하루에 <금강경>을 네 번씩 독송하셨는데, 외출하실 때에도 경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지니고 다니실 정도였다. 버스나 기차 속에서 또는 길을 가는 도중에도 시간에 맞춰 독송하셨다. 향림사의 가풍은 참선과 <금강경> 독송인데, 지암 스님의 수행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지암 스님께서 실천해 보이신 그 진지함과 엄숙함은 그 자체로 신앙이요, 수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천운 스님은 평생의 <금강경> 독송을 회향하는 의미로 최근에 <금강반야바라밀다경> 강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논리적이며 선적(禪的) 지혜가 번뜩일 뿐 아니라, 여러 경전과 불교 전반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책이다. 스님의 평생의 수행도 엿볼 수 있다.

천운 스님께서 <금강경> 32분(三十二分)중 가장 귀하게 새기는 것은 제5분(五分)에 나오는 사구게(四句偈)이다.

범소유상 개시허망(凡所有相 皆是虛妄)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무릇 존재하는 바의 모든 형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측면에서 보면 곧 여래를 보리라.

"부처님께서 32대인상(三十二大人相)을 구족하셨다는 사실에 당시의 불교도들은 지나치게 감동하고 있었으므로 부처님께서 어리석은 중생들이 32인상에 현혹돼 법신불의 참모습을 깨닫지 못할 것을 크게 염려하신 것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32상은 수행의 결실로 얻어진 육신의 한 모습일 텐데, 그것으로 여래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는 없음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32상을 구족한 것으로 여래를 본다면 이는 다 허망한 것이지만, 32상을 구족하지 아니한 면에서 본다면 이는 허망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상(相)이란 것은 기만(欺瞞)적인 것이니 상 아닌 것으로 보아야 진실한 절대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천운 스님은 출가수행자로서 불조의 뜻을 받들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그대로 실천해 오신 분이다. 안으로 끊임없는 정진을, 밖으로는 복지 원력을 세워 쉼 없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계시기에 참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도 많다. 광주 향림사를 중심으로 해 사회복지 법인 향림원을 설립해 어린이집, 유치원, 불교대학,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신용협동조합, 출판사 등 10여 개의 복지관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님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키워 사회로 배출한 보살의 삶을 살아오셨기에 수행승이란 이름 위에 '고아들의 대부'라는 이름 하나를 더 얻게 됐다. 한국전쟁으로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으며, 타종교 시설을 통해 외국으로 입양돼 가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았다. 그것이 가슴 아파 하나, 둘 돌보기 시작한 것으로 스님의 손을 거쳐 간 아이는 200명이 넘는다. 그중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이십여 명에 이른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는 다섯 시 아침 예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예외이고요. 예불 후 아침 공양 전에 한문 열 자씩을 가르치고 나서, 아침 공양 후에 책가방을 챙겨서 학교 갈 준비를 합니다. 내가 몸소 승차권을 나누어 주면서 '차 조심, 오락실 조심, 공부 잘 하라'고 일일이 당부를 했어요.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반복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나의 도반이나 신도들은 참으로 어지간하다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나만의 사랑법이지요.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줘야할 것은 육체의 성장과 함께 정신적인 자양분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즈음도 향림사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완전한 고아는 없고 문제 있는 부모에 의해 방기돼 만들어진 고아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인륜마저 함부로 끊어버리는 몰인정한 사회문제를 꼬집었다.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의 문제는 결코 나와 그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지혜롭지 못하고 나쁜 습관을 익혀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기에 일어나는 모두가 짓고 모두가 받는 공업(共業)입니다. 우리 모두는 청정심을 회복해 모든 인류를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대비 정신을 익혀야 합니다."

스님은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연기법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기에 남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고, 남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된다'고 했다.

아이들에 대한 스님의 교육열은 누구도 따라 올 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가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를 시켜줬다.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박사과정까지 마치게 해줬고, 유학을 원하면 유학도 보내줬다. 사회 곳곳에서 교사, 의사, 사업가 등 제 몫을 다하고 있다면서 "박사도 여럿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현보살이 현현하신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 많은 아이들의 학비를 조달하려면 참으로 힘들었을 것 같다고 했더니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저절로 다 되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실물크기 (소) 3.5 × 5cm
(중) 5 × 7cm

금강경 천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보문품
묘법연화경 요품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복장의식 불량 사 소장용 영가천도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 / 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55,000원
10mm×10mm×12mm 65,000원
12mm×10mm×12mm 85,000원
흑단무늬목염주는 가격이 저렴하여 보시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할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 문의전화 02-722-1850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 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지금 여기서 '열반' 실현하라



피지요"라고 하셨다.

스님에게는 일평생 배움을 주신 박한영 스님, 지암 스님, 서옹 스님 세 분의 스승이 계신다. 근대의 대선지식이었던 그 분들의 은혜를 평생 잊어본 일이 없으며, 해남 대흥사에 세 분의 부도탑을 세웠다.

"박한영 스님에게서는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심이 무엇인지 배웠고, 지암 스님에게서는 이판과 사판을 다 배웠어요. 지암 스님은 종로구에 조계사를 건립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총무원 중심체제로 종헌종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각처에 포교당 건립과 유치원 건립 등 불교의 현대화에 노력하셨어요. 저는 지암 스님으로부터 무(無)자 화두를 받아 참선수행을 하게 됐으며, 포교에 뛰어든 것도 은사님께서 '한국불교는 대승불교이니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뜻을 신도들에게 실천하고 너희들 스스로 모범을 보여라' 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던 유훈 때문이지요."

도솔암에서 대교과를 비롯해 내전과 외전을 두루 공부했다. 선암사에서 강사로 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곳에서 9년 남짓 강사생활을 하다가 선방으로 돌면서 참선을 했다. 조계산 토굴, 도갑사, 대흥사, 선운사 선원을 전전하며 10여 년간 참선을 했다. 목에 묵언패를 걸고 몇 년 동안 묵언정진을 한 것이다. 천운 스님의 이런 치열한 정진이 오늘의 스님을 있게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암 스님은 일제치하의 살벌한 상황에서 겉으로는 친일 하는 척했지만 실은 독립자금을 많이 대신 분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김구 선생의 요청에 의해 임시정부 수송사령관의 중책을 수행하시면서도 조금도 임시정부의 요원이라거나 독립운동가라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후세의 사람들이 이를 오해해 친일 승려로 매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어요."

'차별 없는 참사람'의 세계를 구현하신 서옹 스님은 "승려는 부처님의 계율에 일치되는 생활을 해야 하며, 증득한 깨달음이 있다면 중생들에게 회향될 수 있도록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간곡히 당부하셨다. 지계사상이 투철했던 서옹 스님은 지계정신을 계승해 줄 것을 당부하시면서 천운 스님께 전법게(傳法偈)를 내렸다. 전법게 중 일부인 다음의 송(誦)은 천운 스님 일생의 수행송이 됐다.

벽해심저니우규(碧海深底泥牛吼)
홍염경중목마시(紅焰曛中木馬嘶)
푸른 바다 깊은 밑바닥에서 진흙소가 울부짖고,
붉은 불빛이 환히 밝은 가운데 목마가 흐느껴 우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술 먹는 것, 담배 피는 것, 화투치는 것, 약으로 먹는 것은 모르지만 고기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 승려가 아니지요. 상좌들에게 그런 짓 하면 나와의 인연은 끝이다 그래요. 계(戒)는 흔히 그릇에 비유되잖아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듯이, 계율을 지키는 것은 튼튼한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계행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안정을 속히 얻어 혜가 밝아져요. 그릇이 온전해야 물이 차고, 물이 맑아야 달을 볼 수 있지요."

불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금강경> 한 구절을 일러주셨다.

"부처님께서는 '일체의 선법(善法)을 행함으로써 철저히 깨닫게 된다' 고 했어요. 선법이란 수행하는 부처님의 정법(正法)을 의미하지만, 그러한 선법이 우리들 일상의 생활에도 반영돼야 진정한 선법이라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환희심을 낼 수 있는 언행을 실천하는 것이 선법이며, 자신의 이익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말과 행동이 선법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래가 선법이라 설했지만, 그것은 이름이 선법일 뿐' 이라 했어요. 범부들은 조그만 선행을 하고서도 내가 지금 선(善)을 행하고 있다는 아상을 잔뜩 갖게 되는데 부처님이 계시는 절에 와서 그런 아상을 부리면 안 되지요."

선을 행하되 아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스님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이 이타심(利他心)이라 했다. 남을 위한 이타행을 통해서만 자신의 교만심과 아집을 떨쳐낼 수 있단다.

매일 아침에 단 몇 분간만이라도 앉아 호흡을 세면서 명상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자신을 이 우주의 주인공으로 확립시키는 일이 된단다. 이 천지간에 눈을 감는 날까지 단 일초도 쉬지 않고 들숨날숨을 반복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서 살다보니 호흡하는 주체를 잊어버린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해 좌복 위에 앉아 볼 일이다. 이 넓은 우주에서 한 숨 들이 쉬고 내 쉬는 이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주 공간에서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데 끄달릴 것이 무엇 하나 있겠는가? 그대로가 날마다 좋은 날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다.

글·사진=문윤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천운 스님은 ...
1947년 월정사에서 지암 스님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58년 선운사에서 지암 스님 계사로 구족계 수지. 1960년 선운사 도솔암에서 대교과 수료. 그 후 송광사, 용암사, 도갑사 등에서 수선안거. 조계종 포교원 포교대상 수상. 교정대상 자비상 수상. 지금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원장이며, 대흥사 조실이다. 광주 향림사에 주석. 저서로는 <금강반야바라밀경> <지혜와 큰 사랑을 그대에게> <쉼없는 보살행>등 다수 있다.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61. 한국의 용수보살 고익진 교수

배는 불쑥 나오고 작은 키에 몸은 까장까장 하신 양반이 학교 정문만 올라서면, "아이구 숨차" 하고 한참 섰다가 걸었다.

고익진(1934~1988) 교수는 1934년 전남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의과에 진학했으나 병을 얻어 10년간 병상생활을 했다. 병원에서 치료말기의 판정을 받고 산사에서 요양하던 중 <반야심경>을 3년간 연구하고 눈이 열려 동국대학에 입학했다.

31세에 학교에 들어 왔으니 때가 많이 늦은 것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남다른 연구성과를 보여 1980년 동국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동국대학교 출판부 일을 볼 때는 '한국불교전서' 편찬을 맡아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도 했다.



"한국불교 걸사정신 부족" 지적… '고익진 불교' 별명 얻어

우리와의 인연은 '두토회' 에서 이뤄졌다. 불교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만나 모임을 가졌는데, 둘째 토요일에 모이기 때문에 '두토회' 라 한 것이다. 지금도 이 회는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모이면 그 동안 안부를 묻고, 한 달 동안에 일어났던 불교계 사건들을 진맥(診脈)하고, 또 여기 알맞은 처방을 생각해 본다. 그러나 고 교수는 늘 말한다.

"한국불교는 천만번 이야기 해보았자 논리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원시근본불교사상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여야 한다. 걸사정신(乞士精神)이 부족하기 때문에 돈(젙)과 사랑(명예)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다. <아함경> 법상을 봐라. 7가식을 하지 않고 오후 불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 비구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 그러니 남방불교 스님들이 와서 보고 '한국에는 명자비구 뿐이다' 하고 핀잔을 주고 가지 않는가!"

당신의 <아함법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삼법인설에 대한 비판> 같은 논문이 나오면 모임 자체가 학술논문발표회가 된다. 나라가 불안할 때는 "불교사상이 자비구 뿐이다' 하고 핀잔을 주고 가지 않는가!"

당신의 <아함법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삼법인설에 대한 비판> 같은 논문이 나오면 모임 자체가 학술논문발표회가 된다. 나라가 불안할 때는 "불교사상이 신라 삼국통일에 미친 영향" "종교간의 대립과 불교적 관용"에 관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잘못하면 한국은 종교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극렬한 논설을 펴기도 했다.

특히 말년에는 원효 대사에 관한 논문을 많이 썼다. <기신론 별기> <진속(眞俗) 무애관> <실천윤리> 등은 모두 원효 대사에 대한 연구이고, 박사학위논문은 <한국고대불교사상사>이다. <원묘의 백연결사>와 <서명유식의 기본입장>을 발표할 때는 한국불교에 대한 차별의식이 뚜렷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없었다. 빨리어, 산스크리트, 한문, 일어, 영어 등 5~6개 국어에 정통해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데는 누구도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때는 '고익진 불교' 라는 별명까지 생겼으나, 평소 이렇게 해명하곤 했다.

"나는 내 불교를 고집하지 않는다. 부처님 당시 불교에 우리 지역에 맞는 불교를 하되,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신라나 고려 때 불교를 지금 와서 그 언어와 행습으로 강요를 하면 누가 따라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원시근본불교를 바탕으로 신라 원효불교를 양 옆으로 하여 이 시대에 알맞은 통불교 · 실천윤리를 강조한 것이 고익진 불교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곤 했다.

"사실 나는 전생부터 병이 없이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호를 병고(丙古)라 했는지도 모르겠다."

어머니께서는 이제 학자 노릇 그만 하고 고향에 돌아와 조용히 요양할 것을 바랐지만, "한번 받은 몸은 언젠가는 가고 맙니다.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하다가면 그만입니다"하고 기필코 내려가지 않았다. 그의 학문은 시간이 갈수록 높고, 넓고, 깊어져 그 논문을 읽는 사람까지도 삼매에 빠지게 하는 힘이 있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픽 웃으면서, 늘 이렇게 강조하곤 하셨다.

"그럴 수가 있간디. 더 좀 깊고 넓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같은 논리가 나온 거야. 한국불교는 이제부터 새로워져야 하니, 자네들은 여러 말 말고 10년 공부에 우십년 공부(又十年工夫)해야 돼."

그래서 그의 문하생 가운데 전재성 같은 분이 나와 빠알리어 경전을 새롭게 번역해 아함법상의 논리를 시대에 맞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게 공부와 학문을 둘로 보지 않고 평생 한 길로 꾸준히 매진해 후학에게 모범을 보인 결실이 아닐 수 없다.

國立 이화학연구소
日本 두뇌집단 최우수 걸작품
79년의 연구역사
23개국 국제발명특허

유산균생산물질 "세이겐"은
불교경전에서 유래

불교에서는 종종 "제호를 맛본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반열반경" 을 현대어로 번역하면
"제호" 는 맛이 최고로다,
이를 취하는 자는 만병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모든약의 효험이 이 속에 함께 있도다라는 뜻이 됩니다.

주문 · 문의전화 02)3448-9100, 070-7410-2007 (주)세이겐코리아
계좌안내/국민 : 853801-04-045718

유산균생산물질로 불임을 극복한 체험담
유산균생산물질 임상보고서
유산균생산물질로 아토피를 극복한 체험담

유·산·균·혁·명!
면 역 력
선물시대
"세 이 겐"



일본 명품 완 제 품

세이겐골드
₩198,000(90포/BOX)

자세한 임상 발표 동영상과 보고서는
www.seigen.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력! 임상실험 결과가
원천기술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피로 · 무력감으로 오는
식욕부진호전 100%

2500년전 불교경전 "대반열반경" 원문
"세이겐" 은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乳より酪を出し、酪より生酥を出し、生酥より熟酥を出し、熟酥より醍醐を出す。醍醐は最上なり。若服する者有らば衆病皆除く。
大般涅槃経第十三より

「제호는 최상의 것으로 이것을 음용하면, 모든 병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리고 다른 약은 일체 필요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락 → 생소 → 숙소 → 제호

유산균생산물질로
암, 난치병을 극복한 체험담 2,3,4권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15>

현대경제 파탄으로 불교경제학 관심 높아져

주류경제학 토대위에 효과적인 불교사상 적용이 과제

전회에 소개한 바 있듯이, 불교경제사상 혹은 불교경제학이 뜻 있는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기 시작한 지는 이미 30여년을 넘기고 있다. 불교경제학에 대한 관심은 이제 한 층 높아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왜 불교경제 사상인가? 그 기본적인 배경으로서 기존 현대경제학과 미국식 자본주의의 파탄을 들지 않을 수 없다.

현대 경제학의 파탄론이 제기된 것은 영국의 경제학자 로빈스(Robbins. L.G.) 여사가 1971년 미국 경제학회 연차대회에서 '경제학의 제2의 위기'란 주제로 케인즈주의 경제학에 관해 비판과 경고를 하면서부터 경제학의 위기론이 되풀이 되어 제기됐다. 영국 왕립경제학회 회장이었던 브라운(Brown. E.W.) 교수도 왕립경제학회에서 한 '경제학의 미발달'이란 연설에서 "과거 눈부시게 발전한 경제학은 시대의 가장 긴급한 과제에 극히 일부에만 공헌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이 있다. 이것도 슈마허에게 대변 시킨다면 "사실대로 말하면 공헌은 제로(zero)였으므로 극히 일부의 공헌이라는 것은 과찬이다"고 말할 것이다. 현대경제학은 왜 유효성을 잃어버린 것일까. 슈마허의 다음 지적이 적절한 해답이 되지 아닐까?

"경제학이 다루는 것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만들고 소비하는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이다. 무수한 질적인 차이를 굳이 무시하지 않는 한, 경제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하다. 질적 차이를 전부 무시해 버리면 이론을 구성하는 것은 용이해지지만 이 이론이 몽땅 헛것(不毛地)이 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렇다면 질적 차이를 무시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다음의 지적을 살펴보도록 하자.

"수량적인 방법으로 어떤 나라의 GNP(국민총생산)가 5% 증가한 것이 실증 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증가가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계량경제학자는 대답을 피한다(중략). GNP의 증가는 무엇이 증가되었느냐 라거나 그 이익을 얻을 사람이 있다고 하면 누구인가 라는 것과 관계없이, 잘한 것(善)으로 결정되고 마는 것이다. 병적인 성장, 불건전한 성장 내지는 파괴적, 파멸적인 성장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결함을 내포하는 현대경제학이고 보면, 오늘날의 시대적 과제에 적절하고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자명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새로운 시대의 과제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경제사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 과제란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사상은 어떠해야만 하는가. 그 키워드로서 다음 네 가지를 들고자 한다.

① 환경 = 경제성장시대에서 지구환경시대로의 전환기인 오늘날은 지구환경의 보전과 창조야말로 최우선과제이며,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② 풍요로움 = 21세기에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풍요로움이란 무엇인가.

③ 삶의 보람 = 한 사람 한 사람의 보람 있는 생활방식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④ 비폭력 = 세 개의 비폭력 즉 평화공론이 확보되는 일이 이상 세 가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의 기본조건이다. 전쟁, 핵확산, 살육, 인권무시, 억압, 차별, 빈곤, 자원, 에너지의 강탈, 낭비 등의 폭력이 이



그림 · 김필헌

지구상에서, 이 사회에서 소멸되는 상태라는 넓은 의미에서의 비폭력과 평화를 어떻게 확정해 나가느냐.

이상의 키워드에 관해 현대경제학은 이미 적절한 처방전을 만들기에 곤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경제학을 어떻게 재구축하면 될 것인가? 주류경제학의 이론적 토대위에 불교사상을 어떻게 받아들여 적용해 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 다음에서 불교사상과 경제사상과의 접점 혹은 융합에 관하여 몇 가지 고찰하고자 한다.

 # 일체중생 실유불성, 초목국토 실개성불(一切衆生 悉有佛性, 草木國土 悉皆成佛)

존재하는 것은 모두 다 부처의 생명, 불성(佛性)을 가지는 데에 존재 의의가 있다. 또 초목도 산천도 그대로가 진리(법)의 지혜와 자비의 모습(相) 아닌 것이 없다는 뜻이다. 이것을 현대풍으로 알기 쉽게 독해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만물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결국 상하관계, 친구관계에 있다. 또 인간은 본디 산림, 들판, 호수와 강, 대해 등 자연으로부터의 은혜와 자원으로 살아왔다. 자연과 인간은 대리관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인간이 동식물을 포함한 자연을 지배하려는 것은 오만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이야말로 중요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불교의 '불살생(不殺生)'을 살리는 것과 통한다. 불살생이란 동식물의 살생 전부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이상의 무분별한 살생을 훈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에서는 취미와 도락으로서의 수렵 어획을 부정한다.

"파리가 손을 비비고 발을 비비다"는 어느 시인의 시 구절이 있다. 목숨은 모두 평등하다는 뜻이며 무익한 살생을 훈계한 구절이다. 오늘날 필요이상 전개되고 있는 무익한 살생이란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인가? 공업화 우선주의에 따라 이 세상의 살아있는 온갖 것을 존중하는 바른 삶의 태도를 잃은 것, 제1차산업(농림수산업)을 경시하면서 자연, 환경 파괴를 진전하는 것, 자원과 에너지를 강탈, 낭비하는 것 등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재물은 망하기 쉽고 다만 삼보(三寶)의 법(法)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여기서 재물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문명생활 전부를 가리키고 있다. 현대 문명인은 근대 공업문명의 편리함에 편승해 물질적 풍요로움을 만끽하지만, 결국은 그러한 문명생활의 오탁(汚濁)에 휘말려 정신적 공허로움에 빠지면서 끝내는 인간성 자체의 파멸을 가져온다. 그러나 진리의 불법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소욕지족(小欲知足)과 중도(中道)

소욕지족은 식욕과 집착을 단절하고 욕망을 절제하는 것, 욕망의 원천이 되는 번뇌 · 망상을 제압하고 정리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스스로 만족한 것(自足)'을 아는 것이 수승한 지혜(英知)이며, 반대로 만족함을 모르는 심정을 아귀(餓鬼)로 부르고 있다. 그러므로 만족을 알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은 '만족함을 아는' 영지에 반하는 죄라고도 할 수 있다. 만족함을 아는 것은 실은 자기와의 싸움이며, 자신을 붙잡아 똑바로 세우고서야 비로소 족(足)함을 알 수 있다는 것, 또 자족함을 행함으로써 붓다의 지혜를 체득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중도(中道)는, 반 '사치 · 방일(放逸)', 반 '금욕 · 고행'을 의미한다. 결국 양극단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인간의 욕망을 조정하고 물질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소욕지족의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허달의 불교와 코칭

⑮ 성찰질문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씨가 타계했다는 뉴스를 접한 날, 오래 전 700리 물길 한강 종영(縱泳)을 마치고 나서 그가 했던 인터뷰 내용이 뜬금없이 떠올랐다.

"잡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얼 하지요?"

기자가 물었다. 이런 류의 장거리 수영에는 잡념이 가장 위험하다는 설명이 있고 나서의 일이다. 선사(禪師)를 향해 늘 깨어있는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학인(學人)의 질문과도 비슷하다.

"숫자를 셉니다."

조 선수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몇까지?"

"하나, 둘, 그 이상은 세지 않습니다. 그 이상을 세려다가는 다시 잡념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하나 둘' 그렇게 세어서 15만8,000번 팔을 휘두르는 거리를 조 선수는 열흘에 걸쳐 헤엄쳤다고 한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는 질문에 그는 짧게 답했다.

"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비웁니다."

조오련씨는 인터뷰 말미에 앞으로 중국의 장강(長江) 양자강 종영(縱泳)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이루어지지 못한 계획이었다.

코칭을 하다 보면, 고객이 강물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고객의 생각, 감성, 그러므로 그존재 자체가 끊임없이 물결치며 흐르고 있다. 깊은 웅덩이도 있고, 소용돌이도 있으며, 수초가 발목을 휘감는 강변 모래톱도 있다. 고객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코치는 마치 물길을 종영하는 수영 선수와도 같다. 깨어 있지 않으면 그 흐름을 놓치게 되고, 흐름을 놓치면 언제 어떤 위험에 처할지 모른다는 점에서도 같다. 코치는 고객에 공감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을 경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고객의 존재, 그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하나 둘' 그렇게 스트로크를 세는 것처럼, 코치의 언어는 단순하다. 경청과 질문을 엮어서 때때로 인정, 칭찬으로 임파워 하면서, 때로는 메시지로 막힌 물길을 뚫어 함께 흐른다.

고객의 간절한 언어를 듣는 능력은 자신을 비움에 있다.

당나라 현종의 총애를 받았던 미인 양귀비와 그 정인(情人) 안록산의 이야기를 담은 소염시(小艶詩)라는 시를 한번 읽어 보자.

"아름다운 그 맵시/ 그림으로도 그리지 못 하는데/ 깊고 깊은 규방에서/ 제 마음을 알리려네/ 자주 소옥(小玉)을 부르지만/ 소옥에겐 일이 없고/ 오직 님께 제 소리를/ 알리려는 뜻이라네."

양귀비가 홀로 규방에 있어 안록산이 담밖에 있는 줄을 알고, 어서 월장(越墻)하라는 신호를 보내려고 옆에 앉아 있는 시녀 소옥이를 애꿎게 불러대고 있는 장면을 읊은 것이다. 불자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시는 오조법연 선사가 어느 거사에게 선(禪)을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처음 인용한 이후 선가(禪家)에서 격외언어(格外言語)로 널리 애용되고 있는 시다. 이 시에서 양귀비가 시녀 소옥을 부르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이지 소옥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칭의 언어 역시 그러하다. 상대방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속에 들어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 것을 맥락적 경청(Contextual Listening)이라고 하는 것이다.

선문답 이야기가 나왔으니, 코칭에서 가끔 사용하는 뜬금없는 질문인 '성찰질문(Inquiry)'에 대해 알아보자.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알만한 잘 알려진 전문코치가 미국에서 열린 국제코치 연례대회에 참석했을 때다. 마침 등록한 세미나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마스터 코치와의 코칭 시연(試演)이 있어서 본인이 자원해 코칭을 받게 됐다. 젊은 코치였기에 좀 무리하여 강의, 코칭, 사업계획 수립, 신규 고객확보 등 여러 가지 일이 겹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였으므로, 마스터 코치의 코칭을 받으면 일의 우선 순위가 잘 정리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코칭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은 누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찰질문은 꼭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고객의 내면에 메아리를 일으킨 것으로 그 소임을 다 하는 질문이다. 코치는 스스로에게도 끊임없는 성찰질문을 던짐으로써 자신을 확장심화하고,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세계를 추구한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 제품 사용처
사찰, 선방, 신행단체
심신수련단체

세계최초의
수련전용방석
氣giban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화 및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 입니다.
선정을 닦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습니까? 말은 쉽지만 꾸준히 수행하기 어렵거나, 그만한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 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엉덩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 · 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엉덩이 뒤쪽과 꼬리뼈와 회음부를 잇는 방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옴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만하도록 하였습니다.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익)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현불샵만의 특별한 소식!!
현불샵 판매 1위를 자랑하는 기반방석의 아낌없는 성원에 보답하고자 다량주문을 하시는 분들께 해택을 마련했습니다.
※ 50개 이상 주문시 25 % 의 할인해택을 드립니다.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 현불샵 온라인쇼핑몰 www.hyunbulshop.com

산 위에는 구름 지나가고 바위 밑은 물 흘러가는 소리 난다



혜암은 주로 효봉, 동산, 경봉, 성철, 향곡 같은 고승들의 회상에서 안거를 났다. 앞으로도 서옹, 전강이 주석하는 절로 가서 자신이 정진하여 얻은 경지를 점검받으려고 했다. 그런 뒤, 상무주암 같은 지리산 깊은 산중의 토굴로 올라가 홀로 보임할 생각이었다.

서옹은 누구보다도 혜암과 인연이 깊은 선지식이었다. 해방 전 일본의 한 절에서 혜암에게 〈금강경〉 한 권을 주면서 국내로 돌아가 '참선하라' 고 권유했던 선사가 바로 서옹이었던 것이다. 그런 까닭으로 혜암의 뇌리 속에는 늘 서옹 밑에서 정진해보겠다는 서원이 있었다.

서옹은 도봉산 천축사에 머물고 있었다. 천축사 주지 정영(瀞暎)이 우리나라 최초로 절 경내에 무문관을 세워 서옹을 조실로 추대하였던 것이다. 무문관이란 부처가 전정각산 유영굴에서 6년 동안 고행한 끝에 정각을 이룬 바, 그 고행을 본받아 일정 기간 죽을 각오로 정진하는 수행처소를 뜻했다. 그러니까 달마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와 9년 면벽한 숭산의 동굴도 무문관이나 다름없었다.

때마침 서옹을 조실로 추대한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에서는 20명의 수좌들이 2년 결사 중에 있었다. 결사한 수좌들 모두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12시까지 좌선하는 가행정진을 했다. 가행정진을 하다가 견디지 못하고 무문관을 떠나는 것은 수좌들의 근기와 사정에 따라 자유였다.

혜암은 서옹을 만나고 싶어 해인사를 떠나기로 작정했다. 은사 인곡이 입적하고 없으므로 이제 누구와도 상의할 사람이 없었다. 스스로 결정하고 무소의 뿔처럼 홀로 걸어갈 뿐이었다.

이따금 선방에서 친해진 수좌들이 걱정할 뿐,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다.

"혜암수좌, 무문관에 들어가려면 아주 건강해야 견딘다고 합디다."

"걱정해 주니 고맙습니다만 오대산에서 토굴살이를 이미 경험했으니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혜암은 오대산의 다섯 암자와 설악산 오세암에서 무문관의 고행과 같은 수행을 많이 해보았으므로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다.

"천축사 무문관 결사는 한 철이 아니라 2년이라고 하니 감옥과 같을 것입니다."

"2년이니, 6년이니 하고 숫자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제할 때까지 자유가 없는 고행이니까 그렇지요."

"하루를 묵언해도 6년처럼 정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굳이 왜 천축사로 가려고 합니까."

"서옹 조실스님을 뵈려고 합니다. 저와 인연이 깊은 노장님입니다."

서옹을 얘기하자 수좌가 화제를 돌렸다.

"서옹 조실스님과 무슨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까."

흐르는 물소리가 속삭이듯 들렸다. 혜암은 가야산에 폭설이 내려 며칠 동안 선방에서 나와 눈을 쓸던 기억들을 흥류동 물소리를 들으며 씻었다. 걷다가 뒤돌아보면 마음을 푸근하게 했던 선방의 기억들이 눈처럼 쌓였다가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곤 했다.

서옹 석호(西翁 石虎).

1912년 충남 논산 출생으로 속명은 이상순(李商純). 7세에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4세에 서울로 올라가 17세에 양정고등보통학교에 진학했는데, 그해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별세하자 큰 충격을 받았다. 훗날 스님은 '어린 나이에 하늘과 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막했다' 고 회고한 바 있다. 다행히 작은아버지의 도움으로 학업은 계속할 수 있었다.

당시 양정고등보통학교에는 무교회주의자 김교신 선생과 위암 장지연 선생이 근무하고 있었다. 스님은 김교신 선생으로부터 간디 자서전을 추천받아 읽고는 감명을 받았다. 간디의 자서전을 읽다가 불교의 참맛을 알았고, 결국 머리를 깎기로 결심했다.

학교 담임선생과 작은아버지가 우등생으로 졸업한 스님이 경성제대 예과에 진학하기를 바랐지만, 스님은 21세에 중앙불교전문학교에 입학했고 출가하기 위해 각황사(현 조계사)로 가서 주지 대은을 만났다. 그러나 대은은 백양사에 주석하고 있는 비구선승 만암의 제자가 될 것을 권유했다.

스님은 24세에 중앙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백양사로 내려가 강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외전강사로 2년을 보냈다. 26세에는 참선 공부를 하고자 오대산 한암 회상으로 가서 2년간 정진했다. 그런 뒤 수행자 신분으로 1939년 28세에 일본 교토 임제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떠났다.

스님의 대학 졸업논문 〈진실자기(眞實自己)〉는 일본 불교학자 다나베 하지메가 쓴 〈정법안장의 철학적 사관〉의 오류를 지적하여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일본의 대학자인 경도대학의 히사마츠 신이치 박사의 지도로 쓴 〈절대주체도〉는 학생들의 교재로 채택되기도 했는데, 스님은 일요일마다 히사마츠 박사를 만나 다담을 나누며 토론하는 정복을 누렸다.

임제대학을 졸업한 스님은 일본 임제종 총본산인 묘심사(妙心寺)에서 3년 간 입승 소임을 보면서 정진하였는데, 이때 자신을 찾아온 혜암에게 〈금강경〉 한 권을 주었다.

스님은 1944년 34세에 귀국하여 백양사 선방과 목포 정혜원을 거쳐 부산 선암사 선방에서 정진하던 중, 통영 안정사 천제굴로 가 성철을 처음으로 만나 동갑지기 도반이 되었다.

성철과 마음을 나눈 스님은 20여 년 동안 전국을 만행하며 선방수행을 하다가 1962년 51세에 동국대 대학선원 선원장으로, 1964년 53세에 천축사 무문관 조실로 추대되어 수좌들과 2년 결사에 들어갔다.


그림 · 최문정

산위에는 구름이 지나가고
바위 밑에는 물 흘러가는 소리가 난다.〉

서옹과 오래 된 인연 말고도 출가하기 위해 고향집에서 처음으로 들렀던 백양사이기에 감회가 더 무량했을 터였다. 방장추대식의 축사 속에는 백양사의 단풍을 찬탄하는 구절에 이르러 다소 들뜬 혜암의 심정이 드러났고, 사부대중의 축하는 물론이고 산과 물, 그리고 미물들이 기뻐 춤추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옹은 고불총림 방장이 된 뒤 중국 임제선사의 무위진인(無位眞人) 가풍을 '참사람 결사' 로 지속시키는 한편, 승속이 운집하여 고승을 향해 공개리에 법을 묻는 무차선대회도 열었다.

그때 혜암과 진제도 무차선대회에 참석하여 수좌들과 재가불자들이 묻는 질문에 조사선의 종지를 여실하게 밝혔다.

1964년, 정영이 천축사 동쪽 미륵봉 아래에 무문관을 개설하자 그 반응은 뜨거웠다.

전국 선방의 수좌들이 서옹 조실 밑으로 모여들었다. 혜암은 서옹의 허락을 받고 나서 1966년 여름에 무문관에 들었다. 그러나 결코 결사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은 어디에서나 무문관에 입실한 것처럼 고행해 왔기 때문이었다.

무문관에 입실한다고 해서 모두가 해제할 때가지 남지는 않았다. 대부분 중도에 탈락했다.

2년 결사의 경우, 해제 때는 두세 명 정도 남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떤 이는 한 달 만에 묵언의 후유증으로 혀가 굳어 나오는 사람도 있고, 정신이 이상해져서 병원으로 실려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한 소식을 체험한 고마움에 목이 메여 흐느끼는 사람도 있었다.

혜암은 무문관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뜬하게 여름을 보냈다. 서옹은 수좌들을 만날 때마다 '한번 법을 일러 보게' 혹은 '좀 더 일러 보게' 하고 물었지만 혜암은 예외였다. 오래 전부터 이신전심으로 계합되는 바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계속〉

혜암은 서옹 스님과 지중한 인연을
회상하며 해인사를 떠나기로 작정
서옹 스님이 고불총림 방장추대될때
백양사 달려가 들뜬 마음으로 축사

"제가 출가하려고 해인사에 왔을 무렵 행자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은사 인곡스님을 소개해 주었던 분입니다."

일본 임제종 총본산 묘심사에서는 혜암에게 발심의 불을 지펴 주었고, 해인사에서는 인곡을 소개한 일까지 합한다면 결코 작은 인연이 아니었다. 귀한 비단에 아름다운 꽃을 얹히는 지중한 인연이었다.

"서옹스님 회상에서 정진하고자 떠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가 천축사로 가는 것은 무문관 때문이 아니라 서옹스님이 계시니까 가는 것입니다."

혜암은 발걸음을 막던 수좌와 함께 웃었다.

흥류동에 얼어붙었던 얼음장이 벌써 녹고 있었다.

1971년에는 동화사 조실로 주석했는데, 그때 스님은 오도송을 읊조렸다.

상왕은 위엄을 떨치며 소리치고 사자는 울부짖으니
번쩍이는 번갯불 가운데서 사와 정을 분별하도다
맑은 바람이 늠름하여 하늘과 땅을 떨치는데
백암산을 거꾸로 타고 겹겹의 관문을 벗어나도다.

이후 스님은 1974년 63세에 조계종 제5대 종정에 올랐고, 1996년 85세에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으로 추대되고 나서는 수좌들에게 〈벽암록〉의 선지(禪旨)를 강설하며 '참사람 결사' 를 제창했다. 참사람 결사의 서원은 세 가지였다.

첫째, 무상무주(無相無住)의 참나를 깨달아 자비생활을 한다.

둘째,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여 세계인류가 평등하고 평화스럽게 사는 세상을 창조한다.

셋째, 자기와 인류가 생물과 우주가 영원의 유일생명체이면서 각각 별개이므로 서로 존중하고 도와서 집착함이 없이 진실하게 알고 바르게 행하며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세계를 건설한다.

서옹이 고불총림방장으로 주석하자, 가장 반긴 스님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당시 해인총림 방장이었던 혜암이었다. 자신을 불문으로 이끌어준 선승, 서옹이 주석하는 백양사가 고불총림으로 승격되었고, 자신과 좋은 인연을 맺어왔던 서옹 선사가 방장으로 추대되는 경사였던 것이다.

혜암은 가을 단풍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백양사로 달려가 방장추대식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다.

〈여름 삼복이 찌는 듯한 더위의 시절이 지나가고 호시절 가을이 오니 만산단풍이 방광을 하고 삼삼(三三)은 원래 구(九)입니다.

산명 수려한 백양사는 내장사와 같이 추색 단풍이 절경이어서 주변 일대 전폭(全幅)이 그림이라 하겠고, 계루 물결과 풍치는 진세(塵世)를 초탈한 멋진 풍경이며, 밝은 달과 바람이 어울리고 산색과 수성(水聲)이 조화를 이루었으니 이를 일러 물외건곤(物外乾坤)이요, 호중천지(壺中天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량에 특히 다수의 선지식이 출현하셨고, 만암스님께서 해방 직후 불교발전을 위하여 호남고불총림을 창립하시어 전국 모범사찰로 유지하다가 육이오동란을 당하여 잠시 휴총(휴총)하여 근간에 부활해서 오늘 뜻 깊은 총림방장 추대식을 하게 되니 시회대중과 사부대중이 축하하며 동시에 산도 춤추듯 기뻐하고, 물도 기뻐 소리치며, 벌 나비 춤추고 새들과 꼬꼬닭도 캉캉컹컹 짖는 개들도 모두 함께 추대식을 경축합니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인데 무엇이 추대식입니까(如何是 推戴式). 오늘 추대식을 했다 하여도 참으로 옳지 못한 것이요, 설령 안 하였다 하더라도 참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를 당하여 시회대중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추대식을 하게 되니 시회대중과 사부대중이 축하하며 동시에 산도 춤추듯 기뻐하고 물도 소리치며… 모두 함께 경축합니다"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혜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 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단에 만년위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적정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동 안 거 결 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 철 결 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재
  매년 설날, 중양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치인리 10번지 www.wondangam.org
감원 벽산 원각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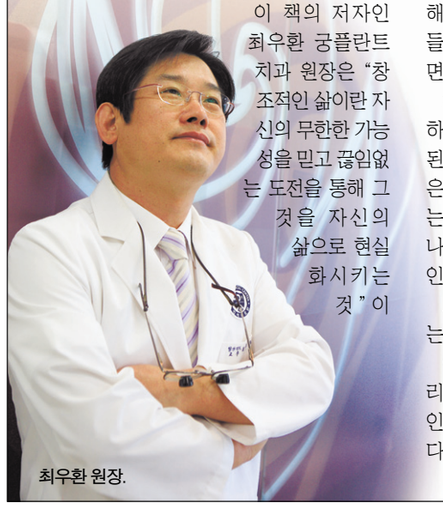


"무심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궁플란트치과 최우환 원장의 마음공부와 성공이야기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해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먼저 일에 흥미를 가져야 한다. 일에 몰두해 또렷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보면 어느새 일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동작만 느끼게 된다. 이런 무심(無心)의 상태에서 위대한 창조가 일어나고 믿기 힘든 성과를 내게 된다."

조계사 인근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불자의사가 인생이야기와 마음공부의 노하우를 들려주는 책 <성공인생 마음공부>(클리어마인드)에 나오는 한 대목이다.


최우환 원장.

이 책의 저자인 최우환 궁플란트치과 원장은 "창조적인 삶이란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생에 있어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일에 대한 실패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그는 자기 성취와 더불어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마음공부를 하라고 조언한다.

"가장 간단한 명상은 자신의 몸과 느낌, 마음 등을 고요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찰의 힘이 깊어지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불필요한 일이나 일과 사람에게 휩쓸려가는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늘 고요한 상태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집중력을 갖게 된다. 아침에 일어나 잠들 때까지 자기를 바라보는 명상을 하게 되면 일상생활 그대로가 수행이 된다."

최 원장은 이러한 관법(觀法)을 일에 적용하면 자신도 모르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늘 깨어있는 사람은 삶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굴리는 사람이 된다고 강조한다. 즉, 언제 어디서나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이 진정한 달인이다.

그렇다면, 한 분야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걸고 일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열의,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신이 하는 일을 천직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일한다면 이런 사람은 한 분야의 마스터이자 명장(明匠)과 같은 존경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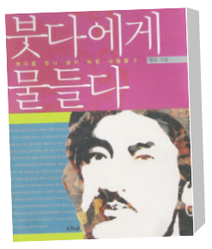
최 원장은 이 책에서 가난한 어린 시절과 쌀을 배달하며 공부하던 청소년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의대를 다니던 수련의 시절,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시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참다운 성공을 향해 매진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고 있다. 아울러 군복무 시절, 이치영 군승법사를 만나면서부터 <금강경>을 독송하고 참선하며 불교공부에 몰두한 수행담을 담담하게 밝히고 있다.

<금강경>의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가르침에 따라 남모르게 보살행을 실천해온 최 원장은 올초부터 조계사와 종로구청과 협약식을 갖고 가난한 어르신과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무료틀니 시술과 치과진료를 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불자 청소년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다. 성공인생 마음공부 | 최우환 | 클리어마인드 | 1만2000원

김성우 기자

"세상 청정하게 하는 게 보살"

'통일보살' 법륜 스님이 전하는 '자리이타'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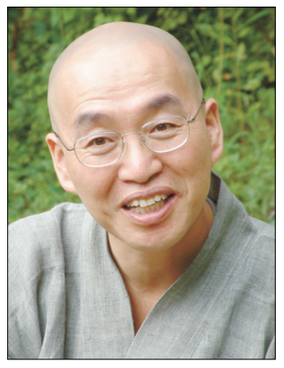
요즘 우리 사회에서 세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 또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자기 스스로는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자기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괴로움이 생겨 중도에 포기하기도 하고, 실망감과 배신감 때문에 얼굴이 밝지 못하다.

이에 대해 우리 시대의 '통일보살'이자 '환경보살'로 불리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남을 위해 일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남을 위해서 일한다는 이 생각마저 버리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 생각을 놓아버릴 때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이와 같이 법륜 스님의 저서 <붓다에게 물들다>(샨티)는 경전 속의 가르침을 오늘의 삶으로 비춰보면서 명쾌한 해법을 제시한다. 특유의 위트와 구수한 입담, 정곡을 찌르는 어법으로 붓다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물들어버린 2500여 년 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치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처럼 생생히 들려준다.

"수행자라는 것은 참선을 하느냐 염불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바가 자신의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느냐, 또 남의 괴로움도 없앨 수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됩니다."

법륜 스님의 법문은 자신의 깨달음을 넘어 이웃과 자연의 고통을 구제하는 보살행을 지향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하다. 불법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법륜 스님.

세상 사람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면 그게 무슨 법을 만난 것이겠는가?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대로고 지위에 대한 욕심도 그대로고, 명예나 몸에 대한 집착도 그대로라면 말이다.

법륜 스님에 따르면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환경에 물드는 사람, 환경에 물들지 않기 위해 그 환경을 멀리하는 사람, 그 환경 안에 머물면서도 거기에 물들지 않는 사람, 환경 안에 있으면서 그 환경 자체를 (맑고 향기로운 쪽으로) 물들여버리는 사람이 그것이다.

"불법을 깨친 뒤 붓다는 자신에게 좋은 환경인지 아닌지를 가리지 않고 찾아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진리의 길로 이끌었다. 심지어는 먹으면 죽게 되리란 것을 알면서도 춘다가 바친 공양을 물리치지 않고 받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춘다의 공양을 찬양하고 그를 비방하던 사람들까지 감화시켰다. 그런 붓다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향기에 취하고 그 말씀에 물들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보통 사람들이 환경에 물드는 사람이라면, 붓다는 그 환경을 진리로 물들여버리는 사람이기에 참된 수행자, 즉 보살은 세상을 청정하게 변화시켜야 한다는 게 법륜 스님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붓다에게 물들다 | 법륜 스님 | 샨티 | 1만 1000원

김성우 기자

선 수행 '좌선'은 무아가 되는 레슨

무심하게 대상과 하나 되는 순간, '반야심경'이 되다

"선 수행의 하나인 좌선은 무아(無我)가 되는 레슨이다. 이것은 '죽는 연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자신이라는 작은 세계의 벽을 넘어 대우주와 일체가 되는 레슨이다."

한 재가수행자가 <반야심경>을 소의경전 삼아 30여년 참선한 구도기를 엮은 책이 나왔다.

2002년 일본 임제종의 고이케 신소(小池心?) 노사(老師: 참선을 지도할 수 있는 스승)로부터 '기도(暉堂)'란 법호를 받고 노사가 된 저자 이노우에 기도(井上暉堂)는 14세 때 여름에 교통사고를 당해 사경을 헤매다 우연히 찾은 선사에서 <반야심경>을 만났다. 고교 진학 후 '왕따' 및 유급 등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자 참선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휴학, 교토의 겐닌지에서 1년 반 동안 출가수행을 했다. 그후 프로복서를 거쳐 신문기자, 편집, 광고 대리업 등의 일을 하는 한편 임제종 계열의 스승들을 찾아다니며 30여 년 간 불교를 공부했다. 이 책은 저자가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인생과 수행 체험을 1인칭 서술 형식으로 솔직 담백하게 기술한 책이다.



저자는 청소년 시절의 방황기를 <반야심경>과 참선을 통해 극복하고, 17세의 어린 나이에 선방에서 '무(無)'를 체험하고 <반야심경>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 저자는 "무심하게 청소와 좌선이라는 대상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동안, 갑자기 유무를 초월한 무의 세계로 길이 열렸던 것이다"라고 당시를 회고하고 있다.

저자는 선원에서 나온 후에도 일상속에서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수행했으며, 늘 일과 대상과 하나 되는 경지에서 일상선(日常禪)을 닦아 점점 깊은 경지로 나아갔다.

"나는 매일 아침 요코하마의 오산바시 국제터미널 가까이에서 좌선하는데, 그때마다 주변 풍경과 생명체와 내가 일체가 되어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체험을 한다. 그때 자신이 대자연과 대우주의 네트워크 속의 일부임을 체감하게 된다."

저자는 "분별하지 않는 지혜를 갖추면 마음을 자유롭게 디자인 할 수 있다"는 생활선을 터득해 이제는 선객(禪客)을 지도하는 스승으로서 무애자재한 삶을 살고 있다.

반야심경, 희망을 쏘다 | 이노우에 기도, 김종철 역 | 대숲바람 | 1만원

김성우 기자

시집 두 편 나란히 출간

도인 · 혜종 스님 구도시

비구 · 비구니 스님이 구도의 길을 노래한 시집을 나란히 펴냈다. 거제 도인암 암주 도인 스님은 시집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 태어난 일>(해조음)을 펴냈다.

동부산대학 장례행정복지과에서 죽음학을 강의중인 도인 스님은 시를 통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죽는 일'이 아니라 '태어난 일'이라며 중생과 함께 하는 자비행과 더불어 생사(生死) 해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스님은 9월 23일 오후 6시 거제 고현, 미남크루즈에서 출판기념회 및 서화(류재학 作)전시회도 연다. (011)846-1682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에서 법화경을 강의 중인 혜조 스님(前 조계종 총무원 문화국장)은 시집 <너를 위하여 밝혀둔 작은 램프 하나>(우리글)를 18년만에 증보해서 펴냈다. 혜조 스님은 '방황의 끝'이란 시에서 "결국은 하나였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며 찾아 헤매었던/ 모든 것의 귀결점은/ 오로지 나를 비우는 일"이며 "이제 어느 누구라도 /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라는 동체대비(同體大悲)를 서원한다.

김성우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는 즐거움	보경	뜰
2	쉬고 또 쉬고	무여	새로운 사람들
3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원철	호미
4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5	아름다운 마무리	법정	문학의 숲
6	삼천년의 생을 지나 당신과 내가 만났습니다	성전	마음의 숲
7	인과경	현담	선
8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9	행복한 출근길	법륜	김영사
10	일곱 번의 작별인사	무비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초발심자경문
이 초발심자경문은 한문을 새기는 힘인 문리를 터득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의역하지 않고 직역하였다. 대원 선사님의 살아있는 수행지침도 실려 있다.
초발심자경문
달다
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법회안내
매월 첫째 일요일 서울 법회 추석연휴로 인해 쉽니다 02-3494-0122
매월 둘째 일요일 국제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31-531-8805
매월 셋째 일요일 광주 정맥선원 영원한현실 / 선문염송 062-944-4088
매월 넷째 일요일 부산 정맥선원 반야심경 법문 051-503-6460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나한님의 영험이불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조, PC고건축, 사찰문, 나한님
한국고건축
문화재수리기능보유등록 제 1853호
금호 임영창 합장
8치, 1자, 1자 2치, 크기로 조성합니다.
16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50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1,250 나한님 목조각, 채색조성
2009년 현재나한 11,532분째 풍부한 경험, 실적으로 조성불사중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올리는 예불문에 나오는
"일천이백오십분의 나한님은 부처님의 최초제자인 다섯비구, 가섭삼형제의 제자였던 천명의 비구들 (우루빈나가섭의 오백제자, 나제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가야가섭의 이백오십제자,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을 따르던 이백오십명을 말합니다."
◈ 1,250 나한도 1권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이애경)
불사 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3000배 용맹정진
업장소멸의 관건은 지극하고 간절한 성스러움과 최고의 공경심으로 절하며, 전신의 노폐물, 독소, 나쁜 기운의 땀을 흘리면 괴로운 맘 소멸되고...
소원성취는 해맑게 미소 짓는 기쁜 얼굴로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대긍정의 감사염송을 온 몸과 맘에 가득 채우며 절하면 100% 성취된다.
◎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을 항상 모시는 날마다 행복한 날을 확신하는 염불선도우미를 동참자 전원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 날 짜 : 2009년 9월 26일(토) 저녁 9시~
2009년 9월 27일(일) 아침 7시
(절하는 법 교육 : 저녁 7시 ~ 9시. 3000배 시작하기 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필수준비물] 수련복 : 100% 면 소재 흰색상의, 회색법복 · 조끼, 방수포(신규동참자는 선물), 기도포(방석을 덮을 큰수건), 땀 닦는 수건, 면양말 2켤레, 발로해(절수행 특수 덧신), 면장갑 2개, 위생비닐장갑 1개, 목수건
[선택준비물] 무릎, 손목, 발목아프신분(팔꿈애원 보호대), 허리아프거나, 아랫배, 엉덩이, 꼬리뼈, 차가우신분(호락호락 팬티), 어깨 아프신 분(스트레칭 필)
■ 장 소 : 분당 하얀마음선원
☞ 전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60-1네비게이션에 하얀마음선원 치세요.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백만불자 108배 만일결사 수행중심교육도량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02)456-0035 ■부산 금정법당 (051)583-7886
■대구 신천법당 (053)743-0063 ■광주 상무법당 (062)375-3500
한글도메인 : WWW.법왕정사.kr

핀란드에서 온
100% 야생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기능성 색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폭격하던 영국공군 조종사들이 야간비행 전에 블루베리를 주식으로 먹었습니다.
이후 물체식별이 향상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블루베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량의 안토시아닌 덕분에 블루베리는 우리몸의 젊음을 지켜주는 과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블루베리 파우더 ~~35,000원~~ ⇒32,000원


블루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크랜베리 주스 ~~46,000원~~ ⇒42,000원
YADANBEOPSEOK 야단법석 구입문의:010-5318-0704 www.01053180704.com

산사의 가을, 음악과 함께 오네

덕주사 · 미황사 · 도리사 · 부석사, 풍성한 선율로 손님 맞아

이제 낙엽이 춤추는 계절이다. 음악선율처럼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잔잔한 감동과, 때로는 격렬한 감동을 만들어내는 산사음악축제들이 추석을 맞아 연이어 공연된다.

맑은 산사의 공기를 뜨거운 열정의 공기로 바꿔놓을 축제의 현장을 제대로 느껴볼 기회이다. 청정도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함께 가을을 제대로 맞이해 보자.



9월 12일 열린 제천 덕주사 산사음악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벌써부터 찬 공기가 뒤덮은 월악산 자락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다. 9월 12일 제천 덕주사에서 열린 산사음악축제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해 뜨거운 숨을 토해내기 바빴다.

올해로 세 번째 열린 이번 축제는 3시간 가량으로 진행돼 가수 김용임, 박정자, 조항조,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안치환 등이 출연해 그 열기를 더했다.

덕주사 산사음악회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사음악회의 고전적인 공연에서 벗어나 다소 파격적이고 대중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그래서일까. 행사를 지켜보는 많은 이들은 남녀노소 구분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가수들의 공연에 '앙코르'는 연이어 터져 나왔다. 그렇게 덕주사의 밤은 많은 관객들이 쏟아내는 열정의 소리로 뜨겁게 뒤덮였다.

덕주사 주지 원경 스님은 "덕주사가 위치한 충북 제천은 아직까지 문화의 혜택이 적은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다소 힘든 선택이었지만 행사를 대중적으로 계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덕주사 산사음악축제는 지역 문화행사로, 지역포교활성화로 그 행보를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덕주사 산사음악회 수입전액은 지역 의료봉사후원, 소년 · 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돕기, 장학금 지원 등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다목적 지원금으로 쓰인다.

몸도 마음도 살찌울 수확의 계절 가을에 눈과, 귀를 즐겁게 해 마음을 풍요롭게 해줄 산사음악회들이 잇달아 공연된다.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산사에 내려앉은 단풍들도 구경하고, 가을정취를 느끼며 음악공연도 들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터.

아름다운 해남 땅끝마을에 자리한 미황사(061-533-3521)는 10월 24일 '땅끝마을 미황사의 꿈'이라는 주제로 제10회 괘불재와 미황사음악회를 개최한다.

남도 지역의 음악과 들노래들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번 음악회는 10주년을 맞아 더욱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음악회와 함께 괘불재가 진행돼 해남 땅끝에서의 오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자리이다.

불교미술, 음악, 음식 등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축제는 그야말로 불교종합예술축제이다. 황금빛 저녁노을 뒤 반짝이는 별이 뜰 때까지 남도의 정취와 음악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다.

해동 최초가람 태조산 도리사(054-474-3737)는 10월 17일 경내야외무대에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시원한 솔바람이 우리의 몸을 적시고, 따뜻한 음악이 가슴을 적시는 이번 행사에는 애플재즈오케스트라, 心 so Good, 김영찬, 한국문화공동체 BOK(천년의 소리), 웅산 등이 출연한다. 자연의 소리와 사람이 만드는 소리가 하나 되는 음악회에 많은 이들의 함성소리가 보태질 시간이다.

높은 푸른 가을하늘 아래로 코스모스들이 흐드러지게 수놓고 있는 서산 부석사(041-662-3824)는 10월 10일 제7회 서산 부석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순박하게 피어난 코스모스 사이로 음악들이 춤을 추는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아름다운 선율과 율동, 언어 등이 한데 자리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나희덕 시인, 도신 스님과 색즉시공, 방용렬 테너, 관음무용단 등이 출연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개막 제24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 9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에서 개막됐다.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대상을 받은 명천 스님의 '복전의(福田衣)'를 비롯해 최우수상 2점, 우수상 3점 등 총 60점의 당선작이 선보인다. 사진은 운영위원장 지관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비롯한 개막식 참가자들이 전시장을 둘러보는 모습. 박재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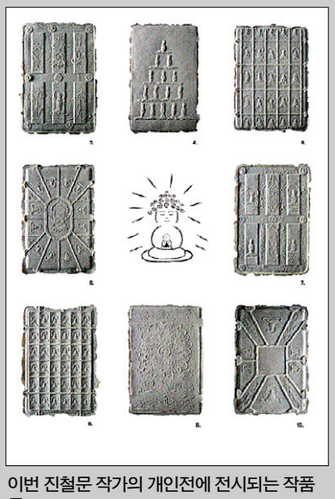
교리 위에 본래부처 새기는 작업

진철문, 9월 24일~10월 14일 포곡도서관 '채움'서 전시

"우리는 본래 자신이 붓다임을 알아 차려야 한다."

불교에서는 얼마든지 깨달음을 통해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조각가이자 시인인 진철문은 저마다 붓다가 될 수 있음을 작품을 통해 말하고 있다.

불교의 깨달음을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해온 그는 포곡도서관 전시관 '채움'에서 '우리 모두가 붓다입니다'를 주제로 9월 24일~10월 14일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진철문 작가의 개인전에 전시되는 작품들.

한지에 부조로 조형해 깨달음을 표현하는 작가는 흔히 버려지는 스치로폼 박스의 뚜껑을 사용해 밑그림을 그린다.

그는 작품 활동에 있어서 불교사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시한다. 하지만 명동성당 초대전, 한국정교회 작품전을 통해 종교의 소통과 숭고한 의미의 가치에 대해 중요성을 말해주기도 했다.

진철문은 작품 활동에 있어 "불교의 근본교리가 바탕이 돼 시대와 문화에 맞는 현대의 새로운 방법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조상들의 얼이 배어있는 한국미술, 불교미술이 계승되고 발전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의 작품들은 소조불상에서부터 종이불상에 이르기까지 각종 다양한 부처님들을 조성하며, 현대적 느낌이 강한 감상용까지 다채롭게 보여주고 있다.

진철문의 조각은 "사유의 표상으로 불교의 철리를 요해하고 그 바탕 위에서 선(禪)과 선정을 통해 선(禪) 조각이라는 하나의 장르를 정립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작가는 1970년대부터 여러 경로를 통해 작품 활동을 해왔지만, 시류에 편승하지 않고 우리의 감성과 정서를 불교적으로 순화시키는 예술가다.

자신을 뽐내기보다 예술과 불심이 하나가 되는 피안의 세계를 은근히 추구하며, 무색계의 유식학적인 사유를 색계에서 보고 만질 수 있게 표현한다.

이번 전시회는 불교미술의 길을 걷는 것은 힘들다 말하면서도, 그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작가의 열정과 순수함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031)324-4631~2

이은정 기자

사찰에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대구 보성선원, 21~27일 '가을영화제' … 10월 10일 음악감상회

"사람 많고 화려한 영화제, 이젠 걱정 없어요~. 사찰에서 영화 보면 되니깐요~. 참 쉽죠잉~."

영화제라고 해서 꼭 화려할 것이라는 편견을 버려라. 개그우먼 박지선의 유행어 '틈새시장 공략법'처럼 조용한 절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구 보성선원(원장 한북)은 특별한 주제를 갖고 석 달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제를 연다. 9월 21~27일은 '가을 영화제'를 주제로 근현대 세계 미술사 거장들의 삶을 만나볼 수 있는 미술영화 특집으로 꾸며졌다.

보성성원은 8월 13일 영상매체인 블루레이(blue-ray)를 설치해 영화관 수준의 영상과 음향시설들을 갖췄다. 그 후로 영화는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이라 생각하고 이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어 10월에는 매주 토요일을 '영화와 음악의 날'로 정해 음악 감상과 영화 감상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10월 10일은 제11회 음악 감상회 프로그램을 열어 아련한 추억여행으로 초대한다.

이번 음악 감상회에는 피아니스트 송미희가 연주하는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와 쇼팽의 녹턴 20번을 감상할 수 있다.

세상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존재하고 각자의 독특한 틀 안에서 삶을 영위한다. 보성선원이 준비한 이 같은 영화제는 영화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틈을 좁히는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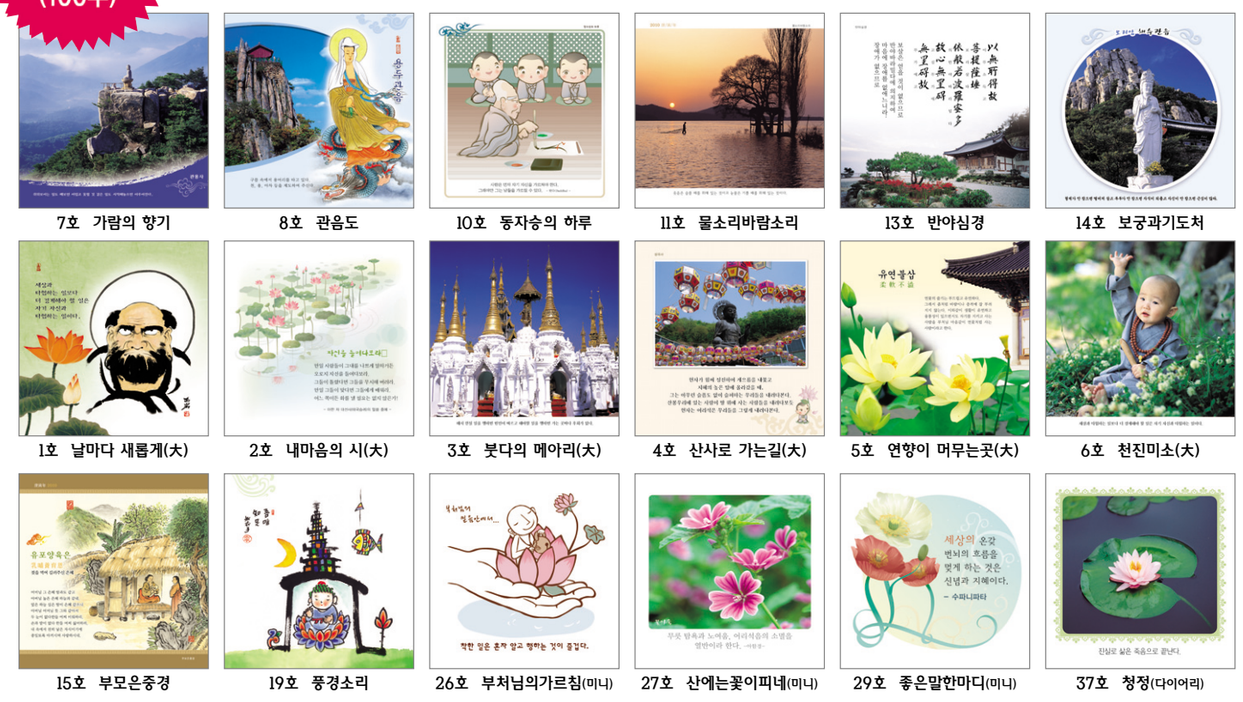
다른 세계의 창을 두들겨 다양한 삶의 형태를 영화를 통해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리인 만큼 부처님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055)621-3333

이은정 기자

2010 불교달력출시 ※ 달력 1~42호 [국6절 · 12절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한지 · 탁상] www.buddhashopping.com

12절 100,000원 (100부)

창립35주년 기념세일 달력가격 대폭인하


7호 가람의 향기
8호 관음도
10호 동자승의 하루
11호 물소리바람소리
13호 반야심경
14호 보궁과기도처
1호 날마다 새롭게(大)
2호 내마음의 시(大)
3호 붓다의 메아리(大)
4호 산사로 가는길(大)
5호 연향이 머무는곳(大)
6호 천진미소(大)
15호 부모은중경
19호 풍경소리
26호 부처님의가르침(미니)
27호 산에는꽃이피네(미니)
29호 좋은말한마디(미니)
37호 청정(다이어리)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불교달력과 불교용품을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특별기획카렌다
20 성불하소서(두달)
41 42 한지달력 2종 한지 달력 150,000원 (100부)
40 탁상용카렌다 탁상 달력 250,000원 (100부)
두달 달력 70,000원 (100부)

달력규격
국6절(大) 규격:30.5×31.0cm
12절 규격:25.8×26.5cm
두달 규격:25.8×26.5cm
차걸이 규격: 9.0×15.5cm
미니 규격: 8.9× 9.5cm
다이어리 규격: 9.5×13.4cm
탁상 규격:26.2×19.0cm
한지 규격:30.0×45.5cm

달력할인가
국6절 ……1,300원 (1부)
12절 ……1,000원 (1부)
두달 ……700원 (1부)
차걸이 ……400원 (1부)
미니 ……400원 (1부)
다이어리 ……600원 (1부)
탁상 ……2,500원 (1부)
한지 ……1,500원 (1부)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www.buddhashopping.com
TEL (051)515-8888, 515-2988, 555-1087, 508-9377~8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총 42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달력카다록 · 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문의처 ☎(051)515-8888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45 밥은 모험: 채식당 기행-수안 처사 편<3>

'벨라'와 떠난 오리고기집 나들이

사람의 평균 수명을 70~80세로 치면, 수안 처사의 낡은 승용차인 벨라(아벨라의 애칭)의 나이는 대략 70대를 훌쩍 넘겼다고 할 수 있다. 보통의 승용차가 17만에서 20만km를 달리면 폐차 신세가 된다는데 현재 벨라는 16만km를 뛰었으니 말이다. 그 정도 연륜이면 웬만한 산전수전은 겪었을 법도한데.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그 중 기억나는 건 차를 빌려간 스님의 부주의로 생긴 일인데, 스님께서 사이드브레이크를 내리지 않고 주행하신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가다보니 브레이크가 마모돼 밟히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휴게실에 들러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다고 전화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단다. 스님들이 차를 빌려 타고 가다 오르막길에서 정차할 일이 생겼는데, 앞에 주차된 차가 슬금슬금 뒤로 밀려오더니 멀쩡히 서있던 벨라를 쿡 박은 것이다.

"스님들도 놀라고 앞차 보살님도 너무 놀라 내려서 미안하다고 백배사죄를 하더래요. 차의 헤드라이트 위쪽이 쿡 찍혀 들어갔는데, 보통 그런 경우는 몇 십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도 낡고 보살님도 너무 미안해하니까 보상해달라고 말하기도 뭐해 그냥 가시라고 했대요."(웃음)

검박하고 순한 스님들과의 인연이 깊다보니, 미숙한 이의 실수로 몸에 상처를 낸들 그저 그러려니 했을 벨라의 삶의 흔적이 유난히도 좋은 것은 아마도 그처럼 살아오지 못한 내 삶의 반증일는지도 모른다. 사실 상처란 남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징표일 뿐임을 익히 알면서도, 수많은 삶의 사건사고에서 남의 탓 없이 덤덤히 넘어가기가 어디 쉬운 일이랴. 유난이나 떨지 않으면 다행인 것을. 여하튼 벨라의 품에서는 그의 낡음만큼이나 농익은 사색과 자각이 절로 일어나 마냥 좋으니, 언젠가는 나도 장롱면허에서 탈출해 꼭 한 번 벨라를 몰아볼 날이 있으리라.



16만km를 달린 벨라(아벨라의 애칭).

그러한 꿈을 잠시 접어두고, 오늘 벨라와 함께 떠난 곳은 경주 인근에 자리 잡은 오리고기전문점이다. 채식주의자인 수안 처사와 그의 친구들이 오리고기집을 제 발로 찾아갈 리는 없고, 그곳에서 예기치 않은 모임이 있기 때문이다. 오리고기라고 하면 소문난 곳을 일부러 찾아다닐 만큼 환장하던 때가 있었으니, 벨라에 동승한 사람들 중에서는 혼자서만 유일하게 신이 났다. 잡식에서 팔자에도 없는 채식 체질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에 걸쳐진 내 몸의 반응을 살펴 볼 겸 모처럼 포식도 할 겸 여간 잘된 일이 아니지만, 채식주의자들 무리 속에서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표정관리는 물론 말 한마디에도 센스가 필요한 법. "오리고기 집엘 가면 먹을 게 없어서들 어떡해요. 나는 채식을 하고 싶어도 콩을 못 먹으니 어쩔 수가 없다니깐요"라며 약간은 걱정어린 표정과 언사를 건네 본다.

눈치 빠른 한 동생은 고맙게도 "맞아요, 언니는 콩을 못 먹어 고기를 한 번씩은 먹어줘야 해요"라며 장단을 맞추고, 수안 처사는 "고기 집에서도 찾아보면 다 먹을 게 있답니다"라며 예의어린 걱정에도 착한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형님, 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이 있답니다"라는 수안 처사의 불교대학원 후배인 도연 처사의 말에 왠지 얄밉기도 하면서 채식주의를 지켜가기도 그리 만만한 수행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만감이 드는 사이, 벨라는 어느덧 경원(054-774-8775)이라는 오리고기 전문점에 멈춰 섰다. 선발대로 먼저 와있는 사람들 중에는 학교 내에서 이미 한두 번 눈을 맞춘 이도 있고, 친숙한 얼굴도 생판 처음 본 사람도 섞여있다. 오늘의 자리가 마련된 것은 우리 학교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는 한 교수님과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다. 티베트의 불교와 밀교수행을 전공한 교수님인데, 수안 처사와 그의 일당들과 이미 두어 번의 자리를 가진 나는 내 나름대로 그 교수님의 별명을 붙여놓은 것이 있다. 다름 아닌 '부채도사'다. <부채도사편으로 계속>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이경제 원장의 **한방**으로 지키는 건강

4 비염, 나을 수 있다

내적 원인 다스리면 외적 현상도 OK

타고난 체질이 그다지 약한 편은 아니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 맹장수술을 하고나서부터 늘 비실비실 몸이 아팠다. 주위에서는 맹장수술 정도에 뭐 그리 힘들어하냐고 핀잔이었지만, 수술후에 늘 피곤하고 만성감기증상으로 힘들던 나로서는 일일이 설명하기도 귀찮았다.

그렇게 몸이 허약하다가 중학교 2학년 어느 날 갑자기 TV가 들리지 않고 코가 답답하게 막히는 증상까지 생기게 됐다. 덜컥 겁이 나서 병원을 찾았고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만성부비동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두통, 코막힘, 만성피로에다가 늘 귀에서 북소리가 나는 증상 등으로 인해 나는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곤함이 사라지지 않았고, 내 삶의 질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축농증 수술을 했지만 내게는 별 효과가 없었고, 그로 인한 피로와 고통은 계속됐다.

지금 돌이켜보면 축농증을 유발했던 근본 원인이 분명 존재했을 것이고, 단지 그것이 코를 통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었을 텐데 드러난 현상만으로 병을 다스리려고 했으니 시도 자체가 일종의 무지요 무모함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고생 끝에 근본을 다스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경희대 한의과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입학 후에 '내 병을 고쳐보자'는 생각으로 여러 교수님, 선배님에게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처방을 받았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내 병을 꼭 고쳐봐야겠다'라는 화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어느 날, 사상의학의 고수를 우연히 만나게 됐다. 궁하면 통하게 된다(窮則通)고 결국 기회가 찾아왔던 것이다.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하면서 내 체질에 맞지 않는 식생활을 개선하고 체질에 맞는 한약을 복용했다. 그로써 지난 10년간 나를 괴롭혀왔던 지긋지긋한 축농증을 완치하게 됐다.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맞는 음식과 생활습관, 한약, 정신수행에 있다. 특히 식생활, 정신세계를 포함해 삶의 패턴이 많이 흐트러진 현대인들에게 이는 더욱 중요하다.

내적인 '원인'을 다스릴 때 외적인 '현상' 역시 저절로 다스려지는 것이다. 내 몸에 드러난 질병을 고민하면서 "나를 알고 난 후에야 근원치료가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깨닫게 됐다.

비염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이 주요증상이다. 코가 막히면 뇌에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집중력이 저하되고, 두통, 어지럼증이 생긴다. 비염이 심하면 양쪽이 모두 막혀서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기도 한다. 콧물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데, 알러지비염의 경우 맑은 콧물이고, 만성비염은 진한 콧물이다.

비염은 내과적 질환과 면역계 질환이 합쳐진 것이다. 단순히 이비인후과적 질환만이 아니다. 코는 몸속의 독이 밖으로 표현되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비염은 알러지와도 관계가 있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쉽게 발병한다. 위산 부족과 장운동 저하로 비염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다양한 원인으로 비염은 생긴다.

비염이 있으면 소화기능도 떨어져 잘 체하고 신경성 위염, 과민성 대장증상에 시달리기 쉽다. 필자의 임상경험에서 비염은 치료하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평생 낫지 않는다.

#필자 선정 비염치료법

① 식전에 식초 큰숟가락 1개 + 생수 반컵을 마신다.
식초수는 위산분비를 촉진해 위운동을 활발하게 한다. 가슴에 양기가 충만해져서 비염이 좋아진다.

② 우유, 기름기 있는 음식, 맥주를 피한다.
우유에 있는 유당은 장기능을 저하시키고, 맥주와 기름기 있는 음식(튀김, 삼겹살, 빵, 과자)은 간기능을 저하시켜서 비염을 만성화한다.

③ 하루 1시간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자.

④ 비염에 좋은 어성초나 유근피를 차로 우려서 하루 500ml 정도 수시로 마신다.

⑤ 비염에 특히 효과가 좋은 이침, 약침치료와 전문비염한약처방을 꾸준히 해보자.

한가위 맞이 현불샵 특별전 17% DC

전통오동나무참숯반닫이에 소중한 물건을 보관하세요!!!

주의!! 서랍장 큰 충격을 주지 마세요.
사용하기 전 7일 이내 반품 가능합니다.

옛고방 전통오동나무 참숯반닫이 (압축 참숯부착)



- 대한민국 명장 가풍국선생(명장04-14호)께서 디자인 하시고 직접 검수 후 검수필증 부착.
- 습기를 피해 쾌적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고급 반닫이(숯판부착).
- 장마철에 주의해야 할 옷이나 수의도 안심보관.
- 제기 및 제수용품 보관함, 보석함, 고가의 도자기 등 귀중품 보관으로도 OK!!!

전통 오동나무 참숯 반닫이의 특징

고급 가구재인 오동나무와 참숯판을 접목시켜 **습기제거, 탈취, 항균 등의 기능**을 더한 고급 반닫이입니다.
더운 여름 장마철에 습기때문에 보관하기 어려운 **수의, 제기, 옷, 서류 등** 귀중품 보관이 용이합니다.
집안 어디에 놓아도 보기좋게 어울리는 인테리어 효과 만점입니다.


수의 등 수납한 모습


제기 등 제수용품 수납한 모습

· 가 격 : 대형 ~~₩238,000~~ ⇨ ₩198,000 (17% DC)
[가로 73cm × 세로 41cm × 높이 65cm]
소형 ~~₩198,000~~ ⇨ ₩158,000 (17% DC)
[가로 59cm × 세로 41cm × 높이 65cm]
· 재 질 : 오동나무, 오동나무합판(뒷면), 신주장식
참숯판(굴참나무 100% 국내산)
· 원산지 : 한국 · 제조원 : 옛고방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38,000원~~(희담석합장주, 염주, 염주 주머니) ⇨ 32,300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 로즈마리는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 라벤더향은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21

▷ 문의 : TEL 02)2004-8214,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 가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 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이 되어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 계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주)현대불교신문사

불자결혼 인연찾기
홀로 외로운 독신남녀
초혼, 재혼 70세까지
성실한 男, 착한 女 상담환영
불자님 자녀 인연 맺어 드림
02)365-1345
010-9114-4345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가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전문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울산)

역학개인지도
한문과 용신격국 몰라도 물상으로 철학 배우면 바로 상담할 수 있음
짧은 시일내에 실제감정위주로 신수와 영가탈 배워 천도재 지낼 수 있도록 강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역학·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2.최면, 전생요법, 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 속성과정 (출장지도가)
4.빙의, 전생, 우울, 공포증, 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우주大광명 천기(氣)도법
우주 氣편지 받고 부처님 신통력 업장소멸
- 건강, 인생, 우환, 사업이 잘 안되는 분.
- 영적장애, 신내림 등 고통받는 불자, 수행자.
- 빙의, 신병,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등
- 병원치료, 최면술, 천도재를 해도 안되는 분.

031)321-9555
011-586-6091 일광사

요가 개인, 출장지도
요가 명상 무료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 명상, 오후 : 요가)
위치 : 종로2가 종각역 4번출구
사띠 요가 명상원
02)723-6817

후 불 탱 화
가로 4m × 세로 1.6m, 조성 5년
필요하신 스님들께
저렴하게 보시하겠습니다
010-5153-0052

법우림 스님 소원성취기도
- 소원성취 · 21일 · 백일기도 수시접수
- 천도재 · 49재 · 태아영가천도 수시접수
- 개인 사정과 사찰 형편에 맞게 의식집전

부 설 : 동양철학상담센터
기도성취 전법도량 자성사
문의 서울)02)3663-8416
문경 1566-84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울산
010-6783-1208

부전스님 (비구스님) 모십니다
▷경기 여주 청운사
010-8819-8988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전
042)282-9270

기도도량 약천사
같이 더불어 운영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 (40대)을 모십니다.
공양주 보살님도 모십니다.
061)781-6328
017-621-6328

달마 및 그림에 조예가 깊으신 스님 모십니다
(출퇴근, 숙식 모두 가능)
▷대구 팔공산 약사암
053)851-1080

참선기도도량에서 법우들과 포교하는 법사입니다. 맘껏 기도하고 포교할 수 있는 기도처를 찾습니다.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가능
02)2665-9690 보광 법사

보담 스님의 하늘 소리
천도재, 사십구재, 구병시식, 법문, 지장보살님을 95년도에 친견하고 지금까지 영가천도를 위해 실행합니다.
010-9444-0035

쉼터 약수암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수암 비법
약사여래 가피로 만병을 환부 손으로 직접 뽑아 버리는 신비의 약손
치유, 빙의, 정신병, 신경통, 위장병, 요통, 중풍, 갑상선, 우울증 등 잡신의 병.
•사업성취 업장소멸 여러가지 상담을 기다립니다.
*노숙자 식사제공, 스님 건강 보살펴 드림
010-7232-0384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 40~50세
양평 용문면
010-7484-688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011-533-078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은평구
02)359-7317
011-216-7317

공양주 보살님 비구,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경주 암자
054)777-2796
011-876-5078

산사에서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부도 가능
011-696-8500

전통 범패 배우면서 행자, 스님 하실 분
▷무료탱화필요하신분
경남
016-428-6665

독도탱화불사 모금사 모집
독도에는 절이 없습니다. 탱화에 그림으로 모십니다. 모금사 사암주지 50%. 납입조건으로 울릉도 충북영동 만불전에 이름올려드립.
자기소개, 사진첨부, 신분증사본, 주민초본.
043)745-3010
054)791-3010(6시-9시)
저작권 : 도평 스님
충북 영동 독도탱화 모금본부

주역을 통한 한방 역학 및 사주명리학 대강좌
(사주학대비 체질의학 특별강의)
석진성 돈오전법원에서는 동양철학과 불교를 회통한 전법강의를 개설.
스님과 함께하는 방편과 깨달음 (근본 실상자리)으로의 여행에 많은 학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011-1747-8558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거사나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작은스님의 큰 깨달음
지식은 나를 살리고, 지혜는 모두를 살리고, 경험은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은 실로 보고 들을 수 없느니. / 몸과 마음, 휘고, 뒤틀리고, 쑤시고, 결리고, 세상의 모든 질병을 달고 사는 매우 불편한 종합병원 같은 중생. / 기도, 명상, 명리학, 침술, 병고침, 다이어트! 배우긴 했어도 도대체 정리가 안되는 중생. / 모두 피안의 길로 안내하리. / 세상사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법. 그것을 알아내면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니. / 불보살의 가피를 진정 알고 싶은가
연락처 : 031)386-3967 / 시 간 : 낮 1시 ~ 6시까지
치유, 명상의 건립터 필요함.

도반 찾습니다
병신생 비구승입니다.
물 좋고 경치 좋은 암자에서 황토집을 짓고 요양 기도하며 함께 지내실 보살님 인연 바랍니다.
018-406-3073

부처님 가족 모심
기도하며 무료 명리 배우실 분
신심있는 스님, 남녀
011-223-3334

주지 및 사찰 관리자 자리구함
법회때 한자 적절히 사용
환희심 나는 법문 해드림.
현재 천년고찰 노전 소임 중
50대 초반. 청정비구(순종)
혜안 사문
010-2606-1299
(개인사찰은 장기적으로 매입가능)

수행하시는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조용한 사찰, 본인이 원하시면 사주 공부도 가능.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합니다.
010-9169-6669
혜명스님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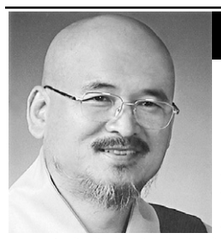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www.kbs.cc

월간역학
월간역학은 1990년 창간되어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뿐만 아니라 유 불 도의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싣습니다. 1년 구독료 10만원을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광고(1백만원)+수맥탐지봉(만5천원) 등 푸짐한 상품과 회원증, 해설위원 위촉장을 보내드립니다

불자가 정성스럽게 만든 수 제품입니다
요술연꽃 촛 대 (불자 및 가정용)

요술연꽃세트(홍련→백련) 장수거북연꽃세트
특 징 (티라이트전용)
1. 경제성 : 1회용이 아닌 반영구성
2. 친환경 : 천연왁스만을 태움
3. 다양성 : 카멜레온 기능(요술)
4. 메시지 : 종교적 의미(홍련 ➡ 백련)
가 격
- 요술연꽃세트 15,000원 (연꽃, 받침대, 티라이트 1개 포함)
  - 연꽃크기 : 직경 8cm
- 장수거북연꽃세트 23,000원
egaart www.egaart.co.kr ☎ 031)882-0512 Fax. 031)881-6201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보름단기출가학교 모집
수행자의 모든것을 경험
- 일시: 10월 5일(월)~10월 19일(화)
- 대상: 대학생 및 일반인, 50세 미만, 미혼인 남자
- 대구큰절 · 감포선방 동시 교육, 참선, 기도 교리습의등
- 송호 우학스님 지도 및 법문, 교육비 전액 무료, 선착순
- 문의 : 010-2488-822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원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자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명당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를뿐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 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74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 만 5천 6백원)+수맥 탐지봉(1만 5천원)+휴대용 케이스(2만원) 무료 기증해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74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하루밤이면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입금, 전화(1688-1137) 주시면 저자가 직법 사인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8천 8백원) 무료 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주역 사주 관상 풍수지리 수상 육효 자미두수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고 확실하게 공부. 수료증 자격증

도율스님 자연치유 (自然治癒) 강좌
각종의 난치병 선치(先治) 후불(後拂)

자서기유법의 특징
무통, 무혈, 안전하며 비용이 저렴하여 쉽게 배울수 있으며 치유효과 뛰어나며 재발이 없다.

교 육 대 상
스님, 법사, 일반신도, 대체의학종사자, 카이로, 지압, 뜸방, 피부관리사, 좌욕, 체육관, 사찰, 본인, 가족 중 투병자, 등.

호 전 체 험
위 관련된 분들은 주위로부터 사기(邪氣)를 받게 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운기에 따라 병고가 깊어지는 현상을 막을수 있으며 자석편 세트로 본인의 건강을 평생 관리 할 수 있음. 교육은 철저한 임상주의 교육이며 요통, 술통, 골반교정, 비염, 치질, 변비 등은 교육 중 호전 체험.

강 의 : 매주 목요일 2시간씩 1개월 교육비 20만원
자석편세트 구입시 2만원
치유상담 : 010-3810-6158 (출장가능)
사암오행침 연구회(숨岩 五行鍼 硏究會)
자기(磁氣)뜸 개발자
도율 (道律) 합장 010-3810-6158

대구시 북구 읍내동 1122번지 4층
한국불교사암총연합회
대승사 불교대학 강의실 053)325-0400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돌고래 슈퍼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1호!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기름값 대비 80%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 · 포교당 ·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 · 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돌고래 슈퍼 에너텍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334-5 / 사무실 : 02)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혜광사
- 법 명 : 혜문 (시동준)
- 주 소 : 경북 경산시 상북동 222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오후 마감. 다음주 금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법당 : 42(목조)
- 요사 : 60평
- 부지 : 4700평
- 가액 : 8억

- 위치 : 경북
- 법당 :18평
- 요사 : 70평
- 부지 : 5000평
- 가액 : 7억

- 위치 : 부산
- 법당 및 요사: 120평
- 부지 : 120평
- 가액 : 3억 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 부지 : 100평
- 건평 : 90평
- 시내
- 가액 : 10억 5천

- 위치 : 경기
- 대지 : 2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 위치 : 지리산
- 부지 : 410평
- 법당 : 35평외
- 요사 : 80평
- 가액 : 4억5천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영도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총대지 : 약 100평
- 법당 (와가) : 25평
- 주지실 : 15평
- 요사채 : 방 4개
- 산신각
- 가액 : 2억 8천

지리산 아름다운 절

- 대지 총평수: 420평
- 법당(와가) 20평
- 요사채 3동
- 도량주변 산세, 풍광
- 주차장 및 텃밭 마당넓은 절
- 가액 : 1억6천(은행 5천 포함)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및 암자, 토굴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비밀보장 철저, 세무상담 무료 서비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소재
- 부지 : 약1,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 7포)
- 명부전 : 40평(목조, 단청 3포, 7포)
- 요사 : 60평
- 산신각: 7평(목조, 단청, 닷집)
- 기타 : 종각, 석불, 석등 ●가액: 12억원
- 특징 :대작 불사된 대가람임

- 위치 :김해시소재
- 부지 : 약 30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3포, 7포)
- 요사: 2동 70평
- 영가전: 50평
- 기타: 산신각, 석탑등
- 가액:18억원
- 특징: 100년 역사의 전통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전통사찰(급) 안내

- 납골당
- 관광사찰
- 가액 : 38억
  (금액조정불가)

010-3683-2578

사 찰 안 내

소나무 숲속바다가
보이는 암자
2천에 3십만원
놓치면 후회합니다

010-4457-68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산 동래
- 현 법회 기도중
- 3층 건물 중 2층 50평
- 스님 공찰 소임관계로 급 안내
- 가액: 전세 1천만원 월 55만원
- 문의 오후 5시 이후

017-586-56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구제봉 줄기
- 임도 삼리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
- 총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한 국 불 사

- 서울 약 50평 9억
- 경기도 4억 8천만원 외 매물 다수

※전국 사찰 부지등 양도 양수 하실분 전화 상담하여 드립니다
※재개발 지역 보상문제 상담환영

02)6674-3535
010-3154-3535

포교원 안내

- 위치 :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교대입구 1분거리
- 평수: 30평, 삼존불, 각단탱화 모셔있음, 종무소 법당 에어컨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500만원 월4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8653-3216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3동
- 2층 .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051)501-2723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 평수 : 55평
- 법당 완벽, 호신불 150불
- 오존불, 탱화
- 시설일체완비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6215-9749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광진구 구의사거리
- 평수: 55평, 2층건물에 2층
- 삼존불, 지장보살님,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시설비 900만원

010-7188-2981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줄기 소나무 숲
- 총면적 대지 320평
- 답, 임야 330평
- 건물 4동
- 가액: 답사 후 절충 가능

055)882-03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 후문 부근
- 5층 건물에 3층 약 40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 85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 상담하시는 스님 최적지

010-7104-2138
010-9940-977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도심 속 100년 된 암자
- 법당20평, 요사20평, 산신각3평, 용왕당3평
- 포교하실 분 (비구니 스님)적합
- 대지 총 280평, 국유지 (주차장)100평
- 가액: 2억 9천만원

055)355-1275
010-9313-1381
010-9411-3813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감만동 대로변
- 3층 건물에 3층, 40평
- 옥탑방 2칸 사용가능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옥탑방 포함)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8108-0108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광안 3동 망미 지하철 입구역
- 2층, 30평 전체 (법당, 주방, 방1칸, 목욕탕, 창고)
- 항시 기도법회중
- 모든 집기 일체
- 시설 완벽, 즉시 법회 가능함
- 가액: 집세 500 만원 / 월50만원 시설비 2000만원
- 스님 소임 관계로 급

051)752-5856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 삼존불 아미타 관음 지장 108원불 탱화 후불 신중 칠성 산신, 집기일체
- 법당40평, 방3개
- 보증금 500만원,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2038-7704

임 야 안 내

- 위치:경남 창영
- 평수: 임야 약 1만평
- 특징: 암자터 좋은 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 가액: 6천 5백만원

010-7325-1259

포교원안내

- 위치 : 경기 구리시 교문동
- 3층중 2층 50평 대로변
- 법당 25평, 방 3개, 주방 大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가능)

011-9342-9794

포교원 최고의 요지

- 위치: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1번출구 앞
- 포교원 임대 하실 분
- 90평형, 130평형

010-3400-9400

사찰(급)안내

- 위치: 왜관읍에서 5~7분거리
- 평수: 516평(2필지)
- 법당, 단청,20평 요사 2동 (산 밑에 있음), 잔디 마당, 지하수 +수도
- 특징: 청정지역으로 마당에는 메뚜기가 ,놀고 밤에는 반딧불이 반짝임
- 가액: 3억 8천만원 (대출 4천만원 있음)

개인 사정으로 시세 이하 계산함
010-3007-561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5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20평, 요사2동 2동 중 황토방 1개, 산신각, 실내외 화장실3개
- 가액 : 5억 5천만원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 근교 (4층) (지하철 5분거리)
- 평수 : 약 30평
-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550만원
- 모든시설완비,즉시법회가능

010-5280-0260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 3층건물중 3층 전체사용
- 법당 70평, 요사채 30평,
- 공양간 10평, 휴식공간 30평 사무실1, 방6개. 시설 최상급
- 보증금 3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상담 후 절충가능

010-4199-0047

암 자 안 내

- 위치: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 요사채 1, 작은법당 1
- 가액: 6,000만원

011-723-6640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군 무안면 운정리 노리실 석불암
- 대지 450평, 법당 50평 요사채 20평
- 가액: 9500만원

055)356-5322
051)254-3016
016-832-5114

인법당 안내

- 위치 : 논산시
- 부지 : 520평, 건평 40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일체 시설완비

041)733-0925
010-4157-0925

작 은 토 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 평수 : 대지 110평 (건평 30평)
- 임법당
- 가액 : 1억원

033)434-2916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 (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 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18평 1동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 (은행융자 8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사 찰 안 내

- 위치 : 산청군 시천면 동방리 620 지리산
- 평수: 법당 15평, 탱화(지장, 신중, 산신) 요사채 방 3칸, 후원
- 흙집, 단청 완료
- 가액: 1억

011-895-2258

포교원안내

- 위치 : 양산시 웅상읍 덕계리
- 대지: 200평, 건평: 50평(1층, 2층)
- 2층법당, 삼존불
- 시설 완벽함,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1000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권리, 비품대) 8000만원

016-9620-0990

사 찰 안 내

- 위치 :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 산 70-3번지
- 대지: 1,000평
- 임법당: 16평, 삼존불, 마애불 (도 문화재 지정 사찰)
- 현재 공양간, 요사채 토목공사중
- 가액: 1억 2천만원(절충가능)

055)882-7887
010-2428-3663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1동 동부산 대학교입구
- 평수: 30평 , 3층
- 가액:보증금1천만원, 월25만원 시설비 2천만원

051)545-5572
011-590-5758

암 자 안 내

- 위치: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
- 대지 124평, 법당 13평
- 요사채 24평, 방 2, 현대식거실, 주방, 2층 다락방1
- 가액: 2억 2천 (융자 5천 5백 포함)
- 마을안 전원 주택같은 암자

010-9249-19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금호읍
- 방 15평, 지장 보살
- 방 4, 거실, 주방
- 종교부지 200평
- 주차장, 텃밭 176평
- 심야전기, 지하수
- 가액: 2억 3천 만원

011-769-702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시 북부동
- 법당(삼존불 외 호신불), 방2, 공양간-30평
- 보증금 500만원. 월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055)364-3525
010-4531-3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 총 2,000평 (종교부지165평)
- 법당 15평(단청),산신각 5평 (단청),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양도가 : 2억(가격절충)

010-5430-3963

신도시부근사찰

- 경기북부 시내중심(도보10분거리) 풍치 수려한 절
- 부지 680평(실사용 천평이상)
- 대웅전 20평, 요사채 2동 (100평 30평) 창고 2동. 시설좋음
- 전철역(2블럭) 개통예정
- 잠실,강북 30분거리 포교와 수행의 최적지
- 가액: 인근 그린벨트 주택가 평당 500만원 선이나 상담후 절충가

011-393-0013
011-710-7294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230평, 건물 법당 25평,요사 30평 2동
- 주차시설 완비
- 가액: 6억 5천만원

- 위치: 부산 중심지 사찰
- 대지 79평, 건물 25, 슬라브 2동
- 가액: 2억 5천만원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역 2~3분
- 대 350평, 임법당 60평, 방6
- 산 밑에 조용하고 교통 편리함 (지하철, 시내버스) 주차 여러 대 완비, 향후 앞 도로 전철 연장
- 소요산 관광특구, 종합레포츠단지, 드라마세트장 등 주변 우수한 개발 지역
- 가액: 6억(전세 1억) 즉시입주

011-9128-2069

포교원(급)전세

- 위치 : 관악구 은천동 봉일시장옆
- 실평수 50평. 3층에 3층(옥상사용)
- 법당삼존불, 신중, 산신, 용왕탱화, 영가단
- 스님방, 공양간, 사무실, 욕실, 창고
- 가액: 3천에 월 1백만원(보증금 조정가능)
- 꼭 하실 분만 연락 주세요

010-3550-1180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정년퇴직 불자 가족
나무 꽃 잔디 가꾸며 남은 여생 지낼분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큰방2, 작은방2,거실, 욕실, 화장실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5천 5백만원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포교원(급)안내

- 위치: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 평수 : 약 60평 4층
- 구조: 법당, 주방, 방5, 욕실2, 창고2, 옥상사용, 옥상가건물 약 25평, 창고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님,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 104위, 산신탱화, 호신불 관음지장 108원불, 인등 400기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모든시설완비, 즉시 법회가능함스님사정상 급

010-4457-5478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대지 357평, 인법당 37평
- 요사 25평, 창고건물 10평, 3층 석탑
- 30년 이상 사찰연대●정원수 많음,
- 연등 300개, 인등 250개 현재 켜고 있음
- 모든것이 안정되고 구비된 사찰
- 가액: 2억 6천만원(절충가능) 시설비: 3,000만원

010-4529-4888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고령쌍림국도접, 대구 30여분
- 대지: 약 800평, 건평 약 80평, 법당 30평, 삼존불, 방 7개
- 노인요양원 및 사리불 안치계획, 불교특화사업가능
- 가액: 융자 9,700만 안고 9,800만 입주(시세반값)
- 잔금 5천만원, 인수할 인연자에게 불사하여 최대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017-501-2315

세포 속에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강 사 : 김규원 서울대 약대 교수
일 시 : 2009년 9월 16일
주 제 : 세포 안에 펼쳐진 연기의 세계
장 소 : 우면산 대성사 법당
주 최 : 서초 반야회(법조인 불자모임)

김규원 교수는 1976년 서울대 약대를 졸업, 1985년 미네소타대에서 분자생물학 박사과정을 거쳤으며, 1987 부산대 분자생물학과 조교수, 1999년 혈관연구회 창립, 2000년 서울대 약대 교수로 부임한 후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신약개발로 연결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2003년 세계 최초로 뇌혈관장벽의 SSeCKA라는 단백질이 뇌혈관 구조를 만들고 유지한다는 사실을 규명해 그 내용을 <네이처 메디슨>에 발표했고, 2005년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에 선정되고 호암의학상, 제1회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등을 수상 했다.

서초반야회는

서초반야회는 불자 법조인들의 신행 모임이다. 1995년 2월,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에서 일하는 불자 판·검사, 변호사, 법원 및 검찰청 직원, 법무사 50여 명이 뭉쳐 첫 돛을 올렸다. 당시 손수일 판사가 우면산 대성사 도문스님을 친견하면서 모임이 본격화됐고, 현재 회원이 150여 명으로 늘어나 대표적인 불자법조인 신행단체가 됐다.

반야회는 창립부터 지금까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대성사에서 법회를 갖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으시고 처음으로 설하신 <화엄경>. 이 화엄경을 7언 30구로 정리한 의상 스님의 법성게에는 '작은 티끌하나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는 일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란 구절이 들어있다. '진리'는 어디서나 통한다. 불교의 진리를 현대과학이 점차 증명해 내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김규원 교수와 불교와의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 교수는 "고등학교 때 우연히 '팔만대장경'을 읽은 뒤 불교의 '인과론'처럼 세상의 사물도 네트워크로 연결돼 상호작용하다는 시각을 갖게 됐다. 생명체를 들여다 볼 때도 항상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부터 생각한다"고 말한다.

미지에 대한 탐구욕이 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의 근원을 알고자 연구하는 김 교수가 불자 법조인들의 신행 모임인 '서초 반야회'의 9월 정기법회에 법사 겸 강사로 법당에 섰다.

#세포안의 연기법

부처님이 깨달으신 연기법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다'는 인과의 법칙 즉 연기법으로 무명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즉 세상 만물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 안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와 다른 세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의 화엄사상은 연기의 세계를 '중중무진(重重無盡)'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의 사물은 단절되어 개별적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은 끊임없이 연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현대과학 분야의 연구가 어떻게 이런 '연기사상'과 결부되는지 세포 안에 펼쳐진 세계를 중심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포 레벨에서 보면 여기 있는 세포가 번식하면서도 그 안에 세포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세포가 유전하면서 전해집니다.

'나(我)'임을 규정하는 비밀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아(我)라고 합니다. 과학에서는 나를 구성하는 것을 피와 살, 몸 안의 조직, 그리고 조직안에 세포로 구성되어있다고 봅니다. 서양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기본단위는 세포라고 파악합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인 세포는 한 사람의 몸에 50조 개가 있고, 이 세포의 종류는 220종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지닌 세포의 수가 더 많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 변해가는 과정을 생(生), 노(老), 병(病), 사(死) 라고 합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어 결국 죽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 개체로 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고(苦) 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늙어가면서 모습이 변해가도 '이것이 나다' 라고 자각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유지가 됩니다. 늙어가면서 모습이 변해가지만 사람의 모습을 유지시키는 것의 비밀이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는 끊임없이 분열과정을 거치면서 그 모습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변해 가는데 그래도 나라고 규정되는 것은 세포의 특성 때문입니다. '세포가 어떻게 해서 이런 특징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세상 만물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 그 안에서 상호작용
모든 세포는 서로 도움주며 소통해야 생명체로 기능해



이날 강의는 저녁 7시 부터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사진은 강의가 끝나고 김규원 교수에게 질문하는 서초반야회 회원들의 모습.

#세포의 비밀 DNA의 발견

개체를 결정짓는 특징- 유전정보의 전달은 박테리아, 사람, 식물이 모두 같이 전달됩니다.

세포 핵 안에 들어있는 물질이 그런 특징을 구성짓지 않을까라는 질문은 1950년에 밝혀졌습니다.

1953년 왓슨(James Dewey Watson)과 크릭(Francis Crick)은 DNA가 '이중나선(double helix)구조'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면 간단한 것인데 그때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장의 논문으로 1962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지난 50년간은 '분자생물학의 시대'라 하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생명과학분야의 연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즉, 우리가 진화를 할 수 있게 개체의 유전정보가 들어있는 것은 A, C, G, T로 구성된 DNA(데옥시리보핵산, deoxyribonucleic acid)입니다. DNA의 놀랄 만한 성질은 이 물질이 정보를 저장하는 매우 능률적이고 튼튼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DNA의 이중나선은 유전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수월하게 합니다.

그리고 DNA는 아데닌(adenine)(A), 시토닌(cytosine)(C), 구아닌(guanine)(G), 타민(thymine)(T)이 결합한 것입니다. 이 염기들은 DNA의 가닥 전체에 걸쳐서 어떤 순서로든 배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몸은 생존해 있을 때 동일한 자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독특한 형태를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생명과학에서는 우리 몸 구성의 기본단위인 세포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포속의 유전정보가 복제되어 다음 세대의 세포로 전달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일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유전적 특성이 결정됩니다. 이것은 알파벳의 자음과 모음 배열모양에 따라 시가 되고 소설이 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DNA 가닥 전체에 걸쳐 배열한 염기들의 순서가 유전정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현대 모든 세포들과 많은 바이러스의 유전자는 DNA 입니다. 그리고 DNA의 구성요소는 사람 동물 박테리아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DNA들의 배열순서가 달라져서 각 생명체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냄으로,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자아, 즉 나의 육체는 이러한 DNA 배열순서의 고유성에 기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수정란 세포로부터 수많은 분열과정을 거치면서 유전자들이 어떻게 작용되는가에 따라 뇌조직세포, 골격세포, 피부세포 등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세포들로 분화되어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합니다.



#어느 세포도 홀로 존재할 수 없다

유전자들은 하나의 수정란 세포로부터 동일하게 복제되어 분열된 각 세포 속에 저장되어 전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수십조의 세포들은 분화과정을 거쳐 그 특성이 다르면서도 그 유전정보의 총합은 동일하고, 하나의 세포 속에 모든 세포들의 유전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속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엄경> 법성게의 일중일체다중일 (一中一切多中一 : 하나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으며) 일즉일체다즉일 (一卽一切多卽一 : 하나가 곧 전체이고 전체가 곧 하나이다)라는 말과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분자생물학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포하나에 모든 유전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변화가 있는가' 하고 생각이 들지만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에서는 끊임없이 분열하고, 죽고 생성되고 있습니다. 세포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생명현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세포는 고정됨이 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합니다.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이 연기와 부합되는 부분입니다.

다세포 생명인 사람의 세포들을 보면 계속 분열하고 각 기관의 세포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깨뜨릴 수 없습니다. 결국, 인체를 구성하는 세포는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세포와 다른 세포가 서로 도움을 주고 받고 소통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정리=박선주 기자 sunjoo0802@naver.com

불자정보 750호 |

TEL 02) 2004-8213(直)
732-1522
FAX 02) 737-0696

암자안내
- 위치 : 강원도 강릉
- 법당 20평, 요사채 60평
- 별채 8평,
- 부지 400평(등기 150평)
- 가액: 9천 8백만원

010-6695-0115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운문면
- 평수 : 780평
- 평당 18만원
- 건물 1-26평
- 건물 2-20평
- 건물가액 : 8천만원

054)371-6029

사찰적합주택
- 위치:경북 군위군 군위읍
- 평수: 140평
- 집뒤 천년 미륵부처님
- 마당 넓음, 주차 가능
- 가액: 5,500만원

010-8203-2298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 사하구 괴정 1동 도로변(주위 아파트단지)
- 2층 건물 중 2층 ● 평수 : 45평
- 삼존불, 후불, 신중탱화, 지장관음 소불 108불, 완벽한 시설, 현 법회중
- 가액: 보증금 3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11-837-2420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동부지청부근
- 평수: 30평 , 방 2개
- 3층 건물에 3층
- 시설완비,즉시법회 가능
- 가액: 보증금 2천만원,월 20만원

051)782-0110
010-3101-1151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창원
- 평수: 72평
- 10층 건물 중 2층
- 시설완벽
- 가액: 1억 5천만원

010-7188-772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내
- 대지 33평, 건물 2동,
- 도로인접, 주차, 교통편리 집기일체 양도
- 가액 : 답사 후 절충

055)744-4879
010-8223-4879

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동림동 예술회관 맞은편
- 대지 133평, 건평 30평
- 가액: 1억
- 따뜻하고 조용한 집

011-855-678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내 중심가
- 최고 위치, 최고 시설
- 삼존불, 4층 건물 중 2층
- 평수 42평
- 가액: 전세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700만원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세요
010-5453-5535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안양 종합운동장 정문앞
- 평수: 45평 제반시설 완벽 구비
- 몸만 와서 포교활동 할 수 있음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스님 건강 관계상 급 양도

011-9108-5484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고현면
- 부지 총 2,000평(종교부지 165평) 법당 15평(단청) ,산신각 5평(단청)
- 요사채 30평,
- 저수지 물 보이고 옆 계곡물 흐름
- 가액: 2 억 (가격절충)

010-5430-3963

소백산자락큰터안내
- 위치 : 영주에서 부석사 중간 , 270m높이
- 독립구역 전 5,300평(관리지역)
- 인입도로 포장(주차장포함) 및 전기 완료
- 4개면 평지 토목공사완료로 바로 건축가능
- 아늑하고 경치가 좋음(대가람터로 손색없음)
- 가액: 평당 41,000원
- 사진참고: www.ddajuki.re.kr

016-573-2032
(원하시는 분만 연락요)

사찰안내
- 위치:경남 하동 지리산 구제봉 즐기
- 임도 삼림욕을 관광지 목적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곳
- 총 790평, 법당 20평,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주차시설완비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성서 신도시
- 평수 : 중심지 시장옆 2층 60평
- 보증금 1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협의 가능

모든시설 완비 현재 운영중
010-6506-4059

전통사찰



■ 대지 : 실,사용 (200평) 등기 123평
■ 법당 : 30평 (목조단청)
■ 요사 : 2동, 종무소 (불사리탑 5층)
■ 특징 : 포교와 전법수행 도량으로서 교통이 편리하고 서울 인접에 자리잡고 있는 전통적인 사찰입니다.
■ 가액 : 11억

010-9336-2568

서울 - 과천 - 의왕 - 수원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⑥ 문회도

남송시대 원림서 열린 시와 차의 어울림

1138년 중국 남송은 이민족인 금나라에 밀려 강남으로 내려와 임안(지금의 절강성 항주)으로 천도했다. 금나라와의 전쟁은 북송의 휘종과 흠종 두 황제가 금나라에 볼모로 잡혀가고 청동기와 서화 등 많은 수의 문화재가 약탈당해 소실되는 굴욕을 겪고 나서야 일시적 소강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금나라는 중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영토를 빼앗고 남송이 금나라의 신하가 된다는 협정을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러한 난세 속에서 남송의 첫 번째 황제 고종(재위: 1127~1162년)은 예술과 문화 사업을 왕성하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한 일환 중 하나로 황실에서는 다수의 회화작품을 제작했다. 궁중화원에 의해 제작된 다양한 선면화(扇面畵, 부채그림)는 인근의 사찰과 도관, 그리고 귀족과 문인들에게 하사품으로 배포됐다. 황실의 화원들은 구도와 필치, 섬세한 묘사 등 기술적 측면에서 수준 높은 화풍을 구사했는데 그림의 대다수는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황실과 귀족, 문인의 일상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그림들은 결과적으로 황실과 지배계층의 명예를 드높임으로써 통치의 정당화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한편, 한족의 문화적 자존심을 고취시키는 목적에도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작자미상, '문회도', 22.6x23.8cm, 비단 위에 채색, 남송시대, 대북고궁박물원 소장.

대북고궁박물원 소장의 '문회도(文會圖)' 역시 이러한 성격의 작품들 중 하나로, 원림(園林)의 누각 아래 문인들이 모여 차회(茶會)를 여는 모습을 담고 있다. 남송의 수도와 인접한 항주의 서호 부근은 강과 호수가 많아 원림에 물을 대기 쉽고 기후가 사시사철 따뜻해 원림 조성에 필요한 관상목을 구하기 쉬웠다. 그림 안에도 다양한 수종의 나무들이 표현돼 있는데 이는 실제 서호 인근에 위치한 원림의 모습과 분위기를 잘 반영하고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버드나무 한 그루가 부드럽게 휘어진 채 풍성한 잎을 드리우고 서있다. 자연스러운 버드나무의 자태는 자를 대고 그린 딱딱한 모습의 가옥과 서로 대비를 이루면서도 한 공간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자연과 인공의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할 만하다. 문인들이 모여 차 한잔 마시기에 이만한 풍취를 지닌 장소도 흔치 않았을 것이다. 그림의 세부를 살펴보면, 화면의 우측에 위치한 가옥 안에는 정좌한 주인과 두 명의 손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인물의 세부표현이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고 정밀하다. 인물들이 둘러앉은 탁자에는 찬그릇과 함께 저분이 가지런히 놓여있다. 그 왼편으로 차를 준비하는 또 다른 탁자에는 청자다완(靑瓷茶碗)과 흑칠다탁(黑漆茶托) 3세트 그리고 다병(茶甁)이 놓여있고 시동은 점다(點茶)를 준비하고 있다. 그림 속의 문인들은 아마도 요란함을 싫어하고 단정한 성품을 지닌 듯, 탁자에는 흔히 쓰이는 술도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차색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는 검은빛의 흑유다완 대신 청자다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차의 색과 모양을 애써 겨루는 투차(鬪茶)도 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문회의 성격에 따라 다완을 달리 사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이를 가감 없이 사실적으로 묘사한 화공의 솜씨가 돋보인다. 시원한 분위기의 그림 전체로 버드나무와 대숲의 바람소리가 들리는 듯한데, 그 속에서 사대부들은 누각에 앉아 한가로이 차담을 나누고 있다.

조선후기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초의 선사는 3~4명이 차를 함께 마시면 아취가 있지만 여러 명이 마시는 것은 그저 나눠 마시는데 불과하다고 했다. 문인들이 풍류를 즐기며 학문과 예술을 교류하던 소규모의 문회는 여타의 큰 모임과는 달리 형식은 간소화돼도 시적인 정취만큼은 한결 높아졌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그림은 차가 있는 문회의 이상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이를 정확하게 묘사하는 필력과 함께 시적인 정취를 잃지 않았다. 더불어 그림이 현실 세계에 대한 긍정에서 출발한다는 당시 궁정의 예술관을 잘 보여주고 있어 의미가 깊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③ 보원사지(普願寺址)



사라진 풍경 앞에 섰다. 바라볼 수 있는 건 오래된 석탑 하나와 짙게 물든 은행나무 하나뿐이다. 군데군데 돌무더기가 밑그림만 그린 그림처럼 남아있을 뿐, 그 옛날의 가람은 사라지고 없다. 사라진 풍경 때문일까. 찾는 이가 없다면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을 것만 같다. 저 멀리 당간지주가 목을 길게 빼고 서있다.

절터를 찾은 두 연인이 멈춰선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하고, 사라진 풍경은 또 한 번 멀어져 간다. 이제 촛불을 켜던 자리엔 밤마다 달빛이 모여들고, 죽비가 걸렸던 자리엔 산 그림자가 걸린다. 저 빈 절터에 남은 밑그림은 사라진 풍경의 흔적일까. 아직 그리지 못한 그림의 진짜 밑그림일까. 지나간 시간이든 다가올 시간이든 그 시간을 보고 싶다.

詩가 있는 도량

▪ 뱅크셔나무처럼

산불이 나야
비로소 번식하는 나무가 있다

씨방이 너무 단단해 뜨거운 불길에 그을려야만
씨를 터뜨린다는 뱅크셔나무

제 몸에 불을 붙여서라도
황무지에 알을 슬고 싶은 뱅크셔나무

장전된 총알들, 그러나
한번도 불길에 휩싸여본 적 없는 씨방

모든 것이 타고 난 뒤에야
검은 숯 위로 연한 싹을 내밀고 싶은

–나희덕, 시집 〈야생사과〉에서

옛 판화의 세계

시서를 모두 쉬다 병식시서(倂息詩書)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의 스님인 석교연(釋皎然)이 선(禪)하는 사람에게는 시서(詩書)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뛰어났던 시서를 버리고 선에 정진하는 모습을 판각한 작품이다. 석교연은 중국 당중기의 선승(禪僧)으로, 속명은 주(晝)이며, 속성은 사(謝)씨로 장성사람이다. 진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 사령동(謝靈運)의 10대손이며, 현종 때 출생했고, 출가 후에도 시를 좋아하고 고전을 많이 읽어 당시의 명사들과 교제했다. 또한 시명(詩名)이 높아, 제기(齊己), 관휴(貫休)와 함께 당의 삼시승(三詩僧)으로 꼽힌다. 저서에 시문집 10권, 시식(詩式), 시평(詩評), 유석교유전(儒釋交遊傳), 내전유취(內典類聚) 등이 있다. 차(茶)에도 조예가 깊어 다신 육우(陸羽)와도 교분이 있었으며, 다도(茶道: 차를 마시고, 도를 깨닫는다)란 말도 스님의 "세 번 마시면 곧 도를 깨닫는다(三飮便得道)"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계(東溪)의 초당에 거처하면서 시서(詩書)가 선(禪)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니 이것을 모두 그만두고자 하여 스스로 자기 마음에 타일렀다. '설사 공자와 같은 박식과 서신과 같은 다문이 있어서 마침내 내 눈앞에서 도를 자랑하고 의리가 풍부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진실한 자성을 어지럽게 하기에 꼭 알맞은 일이 될 따름이다. 그것이 어찌 외로운 소나무 한조각 구름이 좌선하는 자리와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말없이도 합치하고 지극히 고요하면서 자성과 같아지는 일만 하겠느냐? 나는 곧 서봉으로 들어가 소나무와 구름과 짝이 되겠다. 저술한 시식(詩式)과 여러 문필들은 모두 잠재워 기록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내가 피곤하면 너는 힘들게 일을 하고 네가 고단하면 나는 어리석어진다. 너 때문에 헛갈린 지 수십 년 동안 아무 얻은 것도 없다. 하물며 너는 외부의 물건인데 왜 사람들에게 누를 끼치는가? 머물러도 이미 무심하니 떠나도 역시 나는 없다. 너를 놓아주어 각기 본성으로 돌아가게 하여 물건은 스스로 물건이 되게 하고 나와는 관계가 없게 한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며 제자에게 이것을 내버리게 했다." 수행정진을 위해 시서인의 생명과도 같은 붓과 벼루를 버리고 세속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소나무와 구름과 짝이 돼 수행하는 선사들의 모습이 그리운 시대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병식시서(倂息詩書)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성화미술원 내 전시관 : 031)591-1022
• 휴 대 폰 : 011-302-1022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산37번지
성화미술원 공장내 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지허스님 지음
135쪽 | 5,000원
선방일기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중생으로 시작해서 인간으로 끝납니다. 부조리한 백팔번뇌의 인간이 조화된 열반에 이르는 길이 바로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감산대사지음 · 대성스님 옮김
247쪽 | 8,000원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집착에 있다.



한형조 지음
333쪽 | 8,000원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만법귀일(萬法歸一) 선(禪)에서의 모든 물음은 하나로 귀착된다. "너는 대체 누구냐?"

현대불교@쟐터
www.HyunbulShop.com
기존의 「여시아문」이 「현불샵」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불교상품에서 일반용품, 불교도서, 음반, 각종 이벤트 등
「온라인쇼핑몰 현불샵」을 인터넷에서 만나보세요.

현대불교 현불샵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땅에 박힌 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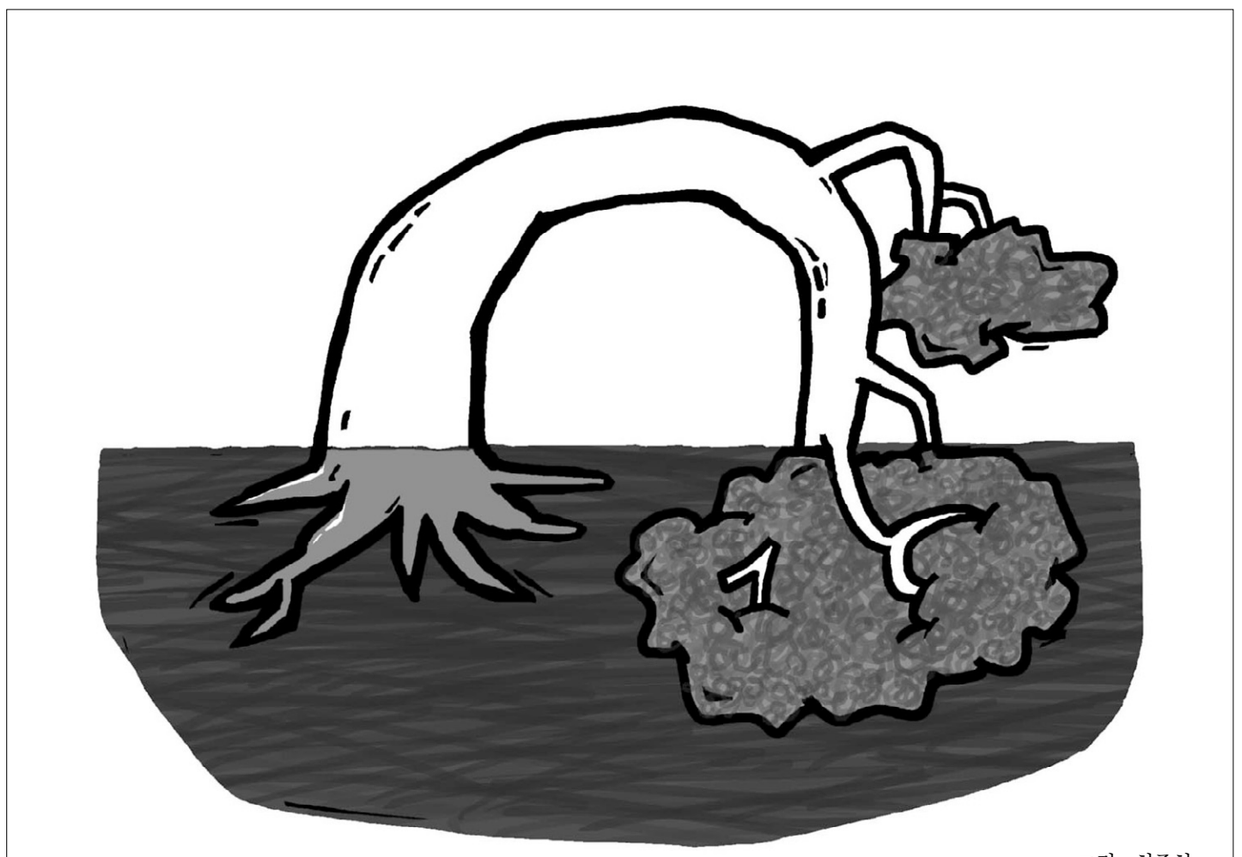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저는 이날까지 제가 산다고 생각해 본 예도 없고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예도 없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잘한다고 생각해 본 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덕 스님네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해 주시고 같이 사랑해 주시고 같이 한마음으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못났든 잘났든, 잘하든 모자라든 오늘날 이렇게 하게 된 것도 '그저 내 정성이면 되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누구에게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자 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교(佛敎)가 따로 있는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죠. 다른 종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뉴욕에 갔을 때 기독교 가톨릭교 교인들과 신부님들이 모인 세미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불교는 그저 미신의 소굴인 줄만 알고들 있더군요. 그러니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했죠. "일체 미생물에서부터 생명은 전부 불(佛)이다. 일체 만물만생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배우는 것이 교(敎)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불교 안에서 살면서 불교를 그렇게 말하느냐?" 이런 말을 했죠. "그럼 당신네들도 귀신이겠네." 하고요.

그렇듯이 불교라는 단어 자체가 그대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죽는다 해도 불교는 되남는 것입니다. 어디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우리 머리 깎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인 줄 알지 마시고 불자들이나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다' 하면 우리 지구뿐만 아니라 삼계간 온 누리를, 우주간 모두를 한데 합해서 일컫는 말입니다. 불교라는 이름 자체가 그대로 실지이고 그대로 진리이고 그대로 우리 삶입니다. 따로 불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고 가시는 그 자체가 그대로 불교며 그대로 여여하며 그대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나질 않았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상대성 원리라든가 일거수일투족이 다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것이고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다고 하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든 부처님 아님이 있겠습니까마는 백지장 하나 사이로 부처다 중생이다 하겠죠. "우리 인생은 허허바다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으니라." 한 것은 이 몸을 비유한 거죠. 여러분 몸속에 생명들이 천차만별로 모습을 해 가지고 천차만별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몸 하나가 우주와도 같고 별성과도 같고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이 안에 세계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진 그 모두를 중생으로 비유했거든요. 이 몸뚱이는 배로 비유하고 안에 들어 있는 생명체들은 전부 중생으로 비유했거든요. 그러니 파도가 치고 온통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히려고 하고 이럴 때에 중생들이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선장에게 일임해서 모두 같이 하고 마음을 편안히 둬야 그 배는 뒤집히지 않고 갈 곳까지 갈 겁니다.

비유컨대 콩을 심어서 콩나무가 됐다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죠? 콩씨가 콩싹으로 화했으니까요. 여러분 모습이 콩싹이라면 바로 그 콩싹은 또 콩씨를 열리게 합니다. 자기한테 자기 콩씨를 두고 과거로 돌아가서 콩씨를 찾는다면 아마 백년이 걸려도 못 찾을 겁니다. 그래서 콩나무가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입니까? 우리 육신을 일거수일투족 끌고 다니는 것은 나무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 뿌리가 한 나무 전체를 안고 성장시킵니다. 지분과 수분 철분을 흡수해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공기력과 태양력을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 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해서 나무를 성장시킵니다. 푸르르게 살게 말입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뜻이 뭔가를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내 고깃덩어리를 믿어라.' 하신 건 아닙니다. 내 고깃덩어리를 '따르라' 했지 '믿어라'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편안치 않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몸뚱이 속에 천차만별의 의식이 있는데 우리 몸뚱이는 그 생명들에게 뭐가 됩니까? 관리인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고 집이 됩니다, 집! 그렇다면 여러분이 물 한 컵을 잡수신다 하더라도 혼자 잡수시는 게 있을까요? 더불어 같이 먹는 거니 내가 먹었다고 내놓을 수가 없죠. 안 그럴까요? 내가 먹었다고 할 수가 없죠. 더불어 같이 먹었으니까.

그래서 "색(色)은 일체 공(空)했느니라. 공이 모두 색이니라." 하셨습니다. 왜 공했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찰나찰나 화해서 바뀌 가면서 나투니까 어떻게 공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떤 거 할 때에 내가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공한 것이요, 여여한 것이다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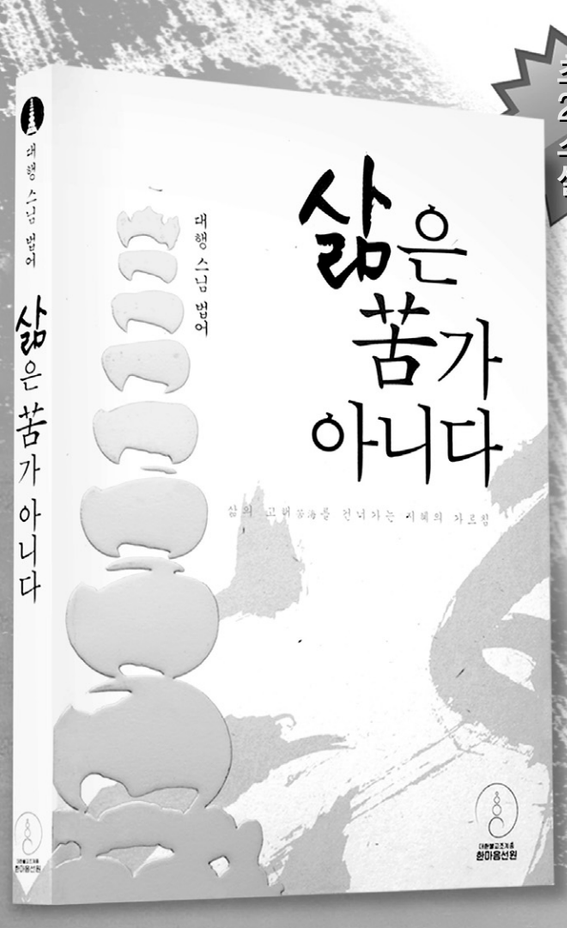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서 살면서 고정되게 보고만 있으면 목석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고정되게 듣고만 있으면 귀머거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생각해 볼 때에 '일거수일투족이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그대로 내가 한 바가 없이 여여하구나!' 한 것이 됩니다. 그대로인데, 그렇게 윗눈썹과 아랫눈썹이 가깝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자기를 못 보는 겁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런지 그대로 여여하게 사시면서도 마음으로는 집착과 관습에 그냥 모두 얽매여 가지고는 오히려 마음이 자기를 붙들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죠. 사방이 다 터졌는데 말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체가 있습니까? 체가 있다면 내놔 보세요. 체가 없고 고정됨도 없고, 여기서도 집에 갔다 오시려면 한 찰나에 갔다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발이 어디 놓여 있고 내 소지품이 어디 있고, 그런 것까지도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얽매여서 트이질 못하고, 물리가 터지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둥글지 못하고 이래서 길면 긴 대로 길다고 야단, 짧으면 짧은 대로 짧다고 야단,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별도 하고 이러죠.

그러니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짧으면 짧은 대로 네가 짧아 주고 길면 긴 대로 네가 길어 주고 둥글면 둥근 대로 네가 둥글어 주고, 이 세상에 모두 높지 않은 사람이 없느니라." 내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간다면 뱃사공이 높고…. 내가 요즈음에 치과에 갔더니 말입니다, 치과 박사님이 제일 높습디다. 아무리 내가 높다고 생각을 해도 그건 망상입니다, 망상! 내가 잘한다고, 내가 잘 안다고 해도 망상입니다. 개미 소굴에 가 보십시오. 개미 소굴에서는 개미가 높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모두가, 미생물에서부터 일체 만물만생이 다 평등하니라." 하셨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공했다고 하는 이런 말을 말로만 알지 왜 뜻을 모를까? 모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형제 아닌 게 하나도 없다, 평등하다 이러는 그 가운데의 뜻을 왜 모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미생물에서부터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사람까지 화해서 이날까지 왔습니다. 진화됐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26면으로 계속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 • 법어 • 게송 • 선화의 집대성
▶ 신행요전 (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푼 천수경 (한글/영어)

buddhanews.com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기요 극락을 만드는 것도 자기다

☞25면에서 계속

나를 형성시켜서 이렇게 지금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탄생을 해 가지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안 그렇습니까? 미생물에서부터 말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이날까지 그렇게 겹겹이 올라오면서 인간까지 성장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벌레의 부모라고 그래서 내 부모 아닌 게 없습니다. 과거의 내 모습이니까 말입니다.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내 모습이고 네 모습이고 간에 내 부모 아님이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님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 그 말씀이 부처님한테서 나온 겁니다. 그게 아리송하시겠죠?

지금 육의 부모만 부모가 아닙니다. 내 영원한 근본은 정자 난자를 빌려서 삼합이 합쳐져야 육을 형성시킵니다. 지금만 육의 부모를 두고 이 세상에 나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수억겁을 통해서 아마 생존경쟁을 했을 겁니다.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이렇게 실랑이를 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를 그렇게 가깝게 두고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주인의, 즉 말하자면 종입니다, 종. 종 문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종입니다. 주인과 종이 둘 아니게 상봉을 해야만이 우리가 진짜 공부해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주인을 이름해서 부(父)라고 하고 자기는 자(子)라고 합니다. 자와 부가 상봉을 해야만이 그때서부터 무의 세계로, 유의 세계로 뛰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화두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 화두를 마음이 준 겁니다.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아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 이름이 없으면 줬다 안 줬다 할 수가 없으니까 화두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어느 스님네고 마음을 주었지 화두라는 이름을 준 거는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들일 때, 자기 영원한 근본이 물 한 방울이라고 치면 그 영원한 근본을 둘 아니게 수만 개를 넣는다 하더라도 물 한 방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영이죠. 그러니 그대로 한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그 한마음 가운데에 '너만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잖아.' 하고 놓는 것입니다. '내고 들이는 것이 바로 너니까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을 할 수 있잖아.' 하고 자꾸 놓는 것이죠.

일거수일투족을 움죽거리게 하는 것도 너, 잘되고 못되게 하는 것도 너, 잠자고 깨어나게 하는 것도 너, 일체가 다 너죠. 너라고 해도 좋고 부처라고 해도 좋고, 주인공이라고 해도 좋고 부(父)라고 해도 좋고, 자기가 친근하게 닿을 수 있는 이름으로 방편을 대도 좋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보살들을 자기가 생산시켰습니다. 한마음으로서 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을 전부 보살로 화하게 해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 나게 만들고, 낮고 높고를 떠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가리지 말고 모두 응신이 돼 줘라 하는 뜻에서 천백억화신이 그 모든 중생들에게 응신으로 나투어 주신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몸속에서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현재에 모두 주둔하고 있는데, 이런 게 있죠.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몸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적으냐 많으냐 하는 차이뿐이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내가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부처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인과응보도 내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두를 이끌어 갈 수 있고 스스로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그 다섯 가지가 있다면 오신통이라는 다섯 가지가 또 있죠. 그 육통을, 육신통이라는 이 통 속에서 벗어나야만이 누진으로써 자유스럽게 들이고 낸다 이런 말이죠.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알아듣기 쉽게 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하하….

넓게 살아라! 둥글게 살아라!
모든 걸 네 모습, 네 마음, 네 아픔으로 생각해라!

그래서 보는 거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 또는 신족통 타심통 숙명통이라는 다섯 가지의 오신통 자체 속에 유전성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세균성이라는 다섯 가지의 그 모든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그 자체는 뭐냐?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따지자면 오신통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컴퓨터라고 한다면 그 다섯 가지 문제를 들이고 다섯 가지 문제에서 풀려서 현실로 나가고 또 들이고 하는데, 내고 들이고 하는 것이 자동적으로 또 입력이 된단 말입니다. 참 묘하게 생겼어요. 입력이 되는 대로 자꾸 그게 누적이 되니까 누적되게 하지 마시고 그 나오는 자리에다 다시 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이 없어지지 않느냐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놈이라고 하면 어떻고 부처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오직 한 놈 속에서 들이기도 하고 내기도 하는 걸요. 그러니 그 구멍이 아니라면, 구멍 없는 구멍이 아니라면 절대로 무의 세계에는, 궁전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궁전에 들어서야만이 현실의 모든 법을 감지하면서 무의 세계에서 실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가 나지 않게 둥글리면서 진짜 공부는 그때서부터 하는데 그것이 점수입니다. 점수라고 일컬어 말하는 거죠. 돈오와 점수가 어떻게 둘이겠느냐. 돈오는 어린애를 금방 낳은 거와 같고, 점수는 어린애를 키우는 거와 같다 이런 겁니다. 키우는 거하고 낳는 거하고 뭐이 다릅니까? 선과 학도 둘이 아니요 생활과 부처님 법도 둘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 자체가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이고 우리들의 법이자 우리들의 재료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재료!

법당에 들어가서도 삼정례를 한다, 칠정례를 한다, 팔정례를 한다, 또 백팔 배를 한다, 삼천 배를 한다 이러는데, 옛날에 제가 걸음을 걸을 때에 한 걸음을 걸은 거와 삼천 걸음을 걸은 거와 맞먹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길이 산길이 아니고 들길이 들길이 아니고 그대로 한생각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하면서 살고 계신데 그걸 납득을 못해서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진짜로 믿고, 자기 콩싹이 자기 콩씨를 진짜로 믿고 '하! 영원한 친구구나. 네 몸이 이렇게 불편해서 쓰겠니? 네 집인데 주인이 고쳐야지 누가 고치겠니? 사사 집도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고치게 마련인데 아, 네 집을 형성시켰으면 네가 고쳐야지.'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내뜨릴 수 있다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겁니다. 참으로 좋고 묘하고 말로는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 위 중간, 즉 대천세계 중천세계 하천세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둘이 아니게 둥글려서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지만, 법도를 지키려면 바로 하천세계는 하천세계고 중천세계는 중천세계고 상천세계는 상천세계입니다. 즉 말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으면서도 따로 없다. 한 찰나에 과거고 한 찰나에 미래고 한 찰나에 현실인데, 우리가 죽어서 과거로 가서 또 다시 미래를 향해서 현재로 다시 오는 거는 어느 생명체도 다 똑같습니다. 지옥이 따로 있고 극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현재 세계에 모두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지 않은가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시고요. 그리고 그 지옥을 만드는 것도 자기요 극락을 만드는 것도 자기입니다.

자기 마음이 그렇게 묘하고 미묘하고 광대한데 그런 마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마음이 정말이지 아주 기묘하고 미묘한 법을 그대로 방치한단 말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서 그대로 남의 탓만 하고 남이 모자란다는 생각만 하고 남이 잘못한다는 생각만 하고, 나는 이만하면 법탑이 어떻고 나는 이만하면 뭐가 어떻고 이런 생각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구는 비구니까 성불한다는 생각에서 그만 잘못되고, 비구니는 성불 못한다는 데서 그만 잘못됩니다. 하늘이 비구라면 땅은 비구니입니다. 산하대지의 모든 일체 만물만생을 길러 내는 어버이입니다. 젖소로 따진다면 비구가 젖소라면 비구니는 젖일 것입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그 따뜻한 마음, 한 아름으로 비구 스님네들은 모두…. 땅에 박힌 돌 하나도 부처 아닌 게 없다고 하셨는데, 공안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고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고 내 도량 아닌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렇게 자기네들 심부름 해 주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거죠. 심부름을 부려먹어도 좀더 너그럽고 지혜롭게 팔 아름이 이 세상을 다 안고도 남음이 있게끔 안는다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로는 비구가 됐다 때로는 비구니가 됐다가, 때로는 작부가 됐다가 때로는 짐승이 됐다가 미생물이 됐다가, 이렇게 천차만별로 화해서 바뀌고 나툰다고 하셨는데 어떤 거를 할 때 비구니라고 하고 어떤 거를 할 때 비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 불교의 중흥을 이룩하고 한국 불교를 리드해 나가려고 한다면…, 지금 청소년들이나 우리 한국의 모든 것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발전은 되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얼마나 집을 튀어나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나쁜 짓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승가대학을 좀더 마음으로라도 뒷받침을 해서 거기서 금같이 굳고 대쪽같이 바르고, 넓기로 말하면 우주를 싸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스님네들이 배출되기를 바라면서 마음으로 항상 염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서 노는 고기들은 물 밖에 나오면 죽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공기주머니에서 나오면 죽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가긍히 생각하시고 "너희들이 공기주머니에서 벗어나야 자유스러우니라." 하셨습니다. 너무나 가긍해서 부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팔만대장경입니다. 죽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몸이 쓰러지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먹는 것도 생각 안 하고 주는 것도 생각 안 하고 받는다는 생각도 없이, 오직 건질 생각만 하시고 그렇게 팔만대장경을 말씀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신 건데, 우리가 첨단은 넘어설 수 없을지언정 그 말씀만은 실천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공기주머니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갇혀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이 육신통, 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지구 속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심안으로 보기만 해도 도라고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보는 것도 도가 아니고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잘 아는 것도 도가 아니니라. 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간다 하더라도, 구름을 타고 다닌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어디서 나온 줄 안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자기가 모든 것을 듣는다고 해도 도가 아니니라. 그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나서 대뇌에서 자유자재권을 얻어야 되느니라. 대뇌라는 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모든 일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과도 가설이 돼 있습니다. 참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0월 8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 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① 일 정 : 2009. 9. 26(토) 오후 1시부터 ~ 9. 27(일) 오후 6시까지
  ② 수강료 : 10만원(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

스님!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단돈 70만원에 법당의 오래된 엠프 마이크 소리를 "확" 바꿔드립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접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앰프+마이크,스피커+마이크 등의 교체 및 재 셋팅〕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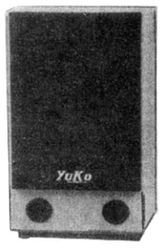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예약접수기간 : 2009년 6월 ~ 8월 31일까지
(예약순으로 일주일에 법당 2곳만 설치해 드림)
해 당 지 역 : 서울, 경기, 충청, 강원 일부 지역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스피커

◇가격 : 500,000원(설치비 포함)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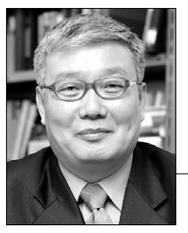
고성능 탁상 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고음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자 세상보기

이강렬
극작가 · 한국문인협회 상임이사

국위선양하는 소중한 자산 '한글'

누구나 해외에 나갈 때면 맨 먼저 챙기는 것이 명함일 것이다. 한번은 중국을 갔는데 어쩌다가 한글 명함을 주었더니 상대방이 내용을 이해 못해 난처해했다. 결국 한자로는 어떻게 쓰느냐고 물어서 한글과 한자를 비교해가며 성의껏 설명해 주었다. 그러자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이처럼 한글명함을 받은 외국 사람들은 한글을 처음 보는 글자라며 호기심을 나타낸다. 그러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지은 때와 초성 · 중성 · 종성으로 이루어지는 한글의 제자원리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적인 글이라고 칭찬한 외국 학자들의 이름을 힘주어 열거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놀람과 경이로운 눈길로 대한다. 물론 한자어로 그대로 직접 한글 표기를 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말은 쉽게 풀이해 써야 할 것도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은 한자어를 읽는 소리대로 한글표기를 해도 지장이 없다.

무릇 글자란 한낱 부호요 기호에 지나지 않으며 그 글자들에 담긴 말에 뜻이 있는 것이다. 이를 테면 음식물을 담는 그릇이 바로 글자인 셈이다. 따라서 그릇은 보기 좋고 튼튼하고 쓰기 편한 데에 가치가 있다면 글자도 누구나 배우기 쉽고 쓰기에 편하면 된다. 더구나 과학적이요, 합리적인 장점을 지닌 한글로서 정인지의 설명처럼 바람 부는 소리, 귀신이 우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는 편리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글이 일찍부터 활발하게 활용돼 왔다. 조선조에 성행됐던 고대소설도 모두 한글로 써 있고, 신소설을 거쳐 현대소설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손으로 문학작품으로 창작됐다. 이처럼 한글전용을 손쉽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한글 자체가 세계에 유례없는 우수한 문자였기 때문이다. 덴마크의 언어학자 에스페르센은 "외국 말을 자주 많이 써 버릇하면 똑같은 뜻을 가진 순수한 자기 말에 대한 어감을 서툴게 해 결국은 자기 말을 죽이고 외국말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글은 이미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넘어 이제는 국위를 선양하는데 이르렀다. 최근 세계의 언론은 "한글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품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주요 신문이 인도네시아의 소수민족 등에게 한글을 보급하는 사례를 집중 보도하며 한국의 한글 수출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 소수민족이 문자가 없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토착어 '찌아찌아'를 지키기 위해 한글을 사용키로 한 소위 '한글 섬' 사연을 소개했다. 부톤 섬은 초등학교는 이미 한글로 된 교재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다. 이들은 토착어를 보존하기 위해 한글을 표기 문자로 채택했다는 내용이다. 한글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한국의 언어학자들이 문자가 없는 소수종족을 위한 한글 교재를 만들고 있는 현황도 소개했다. 지난 7월 완성된 한글 교재가 소라월리오에 도착,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이 교재로 외국의 동화를 배우고 동물이름, 부톤 섬의 역사를 배우고 있다. 그들이 배우는 내용 중에는 찌아 찌아 어로 구전되는 전래동화도 있다. 한 거북이가 자신의 음식을 훔친 원숭이를 바나나 나무 덫을 이용해 죽인 후 다른 원숭이들이 복수하러 오자 돌로 된 가짜 거북이를 만들어 이들을 물리친다는 내용 등이다. 서울의 중심, 광화문 광장에 한글날인 10월 9일에 세종대왕 동상이 모습을 드러낸다. 동상은 좌상(坐像)형태로 대왕이 왼손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쳐든 채 오른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는 모습이다. 세종이 국민들을 사랑해 한글을 창제했듯이 인류애 차원에서 한글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며 이것이 세계화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아닐까.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인 한글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에 브랜드 이미지를 부여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한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선거법'도 챙겨보는 선거돼야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 바람이 시나브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간 출마를 놓고 고심하던 스님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상당기간 준비를 해 온 스님들도 나름대로 행보를 수면위로 띄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을 10월 22일로 공고하고 관련일정도 밝혔다. 이제 조계종은 선거 국면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의 승가단체인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가 9월14일 개최한 워크숍에서는 조계종 종도들은 어떤 총무원장을 원하는지를 분석한 설문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발표에 따르면 조계종 종도들은 '탁월한 도덕성과 청렴성, 60이상의 세랍 등을 갖춘 리더십으로 종단화합을 이끌며, 대사회적 소통능력과 시대변화를 읽는 능력'이 총무원장의 적절한 여건이라고 응답했다. 이 응답은 오늘날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 내적으로는 도덕성이 외적으로는 사회변화를 제대로 읽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임을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선거국면으로 접어든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은 사부대중 전체가 공개적으로 후보를 검증하고 후보의 종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선거과열과 각종 부조리를 막기 위해 선거 기간을 극히 제한했기 때문에 등록마감일에서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7일에 불과하다.

후보 검증에 대한 요구는 전 종도들로 확산됐지만 선거법은 아직 구태에 얽매여 있는 셈이다. 조계종은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선거법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 등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히말라야 행선 트레킹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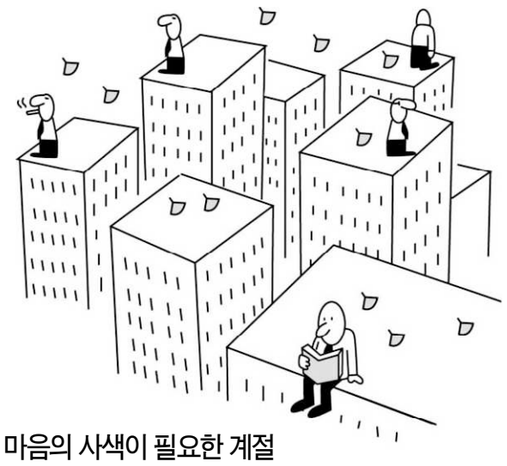
히말라야는 불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산이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설산이 바로 히말라야이기 때문이다. 그 웅장하고 신령스러운 산은 현지인들에게도 매우 성스러운 산으로 숭배되고 있다. 하늘과 맞닿아 땅을 품고 땅을 움켜쥐고 하늘을 떠받치고 선 영산 히말라야는 존재 그 자체가 종교다.

본사가 창간 15주년을 맞아 히말라야 행선(行禪) 트레킹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은 깨침의 영산에서 무거운 삶의 고뇌를 내려놓고 순일한 자신을 만나자는 취지다. 속진을 벗어던진 자신이란 바로 부처를 의미한다. 내 안의 부처를 만나는 길을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은 그 성역에서 열어보자는 것이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 현지 여행가이드와 포터, 셀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은 이미 두 학기를 교육하여 100명이 넘는 졸업생들을 배출했다. 현재 세종한국문화 언어교육원을 졸업한 청년들은 한국인과의 기본적인 대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그들이 동참한다. 현지의 전문산악인과 안내원들이 불심으로 동참하는 만큼 안전의 문제도 최대한 확보된 셈이다.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최소한의 욕구를 드러내는 것이다. 속도와 거리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문명을 발달시켰지만 그로인해 인간의 병도 깊다. 그 병을 치유하는 행선 트레킹에 독자제현의 큰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

현불만평 박구원



마음의 사색이 필요한 계절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5199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테마칼럼

9월의 테마-독서

내게 맞는 책 선택하는 방법

어린 시절 책방 주인을 꿈꿨다. 어린이날 사촌 오빠에게 받은 '작은 아씨들'의 이야기가 꼭 우리 집 얘기인 것만 같았고, 그 중에서도 둘째인 '조'는 나와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독립적인 성격,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성실함, 더불어 '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 책을 읽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더더욱 나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조'에게 있는 글 쓰는 재주가 내게는 없었다. 나도 '조'처럼 글을 잘 쓰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 언니에게 들은 귀동냥으로 글을 써서 초등학교 백일장에서 상을 탄 적은 있지만 그게 진짜 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어른이 된 지금도 글을 쓰는 일이 어렵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다. 어떻게 해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역시 '독서'였다. 내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엔 '독서'만한 것이 없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독서. 하지만 나는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를 몰랐다.

당시 고전(古典)이라 이름 붙여진 책들은 내게는 어려웠고 재미도 없었다. 그래서 나의 눈에 맞는 쉬운 책을 찾아 읽었다. 학교 선생님들이 추천하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던 책들은 내 손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닥치는 대로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그 많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은 몇 권 없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글이 달린 책들을 읽게 됐다. 재미도 있었지만 기억에도 남았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을 권해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아,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 보고 추천하는 책이 좋은 책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됐다.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책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이, 안목이 길러진 것이다.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것만큼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남는 것은 없다.

독서도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말한 책이 무조건 내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두꺼운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기에게 맞는 책은 자기 스스로가 찾아야 한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만을 믿고 따라갈 수는 없다.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자기에게 맞는 독서하는 방법과 책을 선택하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즐거운 마음으로 읽는 것이 좋다.

나는 늘 새로운 책을 대할 때마다 "이 책은 재미있을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주문을 외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꼭 재미있는 책이 돼 나의 기억에 남는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 있게 권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이다.

누구든 자신만의 방법으로 책을 선택할 것이다. 그 책을 얼른 읽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권해보자. 그러면 그 책은 분명 자신의 것이 된다. 내 책방에 책이 한 권 늘어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승은
서울 풍납중 교사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종교·국적·사상 넘어 함께 기도하고 어울리기를…

단양 광덕사를 가다

충북 단양의 '도락산(道樂山)'은 조선 후기 학자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깨달음을 얻는 데는 나름대로 길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는 즐거움이 뒤따라야 한다"는 뜻에서 이름 붙였다.

"힘이 안 들면 기도가 아니다"라며 매일 밤 쏟아지는 코피와 무릎의 피고름을 닦아내며 100만배 정진을 마친 혜인 스님(광덕사 회주)과 '도를 즐기는 산(道樂山)'의 만남은 역설적이게도 필연(必然)인 듯 싶다.

혜인 스님이 도락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90년 은사 일타 스님과 함께 중국 낙산 대불을 참배했을 때이다. 당시 낙산은 홍수와 질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던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낙산의 고통은 대중들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대불을 조성한 뒤 끝났다.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중생의 고통을 없애 줄 대작불사를 이루겠다고 발원했다. 귀국 후 스님은 '사방이 모두 한 가족이며, 세계는 한송이 꽃(四海一家 世界一花)'이라는 원력을 세우고 대작불사의 최적지를 찾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 끝에 단양 도락산에 이르러 지금의 광덕사 터에 다다랐다.

광덕사 터의 앞날을 바라본 것일까? 1997년 일타 스님은 광덕사에서 법당과 요사채를 지어 한 철 지낸 뒤 "장차 이 곳은 수행도량이 될 것이며 많은 이들의 귀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사이 혜인 스님은 제주 약천사에서 108만불 조성불사를 회향하고, 다시 단양 광덕사를 찾아 100만불전 건립을 구상했다.

2002년 불사에 착수한 광덕사 100만불전은 64만평의 거대한 터전에 연면적 1만579㎡(3000여 평), 지하 2층 지상 4층인 국내 최대 규모의 법당으로 계획됐다. 본격적인 불사는 2003년 10월 4일 금동대불 100만불전 기공식과 함께 시작됐다.

2005년 4월 24일 상량식에 이어 봉불식이 있기까지 혜인 스님의 원력에 수많은 대중들의 신심이 보태져 불사가 이뤄졌다.

드디어 2009년 9월 14일 많은 이들의 염원으로 이룬 4m 높이의 금동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을 봉안한 백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이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고산 · 종상 · 보성 · 도견 스님 등 조계종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설정 · 종진 · 자승 · 정관 스님 등 계단위원 · 본사주지 및 국내외 많은 스님이 5000여 사부대중과 함께 자리해 혜인 스님이 이룬 원력을 찬탄하고 회향을 축하했다.

오전 10시 점안식과 함께 시작된 봉불식에는 미타삼존불의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친견한 사람들의 감탄으로 법당이 또 한번 가득찼다. 스님과 불자들 모두 표정이 상기돼 있었다.



9월 14일 단양 광덕사에서 백만불전 미타삼존불 봉불식이 거행됐다. 많은 사부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금동아미타불과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이 봉안되는 모습.

'사해일가 세계일화' 원력… 백만불전 7년만에 봉불식
故 박정희 前 대통령 추모하는 무궁화 동산 조성 예정

이에 앞서 봉불식 하루 전날인 13일은 전야제 행사가 진행됐다. 전야제 행사에는 삼귀오계 수계식을 갖고 해외 고승및 선지식 초청 법문이 이어졌고, 밤 12시에는 대중들의 철야 용맹정진이 있었다.

광덕사 봉불식은 여법하게 진행됐다. 철야정진까지 하며 5000여 넘는 대중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단순히 불사의 크기 때문이 아니었으리라. 광덕사는 혜인 스님이 종단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스님의 원력만으로 100만배의 정진력에 대중들의 신심이 보태져 불사가 이뤄졌다.

대작 불사가 회향되려면 스님 혼자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불사에 거액을 보시하는 불자들이 있지도 않았다. 단지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여러 불자들의 정성이 모여졌을 뿐이었다. 단양 광덕사의 100만불전은 혜인 스님의 100만배 원력에 100만 불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이 더해 이룬 불국정토다.

하지만 항상 좋은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고통도 따르는 법이다. 불사가 진행되기까지 결코 원만했던 것은 아니었다. 혜인 스님은 봉불식에서 감격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간의 고통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

스님의 제자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혜인 스님이 걱정돼 불사건립은 자신들에게 맡겨달라고 자청 했고, 스님은 제자들을 믿고 3년간 참선을 할 목적으로 수덕사에 들어갔다.

스님이 참선 정진하던 사이 자금문제가 불거졌다. 많은 빚쟁이들이 몰려들었고, 결국은 스님이 수행하는 산사까지 찾아와 수시로 협박하기까지 했다. 빚쟁이들은 스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사를 떠나라는 각서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견디다 못한 스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까 고민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여태껏 이뤄왔던 모든 것을 버리고 가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특히 대작불사를 이루겠다는 부처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었다. 혜인 스님은 다시 발심했다. 스님이 다시 발심하자 놀랍게도 빚쟁이들과의 협의도 순조롭게 진행됐고, 불사도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그 당시 혜인 스님을 지켜본 주지 일각 스님은 "혜인 스님은 고통스러워 하시다 못해 매일 코피를 쏟았다"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려야 했다"고 회고했다.

혜인 스님은 자신이 부딪혔던 마장도 모두 부처님 뜻이라고 했다. 스님은 "이런 사건은 불사 건립에 돈이 돌지 않아 생긴 일이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은 비단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처님은 '중생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요, 중생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반문했다.

"돈을 주지 못하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받을 돈을 못받아 달라고 채근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결국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헤쳐나가시는 혜인 스님의 모습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한데 모으게 했다. 그 정성이 모여 100만불전이 건립됐다. 이러한 마음과 원력의 크기로 비교한다면 어쩌면 광덕사의 규모는 턱없이 부족한지도 모른다.

스님은 "100만불전 건립에 그치지 않고 광덕사 주변에 무궁화를 심어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혜인 스님이 故 박정희 前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기 때문이다.

혜인 스님은 "육영수 여사가 박정희 대통령의 총을 대신 맞아 타계하고, 박정희 대통령 또한 총에 맞아 서거한 것이 굉장히 애석하다"며 "그의 딸인 박근혜와 이들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마음의 벽, 종교의 벽, 나라, 사상을 다 떠나 모두가 어울려 뛰어놀 수 있는 동산을 조성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세계에 기리 남을 대불을 만들어, 세계인 모두가 한집안 식구처럼 모여 사는 곳을 염원하는 혜인 스님. 많은 이들이 함께 행복하고 한 가족처럼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원력이 됐기에 불사가 가능했다. 스님은 100만불전에 108개의 방사를 만들었다. 혜인 스님은 "108개국 사람들이 즐겁게 기도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다"고 말했다.

100만불전이 원만히 낙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스님의 바람처럼 세계인 모두가 하나 돼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그런 불사를 기대한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혜인 스님은 팔공산 동화사에서 일타 스님을 은사로 13세에 출가했다. 스님은 군복무를 마친 후 용맹정진을 결심하고 해인사 장경각에서 절을 하기 시작했으며, 1971년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백만배 기도 회향을 성취했다. 기도라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고비를 한번은 넘겨야 기도 성취에 가까이 다가서게 되고, 참선을 하는 이라면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는 경지에 들어서야 득력(得力)을 하게 된다. 100만배를 마친 스님은 지극한 신심으로 일체를 망각했을 때, 진정한 도력(道力)이 길러지게 되고 원력(願力)을 세우면 안 되는 일이 없음을 깨달았다. 현재 약천사 회주로 지내며, 대불조성을 목적으로 단양 광덕사를 건립 중이다.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대구 장성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서울 화계사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마산 금강정토사 LED인등


용학사 극락전 영구위패

찬덕연등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아름다운 등

'동해 독도는 한국 땅'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사찰명 인쇄)


칼라(보카시)연등 · 공단등 · 오색공단등 · 영가등 · 종등


육바라밀 만월등(육바라밀 주름등) · 팔각봉축접등 · 종등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